UNESCO INTERNATIONAL W O R K C A M P F I N A L REPORT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라!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서 1954년 설립 이후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세대팀은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문제와 세계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환경보전 등을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큽니다. 평화, 인권, 기아, 환경, 생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바로 이러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자들은 서로의 견해와 시각을 나누고 배움으로써 서로의 차이에 대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됩니다. 지역과 지역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름, 개별성, 다양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보편성, 상호의존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제워크캠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앞으로 국제워크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세대팀

CONTENTS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소개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연혁	10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현장 소개	14
1) 제주워크캠프	16
2) 무안워크캠프	32
3) 인제워크캠프	48
4) 통영워크캠프	64
5) 한일DMZ워크캠프	80

8

96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소개

◆2015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현장	소개 98
----------------------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자 에세이

◆제주	고준수 김동규 김지윤 나규문 문보미 이혁재 현동주 현창주 LUSTMAN, Arthur	120
◆무안	김아현 이민수 이상욱 임하연 최형민 AL GHAZALI, Abdul, Majeed Abdallah Saleh BERTOVA, Martina CHAPRI, Naiman ETIKASARI, Gian Wahyu MARICELL, Yeni MOUEN Makoua, Lisa PHUONG TUONG, Phan THU NHA TRANG, Pham YANG, Lan	144
◆인제	김하은 오지은 이득원 전소영 정문규 조민근 한상일 GOJA, Ioana Gabriela MARTIN, Adriana ZHOU, Shenglin	183
◆통영	구창훈 신병주 윤여경 이강원 채수아 최동연 최지영 JIMENEZ ORTEGA, Andres MICHAEL, Lydia	204
◆한일 DMZ	소병훈 송준혁 이혜진 황예은	228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참가자 에세이

◆라오스	강동렬 김관호 박근형 박예란 장재현 최수진	240
◆인도네시아	김태현 류승연 심재희 안명진 이정민 전지영 최민희 최영준 황지원	270
◆기아글로벌워크캠프	강석진 이민주 최단아 최영주	293
◆숙명여대	권현지 김경아 신경연 심경혜 이소림 이하늘 정현빈 최지원	302
◆개인	박상원	334

참가자 명단

338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소개

1964년 제13차 유네스코 총회는 청년문제 연구 및 청년활동 촉진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청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66년 처음으로 국제야영봉사 (International Work Camp)를 개최하였고, 1979년 국제청년캠프 (International Youth Camp: IYC), 2009년 청년지역행동 (Youth in Community Action: YiCA)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UNESCO International Workcamp)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약 5000명에 이르는 세계 90개국의 청년들이 참가한 세계 유수의 국제 청년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관심, 전망, 기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인 청년을 동등하고 가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를 체험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하여 지역문제와 세계문제의 연관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 1966

용인 1968

고양 1970

참가국	7개.	참가자수	49명

- 참가국 5개, 참가자수 60명 소록도 1967
- 참가국 5개, 참가자수 70명
- 참가국 4개, 참가자수 75명 주문진 1969
- 참가국 5개, 참가자수 90명
- 참가국 3개, 참가자수 72명 금산 1971 HERE NEW POWER
- 참가국 5개, 참가자수 90명 동래 1972
- 참가국 7개, 참가자수 84명 여주 1973 YOUTH FOR DEVELOPMENT
- 참가국 10개, 참가자수 130명 이천 1974 FOREVER FORWARD
- 참가국 6개, 참가자수 60명 이천 1975 NOT A WORD BUT AN ACTION
 - 참가국 5개, 참가자수 50명 광주 1976 YOUTH IS POWER
- 참가국 8개, 참가자수 100명 유네스코청년원 1977 HAND IN HAND FOR A BETTER TOMORROW
 - 참가국 7개, 참가자수 80명 춘성 1978 YOUTH IS TOMORROW
- 참가국 7개, 참가자수 80명 춘성 1979 WORK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
 - 참가국 9개, 참가자수 101명 홍성 1980 ME FIRST
 - 참가국 8개, 참가자수 92명 담양 1981 NOT LATER, BUT NOW

1982 유네스코청년원 참가국8 TOWAR 1983 유네스코청년원 참가국 9 A NEW 1984 유네스코청년원 참가국 8 LEARNI

1985 유네스코청년원

1986 담양

1987 유네스코청년원

1988 유네스코청년원

1989 유네스코청년원

1990 유네스코청년원

1991 유네스코청년원

1992 유네스코청년원

1993 유네스코청년원

1994 유네스코청년원

1995 유네스코청년원

1996 유네스코청년원

1997 유네스코청년원

1998 유네스코청년원

참가국8개, 참가자수 80명 TOWARD A BETTER WORLD

<mark>5년원</mark> 참가국 9개, 참가자수 84명 A NEW IMAGE FOR YOUTH



원 참가국 8개, 참가자수 82명 LEARNING BY DOING

원 참가국 9개, 참가자수 96명 TOGETHER TOWARD THE FUTURE

참가국 10개, 참가자수 95명 STEP TOWARD A PEACEFUL WORLD

청년원 참가국 11개, 참가자수 98명 OPEN MIND TO NEIGHBOURS

12개, 참가자수 110명 YOUTH AND NEIGHBORS

형년원 참가국 14개, 참가자수 89명 HARMONY IN DIVERSITY

년원 참가국 14개, 참가자수 96명 SHARE AND RESPECT

· 참가국 13개, 참가자수 110명 SHARING THE FUTURE

참가국 18개, 참가자수 128명 WORLD PEACE AND YOUTH IMPACT 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참가국 13개, 참가자수 117명 YOUTH SHAPING THE FUTURE

참가국 17개, 참가자수 123명 YOUTH AND ENVIRONMENT

참가국 19개, 참가자수 133명 OPEN MIND, OPEN WORLD

형년원 참가국 21개, 참가자수 123명 YOUTH : TOWARD A NEW ENCOUNTER

원 참가국 16개, 참가자수 113명 WHO ARE WE?

참가국 18개, 참가자수 90명 RIGHT TO ACT, RIGHT TO HOPE



12

전국 2007

전국 2013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115명 유네스코청년원 1999 BRIDGING THE GAP TOWARD A MILLENIUM OF PEACE

- 참가국 16개, 참가자수 75명 유네스코청년원 2000 PEACE IS IN OUR HANDS
- 참가국 21개, 참가자수 131명 전국 2001 VOLUNTEER FOR LIFE, LIFE FOR VOLUNTEER
 - 참가국 30개, 참가자수 150명 전국 2002 YOU CAN MAKE A DIFFERENCE
 - 참가국 24개, 참가자수 151명 전국 2003 YOUTH IN ACTION
- 참가국 14개, 참가자수 93명 전국 2004 STEPS TOWARD A SUSTAINABLE FUTURE
 - 참가국 21개, 참가자수 107명 전국 2005 BE THE ONE TO CHANGE
- 참가국 26개, 참가자수 105명 전국 2006 CHALLENGE TODAY, CHANGE TOMORROW
 -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127명 UNITE YOUTH, CREATE CHANGE
 - 참가국 19개, 참가자수 92명 전국 2008 GLOCAL SOLIDARITY, GLOCAL ACTION
- 참가국 21개, 참가자수 70명 전국 2009 VISION, VALUE, AND ACTION FOR SUSTAINABLE COMMUNITY
-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80명 전국 2010 YOUTH WORKING TOGETHER FOR SUSTAINABLE COMMUNITIES!
 -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80명 전국 2011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80명 전국 2012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101명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 참가국 17개, 참가자수 75명 전국 2014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 참가국 20개, 참가자수 75명 전국 2015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2015 국제워크캠프 현장 소개





1) 제주워크캠프 [KNCU-01]

활동사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문화와 교육'을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온 19명의 참가자들이 워크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15 제주 워크캠프의 프로젝트는 3가지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놀이교실, 마을 환경 미화 및 홍보를 위한 벽화 그리기, 어멍아방잔치마을 및 주변을 알리기 위한 팻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매일 지역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문화교육, 체육활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홍보와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벽화를 디자인 및 그렸습니다. 또한, 나무로 친환경 팻말을 작업해 신풍리 주변 안내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며,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2015.7.14-27 장소: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참가자: 국내외 참가자 19명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어멍아방잔치마을



제주만이 가진 독특한 섬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 어멍아방 잔치마을'은 2002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전통테마마을로 제주도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농, 어업을 관광과 연계시킨 그린투어 마을입니다. 어멍아방 잔치마을에서는 제주전통의 혼례체험을 비롯해 집줄 놓기와, 물허벅을 지고 부엌의 물항아리에 나르는 물허벅 체험, 마을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드는 손두부체험, 승마체험, 고망낚시, 초가 체험 등 다양한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원, 초가 체험장, 운동장 등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멍아방 잔치마을 주변 곳곳이 체험장 입니다. 특히, 옛 신풍분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리모델링해서 단체숙박이나 행사장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옛 모습과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성읍민속마을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마을주변에 있습니다.



제주워크캠프 참가자



















신풍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와 체험의 장



21



낡은 마을 건물들에 다양한 벽화 그리기를 통한 유네스코 거리 조성













예초, 팻말 만들기 등을 통한 신풍리 둘레길 미화작업





WORKCAMP INFOSHEET for KNCU-01, JEJU

Arrival Date	14 July
Meeting Point	Gate 1, Jeju International Airport
Meeting Time	1PM, 5PM
Departure Date	27 July
No. of Volunteer	s 22 (12 International, 10 Korean)
Working Langua	- P I
	ge English
	ge English
	ge English
Contact	ge English m overseas OR 02 6958 4176 in Korea
Contact	
Contact	m overseas OR 02 6958 4176 in Korea

ABOUT WORK

BACKGROUND & LOCAL ORGANIZER

'Oe-moeng-a-bang-jan-chi-ma-eul (어멍아방잔치마을')' is a small seaside community in the foothills of Halla mountain, which i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Since this is a remote area from tourist destinations, this village is still well preserved and maintains the traditional life style of Jeju Island.

The heritage of several prehistoric dolmens are scattered on the ground. Yet, the village faces issues in regards of the declining of the number of residents.

In order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this community has bee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mes for children from the cities to visit the village and study with local children during the semester. They also run a programme for people to stay in the village and experience the tradition and culture of Jeju Island.

This is the first year for that the community is inviting volunteers from the world. Volunteers will have a good opportunity to work for and experience the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ABOUT WORK



1 Working for local community (Monday to Friday for 2 weeks / Morning time)

Volunteers will work for local residents such as agricultural farming and repairing old houses in the village. Sometimes, it will be physically demanding but your efforts are great assistance to the residents. By helping out in the local community, volunteers can have hands-on experiences and truly grasp what it is like to live and work in Korea's countrysides.

2 Painting a Wall (Monday to Friday for 2 weeks)

Volunteers will paint several empty walls of community facilities including bridges, community houses as well as residential houses of underprevillaged residents. The theme of the painting is peace. Volunteers will also make direction signs for tourists.

3 After school activities (Monday to Friday for 2 weeks, every afternoon)

In Korea, lessons on multiculturalism are part of the regular programmes in primary education. As the number of immigrants rapidly increases, it is vital to learn about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During the workcamp, you will assume the role of a teacher and introduce your culture and country to the local children and youth. You will organize lesson plans and practice it together with the other campers before the class.

You can use any items such as images, songs, games, dance routines, or even magic shows. Volunteers will also hold a science class to make a simple mosquito repellent for children.

It is not common that students, particularly in our workcamp sites, meet many foreigners during class. Your lessons are a good opportunity for children to learn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ACCOMMODATION & FOOD

Volunteers will stay at a renovated school, a community facility, located in the village. Bedding will be provided and volunteers will sleep on the Korean style floor. Volunteers will share one big room, one room for female participants and another for male volunteers. Meeting rooms, bathrooms and toilets are available in the accommodation.





Participants have to cook by themselves. The volunteers will need to take turns in cooking, showcasing their own culture's food. Please note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specific halal food or vegetarian dishes during the workcamp. However, Korean meals always include a variety of side dishes, some of which may be vegetarian. Participants may choose what they want to eat from among the various available dishes. On the first day, volunteers will gather to make a schedule as to who will cook, clean, etc.

If you have specific dietary needs or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workcamp@unesco.or.kr.

WHAT TO BRING

FOR LIVING

◆Toiletries (toothbrush, toothpaste, soap, shampoo, etc)

Towel

Personal medicine

Comfortable footwear or sturdy, closed shoes (to prevent from sliding on rainy day)

•Outworn clothing (for painting activity, clothes may get dirty)

Sun-screen, hat, & umbrella or waterproof clothing

Mosquito repellent

Lock (You can lock your locker.)

Please do not bring high-priced objects in case they get lost. KNCU and the local host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any stolen or lost belongings.



•Groceries and ingredients that are unique to your country.

: We will use these for our meals and the farewell party to share food culture with local residents. If you have any meal plan for camp, please contact Mr. PARK.

Detailed information about your country and culture.

: We will have Afterschool Activities for local children. Please bring resources such as pictures, postcards, maps, traditional costumes or musical instruments that represent your culture. Traditional songs and dancing are also welcome!

Games

: We will be playing games during our free time.

Materials that show off your talents

: During the farewell party, we will have recreation time with local residents. Time to show your talent!



All the participants should purchase their own insurance and submit the copy of the insurance policy before the camp starts.

Please note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ill provide a basic insurance for the accidents during the workcamp for participants ONLY who send their confirmation form together with the copy of her/his passport by no later than 30 JUNE.

Neither KNCU nor the host organizations will be liable for expenses incurred from accidents, injuries, medical treatments, hospitalization, loss or damage of personal properties, or for any form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eath, disability, or injury apart from the basic insurance.



ABOUT KNCU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as founded on 30 January 1954 following Korea's admission to UNESCO in 1950. The Act concerning UNESCO Activities in Korea enacted in 1963 provides the Commission with a firm legal basis for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its finances and program management. More than 60 years, KNCU has constantly evolved to better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UNESCO is the first United Nations agency to have defined and developed specific programmes so that youth can engage in their societies as responsible social actors and partners. The principal objective of UNESCO's strategy of action with and for youth is to champion the empowerment of young people to ensure and enhance their full participation as equal and valuable partners in society.

Accordingly, the youth-oriented activities of KNCU focus on giving youth of today and tomorrow the best possible chance to express themselves and participate fully in social life.

For more information: www.unesco.or.kr/en





ABOUT JEJU

GEOGRAPHY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dominated by Halla-san (Halla Mountain): a volcano 1,950 metres high and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The island was created entirely from volcanic eruptions approximately 2 million years ago, from the Tertiary time period to the beginning of the Quaternary period, and consists chiefly of basalt and lava. The eruptions took place in the Cenozoic era. It has a humid subtropical climate, warmer than that of the rest of Korea, with four distinct seasons. Winters are cool and dry while summers are hot, humid, and sometimes rainy.

The value of Jeju has been recognized through its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in 2002,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2007 and a Global Geopark in 2010, making this sub-tropical island the only place on Earth to receive all three UNESCO designations in natural sciences.

Tourism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Jeju's economy. Jeju's temperate climate, natural scenery, and beaches deem it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for South Koreans as well as visitors from other parts of East Asia.

WEATHER

July is a rainy season in Korea. It's so hot and humid mixed with rain.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data, July's temperatures range between 28~32'C. As weather is unpredictable, it will be more convenient to bring an umbrella or waterproof clothing. There is also a good chance of rain or typhoon at one point during our program in Jeju. One should expect a typical tropical weather.



30

SOCIETY & CULTURE



Because of the relatively isolated geographical state of the island, the people of Jeju have developed a culture and language that are distinct from those of mainland Korea. Jeju is home to thousands of local legends. Perhaps the most distinct cultural artifact is the ubiquitous dol hareubang ("stone grandfather") carved from a block of basalt. Another distinct characteristic of Jeju is the matriarchal family structure, found especially in Udo and Mara, but also present in the rest of the province. The best-known example of this is found among the hae-nyeo ("sea women"), who were often the heads of families, because they controlled the income. They earned their living from free diving, often all year round in cold water temperatures, without scuba gear in order to harvest marine products.

However, becaus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nly few hae-nyeos still actively work today.



Jeju Island is the southernmost and largest island isol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Due to its lack of fresh water, paddy farming is only done on a small scale on the island, with the cultivation of cereal crops such as millet, barnyard millet, buckwheat, and barley as the main feature of agriculture. Therefore, the traditional Jeju meal generally consists of japgokbap which is a bowl of steamed multiple grains as the main dish, with various salted dried fish called jaban as banchan (side dishes).



2) 무안워크캠프 [KNCU-02]



3년 연속 전라남도 무안지역에서 진행된 2015 무안국제워크캠프는 생태지평연구소와 협력하여 11개국 16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갯벌은 람사르습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는 등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안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며 무안갯벌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급 흰발농게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보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을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 공동노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주니어 국제캠프를 2회 진행하였고, 유네스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세계유산 보존현황과 보존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는 주민들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기간: 2015.7.21-8.3 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참가자: 국내외 참가자 16명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 생태지평연구소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Eco-Horizon Institute)

생태지평연구소는 생태철학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의 대안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2006년에 설립된 민간 환경연구소입니다. 주로 서남해안 갯벌의 보전 및 DMZ 생태계 보전, 대안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연구, 환경교육,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갯벌보전-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관리정책 지원, 갯벌 교육프로그램 개발, 생태여행 콘텐츠 발굴, 황해(한국-중국-일본)와 와덴해 3국(덴마크-독일-네덜란드)과의 국제협력 등과 지역발전계획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전남 무안갯벌에서 YSESP(Yellow Sea Ecoregion Support Project)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현장활동, 지역단체 및 지역민과의 소통, 민-관 협력사업, 교육사업, 정책 지원 등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안워크캠프 활동보고




















국가별 체험부스 운영, 갯벌 탐방, 환경보전활동, 놀이활동











전통 어업 체험, 저녁 잔치







WORKCAMP INFOSHEET for KNCU-02, MUAN

Arrival Date	21 July	
Meeting Point	11th floor, Korea UNESCO House, Seoul	
Meeting Time	1PM	
Departure Date	3 Aug	
No. of Volunteer	s 17 (12 International, 5 Korean)	
Working Langua	ge English	
Contact +82 2 6958 4176 from overseas OR 02 6958 4176 in Korea		

ABOUT WORK

Muan-gun is a region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Muan tidal flats were registered on the national wetland protection area in 2001 and on the site list of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in 2008. It was also listed on th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and as a Biosphere Reserve for its rich biodiversity and beaufiful landscape.

Muan has a lot of resources. Muan' coastal area consists of red clay and mud flat. It has coastline

LOCAL ORGANIZER

The local organizer for the KNCU-02 Muan workcamp is the Eco-Horizon Institut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articularly wetland.

The institute researches and suggests alternative polices for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n line with, the institute carries out various activities in order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values of environment so that contribute establishing harmony between human and the nature.

The institute is specialized in the field of wetland and DMZ (Demilitarized Zone) studies. They have cooperated with KNCU since 2011 for various youth programmes of KNCU including workcamps.

Eco-Horizon Institute will coordinate and supervise the Muan camp at the campsite. They also recruit children to participate in the junior global citizenship camp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and the Korean volunteers.





ABOUT WORK



*Work is subject to change

Working for local community

Volunteers will work for local residents such as agricultural farming and repairing old houses in the village. Sometimes, it will be physically demanding but your efforts are great assistance to the residents. By helping out in the local community, volunteers can have hands-on experiences and truly grasp what it is like to live and work in Korea's countryside.

Volunteers will paint several empty walls of community facilities including bridges, community houses as well as residential houses of underprevilleged residents.

2 Wetland preservation activities

Muan wetland was the first place listed on the national wetland protection area. Volunteers will work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uan wetland in cooperation with the Muan Ecological Tidal Flat Center, which is a local government.

Volunteers will work for raising the public awareness of the value of the white crab with white legs through creating items using recycling materials and waging campaigns with local children. Volunteers will also clean the wetland by removing marine garbage on the seashore.

3 Junior global citizenship camp

In Korea, lessons on multiculturalism are part of the regular programmes in primary education. As the number of immigrants rapidly increases, it is vital to learn about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During the workcamp, you will assume the role of a teacher and introduce your culture and country to the local children and youth. You will organize lesson plans and practice it together with the other campers before the class.



You can use any items such as images, songs, games, dance routines, or even magic shows. Volunteers will also hold a science class to make a simple mosquito repellent for children.

It is not common that students, particularly in our workcamp sites, meet many foreigners during class. Your lessons are a good opportunity for children to learn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4 Free time activities

During the two weeks, you will also be able to re-discover and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such as making traditional food and natural dyeing.

The host provides volunteers excursions of some famous places near the workcamp site on Saturdays. Sundays are free adys that participants can make tour plans by themselves and travel the island. Sunday activities will be at your own expenses.



ACCOMMODATION & FOOD

Volunteers will stay at a community center, located in the village. Bedding will be provided and volunteers will sleep on the Korean style floor. Volunteers will share one big room, one room for female participants and another for male volunteers. Meeting rooms, bathrooms and toilets are available in the accommodation.

FOOD

Participants have to cook by themselves. The volunteers will need to take turns in cooking, showcasing their own culture's food. Please note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specific halal food or vegetarian dishes during the workcamp. However, Korean meals always include a variety of side dishes, some of which may be vegetarian. Participants may choose what they want to eat from among the various available dishes. On the first day, volunteers will gather to make a schedule as to who will cook, clean, etc.

If you have specific dietary needs or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workcamp@unesco.or.kr.



WHAT TO BRING

FOR LIVING

◆Toiletries (toothbrush, toothpaste, soap, shampoo, etc)

Towel

Personal medicine

Comfortable footwear or sturdy, closed shoes (to prevent from sliding on rainy day)

 Outworn clothing (for painting activity, clothes may get dirty)

Sun-screen, hat, & umbrella or waterproof clothing

Mosquito repellent

Lock (You can lock your locker.)

Please do not bring high-priced objects in case they get lost. KNCU and the local host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any stolen or lost belongings.

FOR ACTIVITIES

Presentation and items about your country and culture.

: We will have junior camps for local children who are between 11 to 13 years old. Please prepare presentation regarding your country's history, culture, language, and etc.

: Please bring simple traditional games and small snacks for children who attend the junior camp. Any resources such as traditional costumes, pictures, postcards, maps, or musical instruments that represent your culture. Traditional songs and dancing are also welcome!

Presentation about your country's World Heritage protection policies.

: Volunteers will have a small forum regarding each country's policies on the World Heritage or environment polices. The forum will be composed of participants' presentations and following discussions. PPT or handouts to explain your presentation more effectively is WELCOME!

•Groceries and ingredients that are unique to your country.

: We will use these for our meals and the farewell party to share food culture with local residents. If you have any meal plan for camp, please contact Mr. CHOI, the Korean camp leader.

Games

: We will be playing games during our free time.

Materials that show off your talents

: During the farewell party, we will have recreation time with local residents. Time to show your talent!

45



All the participants should purchase their own insurance and submit the copy of the insurance policy before the camp starts.

Please note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ill provide a basic insurance for the accidents during the workcamp for participants ONLY who send their confirmation form together with the copy of her/his passport by no later than 30 JUNE.

Neither KNCU nor the host organizations will be liable for expenses incurred from accidents, injuries, medical treatments, hospitalization, loss or damage of personal properties, or for any form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eath, disability, or injury apart from the basic insurance.

ABOUT KNCU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as founded on 30 January 1954 following Korea's admission to UNESCO in 1950. The Act concerning UNESCO Activities in Korea enacted in 1963 provides the Commission with a firm legal basis for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its finances and program management. More than 60 years, KNCU has constantly evolved to better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UNESCO is the first United Nations agency to have defined and developed specific programmes so that youth can engage in their societies as responsible social actors and partners. The principal objective of UNESCO's strategy of action with and for youth is to champion the empowerment of young people to ensure and enhance their full participation as equal and valuable partners in society.

Accordingly, the youth-oriented activities of KNCU focus on giving youth of today and tomorrow the best possible chance to express themselves and participate fully in social life.

For more information www.unesco.or.kr/en







the Yellow Sea. During winter, strong waves create sand flats, while in summer, the mud flats expand as tidal flats turn into open-coast tidal flats during the monsoons. They have no barrier islands like other tidal flats in currents overpower the waves The Muan tidal flats on the southwest coast of Korea, are unique macrotidal flats where typical embayed tidal

sand flats on this site. During the course of the year, they shift from mud flats to mixed flats to sand flats. This are found year-round in the area, monsoons transform the mud flats into sand flats, giving rise to open-coast The seasonal change is very clear along the coastlines. Although mud flats that develop in embayed tidal flats distinctive feature of Korean tidal flats on the southwest coast has attracted global attention.

birds flying to Siberia on the East Asia Fly In addition, a to fly great distance evel from 20,000 years ago. The tidal I flats on the sou beginning variety of li Annually, a ears ago re to Sa 11 ULS /. Ine b in the vel o t is home to some 150 sp flats and stockpile the energy needec so serve by this site. ing the rapid opover for m les of ma tory

id animals live or benthos, and the once dama of sa es of halop tidal flats area, ytes are ti **bui b** Korea on the land today. Diverse wild plant argest salte



3) 인제워크캠프 [KNCU-03]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인제 국제워크캠프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16명의 참가자들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보전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Save Water, Save Food, Save Energy라는 모토를 갖고 친환경 농업활동과 화단 만들기, 적정기술 습득 등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이 워크캠프에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3가지 절약을 캠프 기간에 실천했습니다. 이 외에도 평화의 가치에 대해 배우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각자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비무장지대(DMZ)에 접한 을지전망대와 제 4땅굴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분단된 아픔을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아직 찾아오지 않은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용늪, 백담사 등을 방문하여 참가자 간 문화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기간: 2015.7.21-8.3 장소: 강원도 인제군 참가자: 국내외 참가자 16명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사단법인으로 DMZ(DeMilitarized Zone)일원의 생태·문화·역사적 평화·생명·통일 교육운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DMZ평화생명교육은 매년 160~180개 기관 6천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인,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63년 자연의 위대한 복원"이 공존하는 DMZ 일원을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나가고, DMZ의 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DMZ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운동, 인제군 DMZ 일원의 생태에 대한 조사 · 연구사업, DMZ홍보사업, 평화생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인제 DMZ 국제워크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rk>인제워크캠프 참가자</mark>













농업 활동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 및 팀워크 증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소개, 외국인 참가자들을 통한 지역 청소년들 질의응답 시간(주니어 캠프)



다문화 부스 운영을 통한 각 나라의 문화 체험 및 문화교류, 페이스페인팅을 통한 공감대 형성









WORKCAMP INFOSHEET for KNCU-03, INJE

Arrival Date	21 July	
Meeting Point	1th floor, Korea UNESCO House, Seoul	
Meeting Time	1PM	
• •		
D eparture Date	3 Aug	
•		
No. of Volunteers	17 (10 International, 7 Korean)	
Working Language	e English	
Contact		
+82 2 6958 4176 from overseas OR 02 6958 4176 in Korea		

ABOUT WORK

Korea DMZ Peace-Life Valley (KDPV) is the KNCU-03 workcamp site which was established in 2008 as a training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professionals regarding the value of DMZ (the Demilitarized Zone). Situated in the northeastern mountain ranges in DMZ, it is the nearest place to reach inner Diamond Mountains in North Korea. KDVA is located in a remote rural area surrounded by forests and scattered small villages. It takes 30 minutes to reach nearby downtown. It also takes 15 minutes on foot to get to the nearest convenient store. Since this area is near to DMZ which functions as a border line between two Koreas, volunteers are able to see many armed soldiers, military trucks and military camps.

LOCAL ORGANIZER

Korea DMZ Peace-Life Valley (KDVA) is a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in 2008 by many prominent peace and ecology activists with the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 goals of KDVA are to create a 'desirable development model' that conserves the ecology, history and culture of the DMZ region while empowering the quality of life of its habitants.

KDVA provide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for residents in DMZ area, military officers, members of civic group, corporate officials and employees, teachers, and students of primary,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ies. The programme range from field-visits, manual works and emersion experiences to thematic introductory courses, leadership training and global peace education.

KDVA coordinates and supervises the camp at the campsite. They also recruit children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class in cooperation with local schools and the Korean volunteers. For more information www.dmzecopeace.com/eng (English website)







WORK *Work is subject to change

1 AGRICULTURAL FARMING AND COMMUNITY WORK

Volunteers will do organic farming in a farm of KVDA. The products of the farm will be used for the participants of the training programmes of KVDA.

Volunteers will also do some manual work for local residents such as repairing old houses of underprivileged residents and cleaning up the village streets. Sometimes, it will be physically demanding but your efforts are great assistance to the residents. By helping out in the local community, volunteers can have hands-on experiences and truly grasp what it is like to live and work in Korea's countryside.



2 JUNIOR CULTURE CLASS

As the number of immigrants rapidly increases, it is vital to learn about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n Korea. During the workcamp, you will assume the role of a teacher and introduce your culture and country to the local children and youth. It is not common that students, particularly in our workcamp sites, meet many foreigners during class. Your lessons are a good opportunity for children to learn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You will also organize lesson plans and practice it together with the other campers before the class. You can use any items such as images, songs, games, dance routines, or even magic shows.

3 EXCURSION AND STUDY ABOUT DMZ

Volunteers will have a chance to listen lectures on the history and ecological values of DMZ from an expert of KVDA. You will also visit nearby DMZ areas such as Eulji observatory and 'Dragon Swamp'.



4 FREE TIME ACTIVITIES

During the two weeks, you will also be able to discover and experience the local culture. The host provides volunteers excursions to famous places near the workcamp site on Saturdays. Sundays are free days that participants use to make tour plans by themselves and travel the island. Sunday activities will be at your own expenses.





ACCOMMODATION & FOOD

ACCOMMODATION



Volunteers will stay at the accommodation of KVDA, located in the KVDA. Bedding will be provided and volunteers will sleep on the Korean style floor. Volunteers will share one big room, one room for female participants and another for male volunteers. Meeting rooms, bathrooms and toilets are available in the accommodation.

FOOD

Participants have to cook by themselves. KVDA provides meals in a cafeteria. Volunteers have opportunities to cook and showcase their own culture's food. Please note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specific halal food or vegetarian dishes during the workcamp. However, Korean meals always include a variety of side dishes, some of which may be vegetarian. Participants may choose what they want to eat from among the various available dishes. On the first day, volunteers will gather to make a schedule as to who will cook, clean, etc.

If you have specific dietary needs or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workcamp@unesco.or.kr.

WHAT TO BRING

FOR LIVING

◆Toiletries (toothbrush, toothpaste, soap, shampoo, etc)

Towel

Personal medicine

Comfortable footwear or sturdy, closed shoes (to prevent from sliding on rainy day)

•Outworn clothing (for painting activity, clothes may get dirty)

Sun-screen, hat, & umbrella or waterproof clothing

Mosquito repellent

◆Lock (You can lock your locker.)

Please do not bring high-priced objects in case they get lost. KNCU and the local host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any stolen or lost belongings.

FOR ACTIVITIES

Presentation and items about your country and culture.

: We will have junior camps for local children and youth. Please prepare presentation regarding your country's history, culture, language, and etc.

: Please bring simple traditional games and small snacks for children who attend the junior camp. Any resources such as traditional costumes, pictures, postcards, maps, or musical instruments that represent your culture. Traditional songs and dancing are also welcome!

•Groceries and ingredients that are unique to your country.

: We will use these for our meals and the farewell party to share food culture with local residents.

Games

: We will be playing games during our free time.

Materials that show off your talents

: During the farewell party, we will have recreation time with local residents. Time to show your talent!

INSURANCE

All the participants should purchase their own insurance and submit the copy of the insurance policy before the camp starts.

Please note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ill provide a basic insurance for the accidents during the workcamp for participants ONLY who send their confirmation form together with the copy of her/his passport by no later than 30 JUNE.

Neither KNCU nor the host organizations will be liable for expenses incurred from accidents, injuries, medical treatments, hospitalization, loss or damage of personal properties, or for any form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eath, disability, or injury apart from the basic insurance.



ABOUT KNCU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as founded on 30 January 1954 following Korea's admission to UNESCO in 1950. The Act concerning UNESCO Activities in Korea enacted in 1963 provides the Commission with a firm legal basis for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its finances and program management. More than 60 years, KNCU has constantly evolved to better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UNESCO is the first United Nations agency to have defined and developed specific programmes so that youth can engage in their societies as responsible social actors and partners. The principal objective of UNESCO's strategy of action with and for youth is to champion the empowerment of young people to ensure and enhance their full participation as equal and valuable partners in society.

Accordingly, the youth-oriented activities of KNCU focus on giving youth of today and tomorrow the best possible chance to express themselves and participate fully in social life.

For more information: www.unesco.or.kr/en





ABOUT DMZ

HISTORY

On August 15, 1945, Korea was liberated as Japan surrendered to the allied forces. It was a national liberation owing to new foreign forces - the US forces occupying the south and the USSR forces occupying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us dividing the country in two.

The division became solid as two separate governments were set up in 1948 and a three-year war broke out in 1950. When the war was halted on July 27, 1953, with a cease-fire agreement, DMZ was created as a buffer zone. DMZ since then remains both as a memory of the nation's tragedy and agony and the actual space of live confrontation and division.

The paradox is, it is also in the region of DMZ and its surroundings that nature and web of life have worked to create an impressive 'great restoration' that is beyond human capacity.

ECOLOGICAL SITUATION AND VALUES OF DMZ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 are in the shape of a long belt from the eastern to western coast, and have an ecology of mountains in the east and plains in the west, reflecting the main geographic feature of Korea. In the eastern part, there are many mountains higher than 1,000m (3,300ft), dense forests that host middle and large sized animals and a rich diversity of plants.

The middle and western parts are mostly plains and lowlands with well evolved wetland s that host several endangered species such as Red-crowned Crane, Black-faced Spoonhill, and Swan Goose. As one of the three major ecological axes of the peninsula, the DMZ region is the richest ecological and bio-diverse sphere where 84 of 221 endangered plant and animal species inhabit.

(Sources; <Opening the gate to peace with the key of life,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DMZ (Demilitarized Zone) is the land strip of 4-km width in average, 2 km apart northbound and southbound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division line) and runs 248km from the western to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4-km width is not well kept as both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ies moved their posts closer to the division line in many areas since 1968.

CIVILIAN CONTROL ZONE

Civilian Control Zone is the zone between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the southern limit line that falls within 10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here civilian activities are controlled. This area is as ecologically important as DMZ.

RIVER MOUTH ZONE OF HAN RIVER

River Mouth Zone of Han River is a special, neutral zone for common access by both Koreas, stretching from the mouth of IMJIN river to the last islet of Gang-hwa Island. By the Cease-fire Agreement, this area is open for use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 civilian ships.

4) 통영워크캠프 [KNCU-05]



2015 통영국제워크캠프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과 협력하여 경상남도 통영, 통영 RCE 세자트라 숲 · 센터에서 9개국 16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모여 실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은 세계에서 8번째, 국내에서 최초로 지정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거점센터(RCE)입니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을 누비며 마을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로 다니지 못하던 길을 산에서 재료를 모으고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삽질과 곡괭이 질을 하여 '공존의 길'을 완성하였습니다. 공존의 길은 내년부터 지역의 유아와 아동들의 학교 텃밭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통영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교류 및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영의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워크캠프 참가자의 국가별 소개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비정상회담'을 열어 각 국가의 해양오염 실태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학생들과 모색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가자와 통영지역 학생들은 해양오염의 실태를 인지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해양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관심을 다짐하였습니다.



기간: 2015.7.21-8.3 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참가자: 국내외 참가자 16명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는 UN총회 산하 고등교육기관인 UN대학이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 지역 거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집중육성을 목표로 하며, 2015년 현재 아시아태평양에 15개국 49개 도시, 전 세계에 135개 도시가 RCE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워크캠프가 열린 통영RCE 세자트라 숲은 통합과 실천의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철학 체득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ESD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ESD 거점센터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활동 및 숙박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통영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참여 대상별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RCE 등의 ESD 확산을 위한 공동 플랫폼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고어(古語)인 '세자트라(Sejahtera)'를 공식명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영워크캠프 참가자 명단

프랑스 COLINET, Celeste

ZANON, Patricia Isabel COMPANY MEDINA, Helena















마을 청소























청소년 교육





각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해양 정화 활동

WORKCAMP INFOSHEET for KNCU-05, TONGYEONG

eoul		
eoul		
rean)		
Contact +82 2 6958 4176 from overseas OR 02 6958 4176 in Korea		
ABOUT WORK



KNCU-05 workcamp site is the Eco Park & Seiahtera Center of Tongyong Regional Center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Center is located at the outskirt of Tongyeong city's downtown. The Center consists of main building for library on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meeting rooms, surrounding forest, playground, garden



and adults with training programm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t also functions as a research and clearing center on ESD in the Asia-Pacific region.

LOCAL ORGANIZER

Tongyeong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ereinafter Tongyeong RCE) was established in 2005 as one of Regional Centres of Expertise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the approval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Since then, Tongyeong RCE has been evolved to one of active and expert organizations in this field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ngyeong RCE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Tongyeong local government as well as by relating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t opened the Eco Park & Sejahtera Center for RCEs in Asia and the Pacific May 2015. Tongyeong RCEer is a specialized organization comprising research and action programmes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







ABOUT WORK



*Work is subject to change

1 MAINTENANCE OF GARDEN

Volunteers will make wooden stairs connecting the center to its surrounding forest for visitors to take a walk inside the forest. You will also do manual work for maintaining the garden of the Center such as cleaning up the marine garbage in front of the Center. Sometimes, it will be physically demanding but your efforts are great assistance to the Center.



2 JUNIOR CLASS ON CULTURE AND SEA

As the number of immigrants rapidly increases, it is vital to learn about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n Korea. During the workcamp, you will assume the role of a teacher and introduce your culture and country to the local children and youth. It is not common that students, particularly in our workcamp sites, meet many foreigners during class. Your lessons are a good opportunity for children to learn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e theme for this class is 'Sea'. Volunteers will share ideas and images regarding 'Sea' in different countries. Please be prepared to introduce your country and the sea in your country. For example, you can show various pictures or video clips about the sea to the local children. You can use any items such as traditional costumes or games, images, songs, dance routines, or even magic shows.

Volunteers will also share ideas regarding the ocean pollution and its solutions with local youth. Solid data for this policy will be more than welcomed.



ACCOMMODATION & FOOD



Volunteers will stay at the accommodation of Tongyeong RCE, located in the Tongyeong RCE Eco Park & Sejahtera Center for RCEs in Asia -Pacific, which is the campsite. Beddings will be provided and volunteers will sleep on the two story beds. Volunteers will share one big room, one room for female participants and another for male volunteers. Meeting rooms, bathrooms and toilets are available in the accommodation.



Participants have to cook by themselves. Please bring special ingredients to showcase your own culture's food. Please note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specific halal food or vegetarian dishes during the workcamp. However, Korean meals always include a variety of side dishes, some of which may be vegetarian. Participants may choose what they want to eat from among the various available dishes. On the first day, volunteers will gather to make a schedule as to who will cook, clean, etc.

If you have specific dietary needs or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workcamp@unesco.or.kr.



WHAT TO BRING

FOR LIVING

◆Toiletries (toothbrush, toothpaste, soap, shampoo, etc)

Towel

Personal medicine

Comfortable footwear or sturdy, closed shoes (to prevent from sliding on rainy day)

Sun-screen, hat, & umbrella or waterproof clothing

Mosquito repellent

Please do not bring high-priced objects in case they get lost. KNCU and the local host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any stolen or lost belongings.

FOR ACTIVITIES

Presentation and items about your country and sea.

: We will have junior class for local children and youth. Please prepare presentation regarding your country's history, culture, language, and sea.

: Please bring simple traditional games and small snacks for children who attend the junior camp. Any resources such as traditional costumes, pictures, postcards, maps, or musical instruments that represent your culture. Traditional songs and dancing are also welcome!

Groceries and ingredients that are unique to your country.

: We will use these for our meals and the farewell party to share food with local residents.

Materials that show off your talents

: During the farewell party, we will have recreation time with local residents. Time to show your talent!

All the participants should purchase their own insurance and submit the copy of the insurance policy before the camp starts. Please note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ill provide a basic insurance for the accidents during the workcamp for participants **ONLY who send their confirmation form together with the copy of her/his passport by** no later than 7 JULY due to administrative process.

Neither KNCU nor the host organizations will be liable for expenses incurred from accidents, injuries, medical treatments, hospitalization, loss or damage of personal properties, or for any form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eath, disability, or injury apart from the basic insurance.



ABOUT KNCU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as founded on 30 January 1954 following Korea's admission to UNESCO in 1950. The Act concerning UNESCO Activities in Korea enacted in 1963 provides the Commission with a firm legal basis for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its finances and program management. More than 60 years, KNCU has constantly evolved to better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UNESCO is the first United Nations agency to have defined and developed specific programmes so that youth can engage in their societies as responsible social actors and partners. The principal objective of UNESCO's strategy of action with and for youth is to champion the empowerment of young people to ensure and enhance their full participation as equal and valuable partners in society.

Accordingly, the youth-oriented activities of KNCU focus on giving youth of today and tomorrow the best possible chance to express themselves and participate fully in social life.

For more information: www.unesco.or.kr/en





ABOUT TONGYEONG & RCE

TONGYEONG

Poised in the heart of Hallyeohaesang National Marine Park, Tongyeong City has long been known for its natural beauties combined with various historical events. Tongyeong City also has the vast agricultural district, southern port cities and fishing villages of islands. The jagged coastline and gentle tides bless this city with bountiful harvests of fish and other marine products. The calm and beautiful islet-dotted waterway from Hansan Island to Yeosu is called^rHallyeosudo_J.

Tongyeong city is the site of Han-san Dai-cheop, one of the world's 4 biggest naval battles, and the former base of Tong-je-yeong, commanding the naval forces of three Provinces such as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As its name signifies, Tong-yeong is a historical city filled with the patriotism of Admiral Rhee, Soon-shin.

Also, Tong-yeong is an artistic home for Yoon, Yee-sang, a composer; Yu, Chee-hwan, a poet; Park, Gyeong-rhee, a novelist; Kim, Choon-su, a poet; and Jeon, Hyeok-rim, a painter. Besides, the city is renowned for quality natural oysters and, more recently, for pearls produced in the clean waters as well as for a marine resort town for tourists as part of the Hallyeo Sea National Park.

Despite its fisheries-based economic growth, Tong-yeong is faced with diminishing resources and population drain, which calls for a new breakthrough for develop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a global agendum in the 21st century, combined with the rich clean sea zone and the cultural and artistic tradition passed onfrom the second studio of Tong-je-yeong, Tong-yeong is to leap further as the gem of the South Coast.



REGIONAL CENTER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originated from self-reflection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new diseases, gap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resource depletion and reckless industrialization have turned out to be what we have never expected. Any negligence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would cause slathers of social cost, so those three aspects need considering in balance for a sustainable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global village involv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tergenerational 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To form a global consensu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developmental paradigm in the 21st century where environment, society and economy come to a harmony through formal, informal and non- formal types of education, the 57th UN General Assembly in 2002 designated 2005~2014 as 'a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DESD)' for each nation to observe.

An RCE is a network of exist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organizations, mobilized to deliv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o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A network of RCEs worldwide will constitute the Global Learning Spa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CEs aspir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 by translating its global objectives into a context of the local communities in which they operate. There are 127 acknowledged RCEs as of January 2014.



Tongyeong Education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한일DMZ워크캠프 [KNCU-06]



2015년 광복 70주년과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처음 개최된 한일 DMZ 워크캠프는 이름 그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참가자들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국 4명씩 총 8명의 참가자들이 열흘간,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미화, 지역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일 양국간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친환경 농업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간에 제 4땅굴, 을지전망대 등을 방문해서 남북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일 워크캠프인 만큼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양국간에 상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간: 2015.8.14-8.24 장소: 강원도 인제군 참가자: 한·일 참가자 8명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사단법인으로 DMZ(DeMilitarized Zone)일원의 생태·문화·역사적 평화·생명·통일 교육운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DMZ평화생명교육은 매년 160~180개 기관 6천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인,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63년 자연의 위대한 복원"이 공존하는 DMZ 일원을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나가고, DMZ의 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DMZ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운동, 인제군 DMZ 일원의 생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DMZ홍보사업, 평화생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인제 DMZ 국제워크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일DMZ워크캠프 참가자



일본 🧲

KOBAYASHI, Yoshiaki KAGAYA, Natsumi ITANI, Chinatsu YANAGISAWA, Saki

0































계곡, 산촌박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건봉사, 설악산 등 탐사







WORKCAMP INFOSHEET for KNCU-06, KOREA-JAPAN WORKCAMP

Arrival Date	14 Aug
Meeting Point	11th floor, Korea UNESCO House, Seoul
Meeting Time	2PM
Departure Date	24 Aug
No. of Volunteers	8 (4 Japanese, 4 Korean)
Working Language	e English
Contact	
+82 2 6958 4176 from overseas OR 02 6958 4176 in Korea	

ABOUT WORK



Korea DMZ Peace-Life Valley (KDPV) is the site for the KNCU-06 workcamp. It was established in 2008 as a training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professionals regarding the value of the DMZ (the Demilitarized Zone).

This workcamp site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mountain ranges of the DMZ, which makes this training center the nearest place in South Korea to the inner region of North Korea's famous Diamond Mountains. KDPV is located in a remote rural area surrounded by forests and scattered small villages. It takes 30 minutes to reach the nearest urban area. It also takes 15 minutes on foot to get to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Since this area is near the DMZ which functions as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volunteers will see many armed soldiers, military trucks and military bases.



Korea DMZ Peace-Life Valley (KDPV) is a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established in 2008 by many prominent peace and ecology activists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goals of KDPV are to create a 'desirable development model' that conserves the ecology, history and culture of the DMZ region while empowering the quality of life of its inhabitants.

KDPV provide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for residents in the DMZ area, military officers, corporate officials and employees, teacher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Its programmes range from field-visits, manual work, and immersion experiences to thematic introductory courses, leadership training, and global peace education.

KDPV will coordinate and supervise the camp at the campsite.

For more information www.dmzecopeace.com/eng (English website)







1 AGRICULTURAL FARMING AND COMMUNITY WORK

Volunteers will do organic farming in a farm of KVDA.

Volunteers will also do some manual work for local residents such as repairing old houses of underprivileged residents and cleaning up the village streets. Sometimes, it will be physically demanding but your efforts are great assistance to the residents. By helping out in the local community, volunteers can have hands-on experiences and truly grasp what it is like to live and work in Korea's countryside.



2 FIELD VISIT AND DMZ STUDY

Volunteers will have a chance to listen to lectures on the historical and ecological value of the DMZ from one of KDPV's experts. You will also visit nearby areas of the DMZ such as the Eulji Observatory and 'Dragon Swamp'.

Volunteers will also have a discussion session on the role of youth to promote peace in East Asia, in particular between Japan and Korea. You are required to prepare a 10-minute presentation on your thoughts and experiences relating to the theme.

ACCOMMODATION & FOOD

ACCOMMODATION



Volunteers will stay at the accommodation of KVDA, located in the KVDA. Bedding will be provided and volunteers will sleep on the Korean style floor. Volunteers will share one big room, one room for female participants and another for male volunteers. Meeting rooms, bathrooms and toilets are available in the accommodation.

FOOD

Participants have to cook by themselves. KVDA provides meals in a cafeteria. Volunteers have opportunities to cook and showcase their own culture's food. Please note that we are unable to provide specific halal food or vegetarian dishes during the workcamp. However, Korean meals always include a variety of side dishes, some of



which may be vegetarian. Participants may choose what they want to eat from among the various available dishes.

If you have specific dietary needs or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workcamp@unesco.or.kr.



WHAT TO BRING



◆Toiletries (toothbrush, toothpaste, soap, shampoo, etc)

Towel

Personal medicine

Comfortable footwear or sturdy, closed shoes (to prevent from sliding on rainy day)

 Old clothing (for painting activities as clothes may get dirty)

Sun-screen, hat, & umbrella or waterproof clothing

Mosquito repellent

Please do not bring high-priced objects in case they get lost. KNCU and the local host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any stolen or lost belongings.

FOR ACTIVITIES

◆A 10-minute presentation on the role of youth to promote peace in East Asia, in particular between Japan and Korea.

: Volunteers will have a discussion session on the aforementioned theme. Please prepare presentation for approximately 10 minutes regarding your opinion and experiences which you want to share with the other volunteers.

•Groceries and ingredients that are unique to your country.

: We will use these for our free time and the farewell party to share the diverse food culture.

Games

: Please bring simple traditional games and small snacks for free time activities.

Materials that show off your talents

: During the farewell party, we will have recreation time. Time to show your talent!

INSURANCE

All the participants should purchase their own insurance and submit the copy of the insurance policy before the camp starts.

Please note th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ill provide a basic insurance for the accidents during the workcamp for participants ONLY who send their confirmation form together with the copy of her/his passport by no later than 30 JUNE.

Neither KNCU nor the host organizations will be liable for expenses incurred from accidents, injuries, medical treatments, hospitalization, loss or damage of personal properties, or for any forms of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eath, disability, or injury apart from the basic insurance.

ABOUT KNCU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as founded on 30 January 1954 following Korea's admission to UNESCO in 1950. The Act concerning UNESCO Activities in Korea enacted in 1963 provides the Commission with a firm legal basis for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its finances and program management. More than 60 years, KNCU has constantly evolved to better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UNESCO is the first United Nations agency to have defined and developed specific programmes so that youth can engage in their societies as responsible social actors and partners. The principal objective of UNESCO's strategy of action with and for youth is to champion the empowerment of young people to ensure and enhance their full participation as equal and valuable partners in society.

Accordingly, the youth-oriented activities of KNCU focus on giving youth of today and tomorrow the best possible chance to express themselves and participate fully in social life.

For more information: www.unesco.or.kr/en





ABOUT DMZ

HISTORY

On August 15, 1945, Korea was liberated as Japan surrendered to the allied forces. It was a national liberation owing to new foreign forces - the US forces occupying the south and the USSR forces occupying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us dividing the country in two.

The division became solid as two separate governments were set up in 1948 and a three-year war broke out in 1950. When the war was halted on July 27, 1953, with a cease-fire agreement, DMZ was created as a buffer zone. DMZ since then remains both as a memory of the nation's tragedy and agony and the actual space of live confrontation and division.

The paradox is, it is also in the region of DMZ and its surroundings that nature and web of life have worked to create an impressive 'great restoration' that is beyond human capacity.

ECOLOGICAL SITUATION AND VALUES OF DMZ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 are in the shape of a long belt from the eastern to western coast, and have an ecology of mountains in the east and plains in the west, reflecting the main geographic feature of Korea. In the eastern part, there are many mountains higher than 1,000m (3,300ft), dense forests that host middle and large sized animals and a rich diversity of plants.

The middle and western parts are mostly plains and lowlands with well evolved wetland s that host several endangered species such as Red-crowned Crane, Black-faced Spoonhill, and Swan Goose. As one of the three major ecological axes of the peninsula, the DMZ region is the richest ecological and bio-diverse sphere where 84 of 221 endangered plant and animal species inhabit.

(Sources; <Opening the gate to peace with the key of life,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DMZ (DeMilitarized Zone)

DMZ (Demilitarized Zone) is the land strip of 4-km width in average, 2 km apart northbound and southbound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division line) and runs 248km from the western to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4-km width is not well kept as both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ies moved their posts closer to the division line in many areas since 1968.

CIVILIAN CONTROL ZONE

Civilian Control Zone is the zone between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the southern limit line that falls within 10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here civilian activities are controlled. This area is as ecologically important as DMZ.

RIVER MOUTH ZONE OF HAN RIVER

River Mouth Zone of Han River is a special, neutral zone for common access by both Koreas, stretching from the mouth of IMJIN river to the last islet of Gang-hwa Island. By the Cease-fire Agreement, this area is open for use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 civilian ships.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소개

국제자원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s)의 대표적 형태인 국제워크캠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와 독일의 젊은이들이 함께 전후 복구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설립된 유네스코에서는 1948 년에 유네스코 본부 내에 CCIVS (국제자원활동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제자원활동의 전형적인 형태인 워크캠프를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3000여개의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9년부터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워크캠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식 함양

세계시민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세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전 세계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은 다양한 사회 • 경제 •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세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

국제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역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워크캠프에서는 약 10~15명의 청년들이 2~3주간 함께 생활하며 자원활동을 진행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보편적 가치, 세계 공동체 의식,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015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현장

그리스



99







<u>101</u>































2015.07.16~07.26 LAHEMAA 국립 공원, MATSALU 국립 공원 보호 : 강가에 나뭇가지 & 비버 댐 치우기, brushwood 베기, 모으기


























폴란드



















U N E S C O I N T E R N A T I O N A L W O R K C A M P

유네스코 국제위리캠프

참가자 에세이





고준수

저는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설레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 마음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정리해나갔습니다. 저는 안전과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구급약 준비, 마을 보건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협력 부탁하기,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빨랫줄, 건조대, 모기 퇴치제, 세제, 비누 등)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맡은 책임과는 상관없이 벽화 작업에 대한 준비와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준비는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캠프가 시작하기 전에 모임을 두 차례 정도 가졌고, 마을 방문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걱정을 설렘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프가 시작하고 나서는 방과 후 활동, 마을 팻말 만들기, 풀베기 작업, 벽화 그리기, 음식 당번의 일을 동시에 진행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풀베기, 팻말 만들기, 벽화 그리기 팀을 나누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며 마을 아이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군대에도 다녀왔고 위원장님과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도 즐거웠기 때문에 주로 몸이 힘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예초작업과 팻말 만들기 작업이었는데 예초작업은 마을 근처 연못이나 숙소 뒤편의 풀을 깎고 작은 나무를 베어 경관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팻말 작업은 마을의 이정표를 만들어 길의 방향을 확실히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상 때문에 일의 진도가 더디게 나가고 더 힘이 들었던 점이 많았지만, 그마저도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라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들과 더욱 아이들을 소통시키며 아이들의 기억에 소중한 추억이 남도록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외국, 한국 할 것 없이 모든 캠퍼가 하나가 되어 우정을 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지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 즐겁게 소통하여서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합리성에 얽매여서, 일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저의 고정관념은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캠프를 보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꿈같은 시간이었지만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멤버의 캠프 이탈을 꼽고 싶습니다. 리더로 캠프를 시작했던 캠퍼가 구성원들 간의 불화가 생겨서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캠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멤버 때문에 전체 캠프의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멤버가 이 캠프를 나가는 것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한조직에 있어서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는 이번 캠프를 마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수 있었고, 행복하고 뿌듯했던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연스레 성숙할 수 있었고, 이런 공동체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얻어 나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캠프가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기 교환학생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우리 학교에 단기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을 도와주는 버디로서의 삶을 2주간 살았습니다. 외국인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친구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얻어 다시 한 번 비슷한 프로그램을 잘 마친 것입니다. 이는 유네스코 국제 워크 캠프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국제적인 시야를 얻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약하지만 더욱 약진해나가는 저의 국제적인 인재로 사는 삶이 저 자신조차 기대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해외 프로그램을 자주 접하여 더욱 국제적인 시야를 키우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취업을 할 때는 국제기구나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키워준 국제 유네스코 캠프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동규

워크캠프는 첫날부터 힘들었다. 화요일 아침에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 집결했다. 거기에서 바로 어멍아방잔치마을로 넘어가는 팀과 기자재들을 사서 가는 팀들로 나뉘었다. 바로 가는 팀은 일주도로로 돌아서 가고 기자재들을 사서 가는 팀은 번영로로 갔다. 어멍아방잔치마을로 도착한 팀들은 다시 식자재들을 사는 팀과 마을에 있는 기자재들을 모으고 감을 따서 감물을 들이는 팀으로 나뉘었다. 나는 기자재들을 나르고 감물을 들였다. 힘들고 지쳤지만, 감물을 들이고 말리는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재미있었고 뿌듯했다. 첫날밤이 되자 외국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을 인솔하고 온 한국 친구들이 속속 도착했다.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샤워를 같이하는 것을 꺼렸었다. 하지만 시간이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각자 소개하면서 이름, 국적,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다. 처음에는 긴장도 됐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레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의 방과 후 활동 첫째 날 일정은 외국인 친구들이 서로의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었다. 내가 담당한 국가는 스페인이었는데 파워포인트 준비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만들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의 휴대폰과 한국 컴퓨터와 호환이 되지 않아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연결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걸렸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하였다. 애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큰소리로 앞을 봐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행히 애들은 내 말을 귀담아들었다. 너무 힘든 하루였지만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처럼 말을 했던 체험이 값졌고 재미있었다. 아이들과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진짜 형의 마음처럼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셋째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나에게 맡겨진 첫 번째 일은 팻말 만들기였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였고 정말 나도 열심히 하였다. 나는 개처럼 기어 다니면서 대패질을 열심히 하였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금방 2주가 지나갔다. 2주 동안 힘들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해낸 내가 자랑스러웠고 기분이 좋았다. 워크캠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다. 무엇보다 인터뷰했던 것이 가장 값지고 좋은 추억이었다. 워크캠프를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속에서 피어난 다른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우정의 중요함도 알았다.









김지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워크캠프 2주라는 시간은 믿기지 않을 만큼 빨리 지나갔다. 워크숍 때 처음 한국 캠프 리더들과 모이고 좋은 사람들과 캠프를 함께할 생각에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했다. 그리고 캠프 사전 준비 기간에는 생각보다 해야 할 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 걱정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고민해주는 캠퍼들이 있었기 때문에 캠프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사전 준비 기간 동안 우리 캠프는 캠프 장소가 제주도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한국인 캠프 리더가 다 모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제주도에서 모임을 하고 직접 성산 신풍리를 답사했다. 우리가 해야 할 지역 공헌활동에는 크게 방과 후 프로그램과 벽화 그리기 활동 그리고 풀베기 및 팻말 만들기가 있었다. 나는 기획부 담당이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 사전 계획과 구상에 힘써야 했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벽화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벽화의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모든 활동의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획은 제한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실현 가능한가 등등…. 그렇게 길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캠퍼들과 함께 SNS를 통해 그룹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 답사 및 회의를 하기도 하면서 머리를 짜내야 했고, 최종 결정과 정리를 해야 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만 하고 대외활동의 경험이 많지 않은 나로서는 이렇게 직접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적극적으로 캠프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2주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성산 신풍리에 있는 성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생활했다. 걱정했던 것보다 숙소는 좋은 곳이었고 물품 부분을 담당했던 친구가 사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배치해주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사실 무엇보다 그런 편안한 생활은 불편함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려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어멍아방 잔치마을 위원장님이 안 계셨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식사와 청소는 캠프 내에서 팀을 짜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했다. 처음에는 20인분의 요리를 난생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리도 서툴러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양 조절 또한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요리 실력도, 효율성도 높아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매우 힘들기는 했지만, 요리를 하고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다 같이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참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기획부를 맡은 동주와 나는 캠프가 시작하면서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벽화나 예초 및 팻말 부분은 다른 캠퍼들이 담당을 해주었고, 대부분이 사전에 정해진 활동이라서 그날그날 열심히 일하면 됐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은 사전 계획에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계속 일정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다음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했다. 피곤했지만 그 시간 동안 캠퍼들과 웃으며 장난도 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까? 머리를 맞댄 시간, 이 역시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나는 전공이 윤리교육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와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캠프 내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더 애착이 가고 욕심이 생겼다. 그 노력을 아이들이 알아준 것일까?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즐겁게 잘 따라주었다. 물론 초반에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외국인 캠퍼와의 소통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듯 외국인 캠퍼들은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뛰어놀며 아이들에게 애정을 보여주었고, 아이들도 차차 외국인 캠퍼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

초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인 캠퍼 위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다. 그런데 외국인 캠퍼들도 점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중 하루는 프로그램 중 다음날 체육대회가 있어 이를 위한 전체 회의가 끝나고 기획부끼리 다시 모여서 또 정리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외국인 캠퍼 두 명이 오더니 왜 아직 안 자느냐고 그렇게 심각히 고민할 것 없이 아이들과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며 이들은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복잡했던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었었다.

그리고 본인들 나라의 체육 활동과 체육교육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는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부분은 그들이 체육 활동에서 승패와 순위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주며 체육대회에서는 꼭 승패 또는 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준 부분이었다. 우리끼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아이들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고민한 이 과정들은 차후에 내가 교육 관련 도움이 되도록 아이들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고민한 이 과정들은 차후에 내가 교육 관련 분야로 나가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처럼 교육과 관련해서 배움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많이 참여해보고 싶다.

캠프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캠프 초반, 리더와 다른 캠퍼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라 외국인 캠퍼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보내지 못한 점이다. 아쉽지만 리더는 그렇게 캠프를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캠프 분위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더 노력했다. 워크캠프 활동에서 봉사를 위한 일의 목적달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캠퍼들 간에 사이가 좋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워크캠프라고 생각한다. 초반은 비록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캠퍼들 모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즐겁게 지내도록 노력했고 이 덕분에 마지막 주는 감히 완벽한 캠프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캠프를 통해 나는 나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고, 스스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캠프라는 공간 안에서 낯선 사람들과 가족처럼 24시간을 함께 지내게 되는 체험을 통해 내면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캠프 동안 나는 낯선 이들 앞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만나온 친한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는 것에 조금은 놀라웠다. 스스로 자신의 더 적극적이고 활달한 모습을 발견했고, 기존에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쑥스러움을 타느라 나 자신을 많이 숨기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이 모습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며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려 한다.





나규문

7월 14일, 무더운 여름이 시작할 때쯤 제주도 '어멍아방 잔치마을'에 18명의 국제워크 참가자들이 모두 도착하였다. 한국인 참가자들이 캠프 시작 전 3주 동안 캠프 프로그램도 만들고, 식단도 짜보고, 준비물도 준비하고, 캠프 장소도 여러 번 탐방 가보는 등 모두가 오랫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해왔던 만큼 캠프의 시작이 그냥 좋았던 것 같다.

첫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캠프가 시작되었다. 자기소개와 앞으로 2주간의 일정들,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몇 가지 게임으로 어색함을 풀 수 있었다. 우리들의 오후 일정이었던 방과 후 교실은 첫날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외국인 캠퍼들이 짝을 지어 나라 소개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친구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해보는 등 발표를 준비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전 일과는 풀베기, 팻말 작업, 벽화 작업 총 세 팀으로 나누어 일하였다. 처음에는 예초작업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생소하고 너무 힘든 작업이 될까 건장한 남자들로만 팀을 구성했었지만, 우리의 걱정이 민망할 정도로 모두가 강한 친구들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팀의 맴버를 고정하지 않고 아침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작업했다. 벽화 작업의 경우에는 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캠프 시작 전 여러 번 벽화 그릴 곳을 탐방도 해보고 자료조사도 해보고 미리 도안도 그려보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막상 시작해야 할 벽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더 컸었다. 사실 내가 벽화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모두가 벽화작업이 처음이어서 준비하고 흰색 페인트로 바탕을 칠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예상만큼 벽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점심시간을 늦추기도 하였다. 무더운 날 짜증이 날 법도 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작업이 마친 친구들까지 벽화작업을 도와주러 와서 정말 고마웠고 감동적이었다. 벽화작업은 캠프가 마치기 전까지도 계속되었던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만큼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같이 들썩이며 일했던 만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벽화가 너무 예쁘게 마무리되어서 잊을 수 없기도 할 것이다.

방과 후 교실은 매일 오후 2시 30분이 되면 신풍리에 사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멍아방 잔치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다. 처음 본 외국인 선생님들이 신기했던지 모든 아이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외국인 선생님 옆에 붙어 장난도 치고 인사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매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놀이와 잡기 놀이로 모두가 땀범벅이 된 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프로그램에 집중시키고 통솔하는데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 학년까지 연령대가 너무 다양했던 점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고민의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팀을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미션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영어로 소통하기가 힘들고 역시 외국인 참가자들도 아이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없어서 한국인 캠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썼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고 우리들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였다.

7개국의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 참가한 만큼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정말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나라 소개, 나라 게임, 우리 땅 밟기, 체육대회, 나라 음식 경연대회, 장기자랑 등 하루하루가 재미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새로움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에 머리를 맞대었던 지윤 언니와 동주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방과 후 교실이 마칠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아이들 간식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허니버터칩, 떡볶이도 만들고 마을 분들께서 고생한다며 나눠주신 수박으로 화채도 만들어 먹고, 제주도 빙떡도 만들어서 나눠 먹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걸 알았는지 기대 이상으로 아이들도 맛있다며 잘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뿌듯했다. 마을 잔치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는데, 2주 동안 매일 오랜 시간 함께 해서 그런지 아이들과 더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다. 외국인 친구들도 너무 좋았던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워크캠프를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워크캠프 기간 동안 했던 일들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인 캠퍼들은 캠프를 주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각자 맡은 담당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였다. 나의 경우에는 식사와 벽화 담당 그리고 나중에는 밴드 연습도 해야 하는 등 하루를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17명의 친구들과 매일 같이 열심히 일하고, 놀기도 하고, 내일을 준비했기에 뿌듯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캠프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준비도 있었지만, 외국인 참가자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다. 캠프의 사흘 간은 일에 적응하는 시간도 가지고 혹시나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겠냐는 걱정 때문에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는 일을 하러 여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였다. 정해진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쉬는 시간을 쪼개서 계속해서 일하였고 오후 방과 후 교실이 마치고 나서도 피곤하지만,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불평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일하였다. 외국인 친구들의 자세는 한국인 캠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캠프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동력이 되었다.

열심히 일했던 만큼 2주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갔다. 모두가 캠프 기간을 1주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캠프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아쉽고 싫었다. 캠프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뿌듯함과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캠프를 통해서 만난 17명의 새로운 친구들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친구들이 캠프에 참가했던 만큼 캠프 기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졌다고 말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캠프를 마친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2015 국제워크캠프는 매일 자기 전 캠프 사진을 보면서 혼자 웃으며 잠들 정도로 나에게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다.





문보미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러시아에서 온 Liza를 시작으로 케냐 특수부대 출신 Jackson 까지. 8개국 청년들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모였다. 2015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많은 활동을 하며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캠프 기간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이라 대답하겠다.

들이 정해진 활동이 아니어서 막막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었다. 우리가 2주 동안 마을을 위해 진행했던 작업은 크게 풀베기, 팻말 만들기, 벽화 그리기였다. 풀을 베어 마을의 길을 정비하고, 마을 시설 이름이 새긴 팻말을 만들어 설치하고, 마을의 낙후된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려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솔직히 말을 하자면, 힘들었던 적도 많았다. 작업 기간과 캠퍼들 수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작업량은 많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기며 요리를 해야 할 때도 있었고,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불안해 하며 벽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도 있었다. 세계 요리 경연 대회 때는, 캠퍼들이 원하는 재료를 사기 위해 하루에 슈퍼마켓만 다섯 번 이상 갔던 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꽤 많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캠프를 열심히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식을 만들면 맛있게 먹어주는 어린이들이 있었고, 고생한다며 커피를 건네주시던 마을 어르신들이 있었다.

다른 나라, 그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땅에 처음 와서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꼈을 텐데도 열린 마음으로 캠프 활동을 해준 외국인 캠퍼들에게도 참 고맙다. 마을 분들을 만났을 때,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보려 노력하였고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능동적인 캠퍼들이 있었기 때문에 캠프 진행이 수월했던 것 같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캠프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외국인 캠퍼들이 다소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인 캠퍼들이 그들에게 외국인 캠퍼들도 비단 손님이 아니라 '캠프를 같이 이끌어 가야 할 참가자'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다. 당연히 한국인 캠퍼들은 사전 준비 기간부터 캠프를 기획하였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캠프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인 캠퍼들이 외국인 캠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다. 그들도 할 수 있고 그들도 해야 한다. 그들도 '워크캠프'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워크캠프의 목적에 부합하기도 한다. 아무튼, 올해 제주 캠퍼들은 그 부분에 있어 잘해낸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캠프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 K-POP을 좋아하는 Juliette, 장난기 많고 친근한 Arthur, 여행이 취미인 Berkay, 어린이와 동물을 좋아하는 layda, 정 많은 Ting, 만능 재주꾼 Jackson,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Elizaveta, 매사를 열심히 하는 Miguel, 잘 웃고 긍정적인 Marina, 흥 많고 열정적인 Sara, 동네 어린이들과 캠퍼들의 안전을 담당했던 미래에 의사가 꿈인 준수 오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동규, 프로그램을 즐겁게 기획하고 진행하며 동네 어린이들을 잘 챙겨주었던 지윤 언니, 꼼꼼하고 열정 많은 다재다능한 규문이, 캠퍼들을 잘 챙기고 친근하지만 가볍지 않은 혁재 오빠, 애교 많고 마음이 예쁜 동주, 그리고 항상 잘 웃고 매사를 열심히 하였던 그림을 잘 그리는 창주 오빠까지. 이렇게 나를 포함한 우리 제주 캠퍼들은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좋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얻었고 많이 성장하였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 한 번 '2015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혁재

본인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라.'라는 뜻이다. 사실 모든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실천하기 어려운 가치관이 담긴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며, 본인의 삶이 보다 가치 있게 이룩되기 위한 지향점으로써 끊임없이 되새겨 지고 있다.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은 시간도 아닌, 본인의 소중한 경험에 근거한 작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바꿀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 그것이 좋은 경험일 수도, 나쁜 경험일 수도 있다. 또한, 아주 기나긴 경험일 수도, 순간적으로 짧게 와 닿는 경험일 수도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경험은 몇 차례의 '해외 자원활동 경험'이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이들과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감과 소통을 하며,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내 작은 한 손을 보탤 수 있기에 더욱 기뻤고, 내가 준 것보다, 오히려 거두고 나눈 것이 더욱 많았기에 보람찰 수 있다. 더불어 같이 땀 흘리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각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삶에 임하고 있는지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게 된 첫걸음이 아니었나 싶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의 기쁨'만큼 값지고 뿌듯한 것이 있을까. 앞선 경험들은 모두 본인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배운' 기쁨이었다. 거꾸로 내가 해외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초대해, 내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내가 먼저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앞서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에 조심스레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합격하고서도 본인의 두 눈을 의심해 몇 번이나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게 했던 서류합격, 다사다난했던 제주도 현지 면접 그리고, 합격통보의 환호를 지나 도착한 Workshop, 그곳에는 아마 본인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리라 추측되는 약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었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한국의 문화라는 룰을 따르고 한민족의 정서를 향유한 같은 민족이지만, 그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서도 본인은 각자 서로 다름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본인은 정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우리는 Workshop과 더불어 사전답사라는 짧지만 긴 시간을 활용하여,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제주 국제워크캠프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각자 다른 시각에 도착한 총 7개국, 10명의 참가자를 활동 지역 '신풍리 어멍아방 잔치마을'로 데려가며, 초면의 어색함을 딛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소중한 시간은 잊히지 않는다. 그 중 더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서로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이는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기에 더욱 잊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날 저녁, 19명의 참가자는 옹기종기 모여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2주간의 여정을 할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사실 캠프 시작 전,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문화 차이에 의해 생긴 갈등 상황'이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있었지만, 사실 문화는 자신의 정체성이 성립되게 된 밑바탕으로,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외국인 친구들이 자신들의 살아온 생활 방식 대신, 한국의 생활 방식에 맞춰 캠프에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해준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인상 깊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례로,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은 젓가락질을 할 줄 알았다. 포크가 있음에도 굳이 젓가락질하는 노력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은 배려라고 믿는다. 그 와중에 한 친구가 젓가락질을 전혀 할 줄 몰랐는데, 계속해서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 시도하는 모습은 정말 고맙지 아니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있어서 김치는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식사마다 김치를 곁들여 먹으려는 모습은 본인에게 있어서 소하지만 큰 감동이었다. 이 외에도 한국인, 외국인 캠퍼 구분 없이 작건 크건 발생한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문화 테두리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걱정은 괜한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캠프 간 발생한 아쉬운 점은 오히려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 자신, 아니 오만이 아니었나 싶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인 캠퍼 간에 발생한 갈등 및 의견 차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지 못하고, 한 명의 캠퍼를 보내야 했을 때의 순간은 끝끝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치 못했던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더 쉬운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던 한국인 캠퍼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섞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오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함께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더라도, 그 이상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이 유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 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캠퍼 간의 소통 방식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캠프 초반, 일할 때도 외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한국인 캠퍼가 솔선하려는 모습을 과하게 보여주었던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빨리 끝내려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외국 친구들에게 소외감과 도태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틀림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인 캠퍼들이 초반에 많이 피곤해하지 않았나 싶다. 같이 하자고 말을 붙이는 대신, 말없이 일을 시작하는 우리를 보며 무언의 시위를 하듯, 어느새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거들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제야 우리는 옆에서 같이 일을 하는 외국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같이 땀 흘리며 보람을 찾는 기쁨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음을 새삼 느꼈다. 외국 친구들은 캠프에 진지한 태도였고, 어느 누가 으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에 임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였으니, 노는 것도 정말 재밌었을 수밖에. 이미 외국 친구들은 캠프에 참가하기에 앞서, 미리 가고 싶은 여행지를 준비해 온 모양이었다. 주말 전 회의에서, 과업으로 인한 지친 기색도 없이 기대에 부풀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겹치는 경우 서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여행 동선을 마련하며 느꼈던 흥분에 겨웠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 유산 중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을 방문함으로써,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곳들이 새삼스레 더욱 멋지고 이국적으로 보였던 까닭은, 아마 외국 친구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월정리 / 중문 해수욕장, 계곡, 승마 체험, 등산 등 제주도에서 그들과 함께한 그 모든 것들은 본인에게 더욱 각별한 추억으로 새겨졌다. 특히, 해변에서 이렇게 멋진 파도와 더불어 물장구치고 논 것은 처음이라고, 터키 친구가 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사실 외국 친구들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황이 처음이었을 테고, 어쩌면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한국을 더욱 사랑할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이라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이 때문에 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값진 기억이 되었다.

이렇게 약 2주간의 여정을 마친 우리는, 짧은 글 몇 줄로 아로새기기엔 너무나도 많은 추억만을 남긴 채 서로의 나중을 기약하며 '다음에 다시 보자'고 약속했다. 본인은 역지사지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눈높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배려와 존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역지사지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배움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이번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한글의 수식어와 형용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표현할 수 없이 너무 기쁘다. 내년, 내후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의 많은 청년이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를 통해, 본인이 느낀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라며, 마침표를 찍는다.







현동주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주 섬을 벗어나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지만, 서울생활 갓 반년이 지난 제주 소년은 여전히 제주의 푸른 바다와 들판이 좋다. 그래서 그런지 유네스코 제주 국제워크캠프 모집공고가 났을 때 더욱더 간절했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기억이 난다. 운이 좋게도 나는 캠프 최종합격에 이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형과 함께 참가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캠프 장소였던 "어멍아방 잔치마을"은 내 고향이자 부모님께서 지금도 살고 계신 마을 바로 옆, 작은 산간마을이었다. 내 나이 스물,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학 여름방학에 나의 고향 제주에서 형과 함께 재밌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시작 몇 달 전부터 기대하고, 자랑하고, 준비해온 활동이었다.

외국인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하면서도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이 친구들과 얼마나 즐거운 2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기대되면서도 혹시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국적도 인종도 나이도 잊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함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함께 식사준비를 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일하면서도 귀찮음, 짜증남이 아닌 물을 건네고 부채질로 더위를 식혀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쌓아 나갔다. 함께 땀을 흘리며 세계평화를 도모한다는 국제캠프의 취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캠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기 아쉬워 캠프가 끝나고도 몇몇 외국인 친구들과는 제주와 서울여행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친해진 친구들의 출국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웅하며 작별인사를 나눌 때 아쉬움에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난다. 비록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이 친구들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에 놀랐고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외국인 친구들과의 인연도 소중했지만, 한국인 캠프 참가자 형, 누나들과는 둘도 없는 한 식구가 되었다. 가끔 짓궃은 장난을 할 때도 있지만 늘 막내라며 귀엽게 봐주고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어 항상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꼈다. 캠프 내내 형, 누나들의 책임감, 적극성, 다방면에서의 실력 등 다양한 모습에서 배운 점이 참 많았다. 게다가 캠프 기간 중 하루는 내 생일이었는데, 형, 누나들이 실감 나는 연기로 나를 울다가 웃게 한, 정말 잊을 수 없는 몰래카메라와 깜짝 생일파티도 열어주었고 이날의 기억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캠프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나는 팀원들과의 역할 분담에서 자진해서 캠프 활동 기획을 맡았다. 캠프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며 하는 기획부 업무가 힘들기도 했지만 같은 기획부로서 함께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대던 지윤 누나, 힘내라며 함께 밤을 새워주겠다던 규문 누나, 옆에서 개그로 분위기를 띄워주던 보미 누나가 있어 기획부의 밤은 오히려 즐거웠다. 이렇게 기획된 캠프 프로그램 덕분에 외국인 친구들과의 어색하고 수줍던 첫만남의 자리는 금세 화기애애한 축제가 되었고, 지역 어린이들과의 방과 후 활동, 주말 자유 시간, 지역탐방 시간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과 배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어린이들과의 방과 후 활동 마지막 시간에는 정들었던 동네 꼬마들과 헤어질 때는 얼마나 아쉽던지…. 한때 말도 안 듣고 통제 불능이었던 말썽꾸러기 꼬마 애들이 "똥주선생님 같이 사진 찍어요~" 하며 다가올 때, "오늘 재밌었어요!~" 라며 웃어줄 때,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라며 아쉬움을 말할 때, 정말 아쉬움, 뿌듯함, 보람참,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더 잘해줄걸. '시간이 참 빠르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잘 지내야 해!'. 초등학교 졸업식 날, 눈물을 흘리시던 담임선생님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아직도 캠프 사진을 볼 때면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만큼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캠프 역시 줄곧 순탄키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캠프 시작 후 일주일간 우리가 선발했던 캠프 리더와 맴버 간의 불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참가자가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낭비되기도 했지만, 이때마다 나머지 멤버들의 노력과 희생, 신태범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았다. 리더의 거창한 명령이 없어도, 형식적인 회의 없이도 우리는 잘해냈다. 우리는 한라산을 직선으로 오르는 길 대신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을 뿐, 정상에 무사히 잘 올라왔다. 직접 땀 흘려 수확한 과일이 더 달콤하듯 비록 굴곡지고 힘든 일도 있었던 캠프였지만 지금은 나머지 멤버들 간의 돈독한 사이, 즐거운 추억, 값진 경험과 배움의 캠프로 기억되고 있다.

책임감 있는 맏형 혁재형, 사차원 미남 준수형, 똥주네 형아 창주형, 분위기 메이커 지윤누나, 요리여왕 규문누나, 베스트 드라이버 보미누나, 아빠미소 동규, 얼렁뚱땅 동주,

힘센 사라, 맥주쟁이 미규엘, 미소천사 마리나, 오~줄리엣, 개구쟁이 아떠, 만능일꾼 잭슨, 귀염둥이 발카이, 새침때기 일라이다 북경여인 왕팅, 리자몽 리자, 우리들의 아버지 신태범 위원장님 모두모두 사랑해요~♥







현창주

나의 고향인 제주, 그중에서도 어릴 적 같이 뛰놀던 성산에서 동생과 함께 캠프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워크캠프에 걸었던 기대도 컸다. 그래서인지 캠프가 시작하기 두 달 전부터 캠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캠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전답사도 필수였고 회의도 잦았다. 하지만 나의 열정을 보여줄 수 캠프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활동보다도 우선시하였다. 사전답사도 다녀오고 회의도 꼬박꼬박 참여하였고, 특히 내가 맡은 벽화 부분에 대해서도 틈틈이 구상도 하는 등 캠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였는데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캠프생활이 시작되었다. 사실 외국인들과도 함께 생활해 본 경험도 없고,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한 문화 예절이 있는데 서로 문화적 충돌이 잊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 유네스코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달랐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문화를 이해하려 했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캠프 기간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자면 "I will try it"이다. 다루기 쉬운 포크 대신 서투른 젓가락을 사용하며 손에 익숙해지려 노력하였고, 힘이 많이 가는 예초기도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며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워크캠프 참가자로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기획이나 물품처럼 본래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우선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그 팀 내에서도 벽화, 팻말, 예초 인원을 정하였고, 오후에는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내가 가장 비중을 두고 맡았던 부분은 벽화 부분이었는데 사실 페인트를 사용해본 것은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수성페인트와 마감재가 구별하지 않고 잘못 가져가기도 하였고, 색소를 사용할 때 수성페인트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서 비 온 다음날 번지기도 하였다. 실수가 찾았던 만큼 첫째 주에는 진행이 잘 안 되었고 게다가 비까지 내려 걱정하긴 했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도우며 해결해나간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일을 하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했고, 서로 도와가며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에는 답사활동, 일요일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답사활동 때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성산 일출봉이나 만장굴에 가서 답사하거나 승마체험, 오름 등반을 하였고, 자유 시간에는 해변이나 돈내코(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한국 전통 디저트인 빙수를 먹기도 하였다.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여주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여서 그런지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2 주차에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

사실 1주차에는 한국 캠퍼 내에 리더와 리더를 제외한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팀 내에서 적잖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물론 캠프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리더와의 갈등이었다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리더의 잘못된 행동과 독단적 태도로 인하여 팀원들 모두 힘들어하였고, 그 때문에 1주차에는 외국인들에게 신경을 써줄 여유도 없어 캠프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모두의 동의하에 리더가 나가게 되었고, 팀 내에 평화가 찾아왔다. 새 리더를 선출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더는 리더를 두지 않았다. 우리는 보고가 아닌 상의로,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새로운 캠프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리더가 없다고 해서 더욱 나태해지지도 않았다.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였고, 남은 기간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캠프활동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나에게 있어서 24살, 젊은 시절에 도전과 열정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나는 이 경험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함에 있어서 성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캠프를 통해서 느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워크캠프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나는 그 짧은 2주간의 캠프생활을 하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듯이 행복했다. 지금은 그 소중한 기억들이 꿈처럼 희미해지고 있지만, 내가 캠프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는 꿈같았던 여름방학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찾아뵐 신태범 위원장님도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 워크캠프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LUSTMAN, Arthur

A marvellous thought I brought from my summer vacation to Korea was the day trip we had together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camp. As we planned a trip around the island to different points of interest, I drove on Jeju roads and learned the small differences of driving regulations. Even though rules are looser than I thought it might've been the first time I focused so much on my driving, I guess driving more than 9000 kilometres far from home is more impressive than you can think about it. We visited together different beaches, enjoyed crazy natural phenomenon like the lava tubes or the massive sunrise hill and discovered a fresh first look about the variety of the Korean culture and cooking. I shared short intimate moments with each one of the campers that made me eager to learn more about my new colleagues from around the world.

An enjoyable souvenir is built when you make contact with amazing people as you discover their lifestyle and culture. I could talk about the amazing personal experience I got trying to understand children or the manual work I learned as we painted in different colours the walls of the village or by removing the weeds with different tools, but my best souvenir might be only constructed with the different relationship I made with everyone. I particularly enjoyed playing with the children even though we didn't spoke the same language at all, eating before 6 o'clock a squid salad like they are suppose to do in Korea and even letting the manager trying to carry me for a single picture.

As I learned a different kind of politeness and respect in Korea I want to take few lines to just say thanks to everyone for this amazing experience I got and the amazing friends I can now talk to from across the world. The short moments we shared with the children were enjoyable and very touching. I guess saying goodbye to them was the second most difficult things about my journey with my first one saying goodbye to the campers and the people of Korea.







MUAN


김아현

처음 유네스코 워크캠프 공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떴을 때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공이 사범대이기 때문에 국제 활동과는 먼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SNS를 보면 국제 활동에 참여했던 다른 친구들이 해당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많아 보였고 대학생활 중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국제워크캠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체험담을 써놓은 블로그를 보기도 하고, 카페도 보고 정보를 찾았는데 마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며 사람들과도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고향과 가까운 무안에서 워크캠프가 개최된다는 공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평소에도 관심이 있던 갯벌 관련 활동을 한다고 들어 무안 워크캠프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의 면접 후기를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질문이 있다고 해서 대학교 들어와서 몇 번 본적 없던 영어책도 꺼내서 공부했다. 하지만 영어 공부를 단시간 내에 한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무안군청까지 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당일 준비해왔던 영어 답변은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 말을 정말 못하고 나온 것 같아 분명히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합격을 해서 다른 가치관과 관련된 답변들도 열심히 들어주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합격하고 나니 이제 첫 워크숍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만날 것이 걱정되어서 잠을 못 잤었다. 첫 워크숍 때 다른 참가자들과 얼마나 어색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어색함을 좀 풀고, 캠프별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다. 무안캠프 한국 참가자들이 다섯 명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뭉쳐서 좋은 캠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워크캠프를 준비해놓고 싶어 기본 프로그램의 틀을 짜는데 특히 열을 올렸다. 한국 참가자들이 준비를 잘 마쳐놓아야 올해 워크캠프가 편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말에 새벽까지 연구원님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기본 활동들을 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워크캠프를 진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본격적으로 한국 참가자들끼리 어색함도 풀었고, 워크숍 당일 생일이었던 막내도 있어 회의 끝나고 조촐하나마 깜짝 생일파티를 하며 친해졌던 것 같다. 워크숍 이후에도 프로그램 준비를 놓을 수가 없어 메신저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주니어 워크캠프 공문, 발대식 발표 준비, 환경보전 활동을 추가 준비 등을 토의했다. 중간에 무안에 가서 직접 답사도 해보고 몸은 힘들었지만 워크캠프를 위해서 준비하는 활동들이라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워크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사전준비를 위해 외국 참가자들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을 때, 한국 참가자들 모두 다음 날을 걱정하며 잠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 날 청소, 기본 생활 물품 준비, 발대식 준비에 정신없던 첫날인 데다가 외국인 참가자들이 도착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빨라서 저녁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외국인 참가자들이 저녁에 도착해서 피곤할 텐데도 자연스럽게 한국인 참가자들을 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서로 도와 짐 정리를 마쳤다. 참 많이 고마웠고, 문화는 달랐지만, 첫날부터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후에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게임식으로 이 전에 말한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기억해가는 자기소개를 했다. 무안캠프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들 이름을 빨리 외울 수 있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한국어 발음이 어려운데도 내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감동도 받았고 워크캠프가 시작하기 전 한국 문화를(인사 등)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고 고맙기도 했다.

이틀째부터는 진정한 워크캠프의 시작이었는데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두 번에 걸친 주니어 워크캠프, 문화체험활동, 환경보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다들 처음 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활동 하나 쉬운 것이 없었고 준비 과정도 정말 길었다. 하지만 참가자 모두 매일 밤 토의를 거치며 다들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토의시간이 다른 캠프에 비해서 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적으로 한 시간 정도의 토의를 진행했다. 또, 전체 토의 후 개별적으로 한국 참가자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다시 회의했다. 이 점들이 프로그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완성도 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되었다.

무안캠프의 또 다른 자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던 Special day이다. 한국인 참가자들이 적었던 탓에 외국인 참가자들이 유독 많았던 우리 캠프는 Special day 라는 룰을 만들었는데, 캠프 각 날마다 그 날의 국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 날은 그 국가에서 식사 준비를 하여 전통 음식을 맛보고(물론 다른 참가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Special day 전날 해당 국가의 인사법을 배워 그 하루 동안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인사를 하도록 했다. 워크캠프가 한국에서 개최되긴 하지만 이건 한국 참가자들만의 워크캠프가 아녀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자는 차원에서 도입했던 이 룰은 참 성공적이었다. 매일 다르고 신선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나라의 언어를 원어민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캠프가 정말 잘 진행된 편이어서 힘든 점이나 갈등 상황 같은 점은 거의 없었다. 굳이 뽑으라면 캠프 둘째 주였는데 그 주에는 농사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 어느 지역이나 공동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캠프도 일을 유독 많이 하는 참가자들과 조금 덜 하는 참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 힘드니까 큰 소리가 날 법도 했는데 일을 많이 했던 참가자들은 평소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함께 하자고 말하니 다른 참가자들이 또 얼른 깨닫고 금방 도와주어서 잘 해결되었다. 다 같이하니 작업도 일찍 끝나는 경험을 몸소 체험하니 그 다음 날도 작업이 잘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이 본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작업들이지만 외국 참가자들보다는 적응이 수월하여 작업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다. 주민들과 교류하는 부분도 한국 참가자들의 몫이었고, 농사일 설명도 한국 참가자들의 몫이었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 캠프는 모두가 협력하고 조금씩 노력해서 갈등 없던 좋은 워크캠프를 만들어 갔다고 생각한다.

워크캠프가 끝나고 나니 참 남는 것이 많아졌다. 다른 나라에 사는 좋은 친구들이 11 명이나 생겼고,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 4명도 생겼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날에 정말 다들 헤어지기 힘들어했고,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그 14일이 짧지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외국 참가자들과 SNS로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 나라를 알아가고 있는데 워크캠프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위기 메이커였던 Namy와 Ghazali, 예쁘고 다정한 Blue, 정말 엄마처럼 모두를 챙겼던 Tinka, 지역주민들마저도 너무 좋아했던 Gian, 한여름에도 일을 너무 열심히 도와줬던 Henley,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점이 너무 멋졌던 Ton, 새침한 것 같지만 웃음도 많고 정도 많은 Phan, 리액션이 너무 좋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던 Yeni, 활동들에 관심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Cosme, 막내 라인에 속해서 모두의 웃음을 책임지고 일도 너무 잘했던 Lisa까지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 가장 고마운 우리 한국 참가자들! 리더로써 정말 맘고생 많았을 텐데도 그럼에도 항상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형민 오빠, 무안워크캠프 의사 선생님이자 항상 너무 든든했던 안방마님 하연 언니, 모두 피곤할 때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모든 일에 먼저 선뜻 나서줬던 착한 민수, 사진이랑 영상 찍느라 고생했고 워크캠프 누나들을 모두 즐겁게 해줬던 우리 귀여운 막내 상욱이까지 지금도 워크캠프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워크숍 때 한국 참가자들이 가장 적으니까 우리가 더 잘 뭉쳐서 가장 즐겁고 좋은 캠프 만들자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이 여름에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앞으로도 16명의 친구들이 서로 교류 끊지 않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할 일에 열심히 임하고 좋은 결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벌써부터 메신저로 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나 또한 벌써 기대된다.







이민수

워크캠프를 시작하기 전 외국인 참가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다. 내 나름대로 영어회화를 공부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원래 내가 말주변 없고 붙임성이 좋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껏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2주 동안 할 수 있어서 워크캠프에 참여한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 외국인이 아직 많이 낯선 나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주었다.

캠프 시작하기 하루 전날에 만났었던 오만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포옹을 해서 당황스러웠다.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고 흥이 넘쳤던 오만 친구들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스킨십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었으나 리더 오빠가 한국참가자 쪽 의견을 잘 전달해줘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평소에도 인간관계에서 표현에 미숙한 나였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워크캠프에서 많이 느꼈다.

농사일을 처음 해봤는데 역시 생각한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많이 달랐다. 처음에는 삼촌께 들은 농부마인드(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구별한다)를 되새기며 열정적으로 잡초를 뽑았지만 점점 로봇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사일을 했던 것 같다. 요즘은 기계가 거의 농사일을 할 줄 알았는데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한 작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까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맨날 맛있는 점심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주민 분들 정말 정겹고 너무 감사드렸다.

우리가 2주 동안 머물렀던 숙소도 잊지 못할 것이다. 일거리를 엄청 가져다 준 숙소였지만 단체생활을 했다는 의미에서 워크캠프에 적합했던 장소라고 생각한다. 정말 여태까지 아침마다 파리가 날 깨우고, 16인분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인데 하루가 금방금방 간다는 게 신기했다. 2 주간의 경험이 나의 평소 태도와 생활을 돌이켜보게 했다는 점에서 정말 값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다.



이상욱

국제워크캠프라는 것을 처음 학교홈페이지에서 접하게 되었다. 우선 국제와 캠프라는 단어에 호기심이 생겨 관심을 가졌고, 확인해본 결과 내가 지금까지 쉽게 접하지 못하고 항상 생각만 해왔던 것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선발이 되어 한국 리더가 되어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외국인들과의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정말 많이 되었다. 내가 이번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해서 얻는 점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좋은 점을 배워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언어적으로 매우 힘들겠지만 개선해나가면서 나의 발전과 서로의 도움을 통해 많은 감동과 깊은 우정 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우선 바다와 갯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되었다.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바다와 갯벌을 보고 나서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다. 앞으로 무안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에겐 감동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캠프 진행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크게 놓여있었다. 그래서 내가 잘 쓰지 않았던 영어회화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미리 사전에 연락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문화, 종교, 언어 등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내가 참가할 워크캠프와 지역에 관해서 알아보면 나도 더 빨리 적응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은 분야를 공부했다. 총 11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고 같이 지내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잘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거 같다.

드디어 국제워크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시작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다. 외국 참가자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실감이 나기 시작하고 걱정도 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안 돼서 불안하기도 하였다. 모두가 처음 만났던 날에는 다행히 천천히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다음날부터는 서로 다른 발음과 말의 빠르기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덧 내가 점점 다가가서 기본대화를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외국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자신감도 생겼고, 영어공부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걱정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번 캠프에서 언어의 장벽 앞에서 조금씩 허물 수 있다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주니어 워크캠프는 내게 많은 걱정과 기대 그리고 큰 희망을 주었다. 준비한 만큼 기대도 컸다. 주니어 캠프 초반 초등학생들의 수줍음과 다른 많은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적어 크게 실망한 면도 있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행히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임, 팀을 이뤄서 하는 놀이 등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외국 친구들과 취미, 사는 집, 문화 등의 주제로 대화하였다. 대화는 부족한 어휘 실력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장난을 치며 웃음을 유발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와 빨리 친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항상 밤 11시에 모두가 모여서 대화를 하는 미팅 타임을 정하였고 그 시간에는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이나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등 대화를 나눴다. 특히, 우리는 매일 각 나라를 지정하여서 그 날에는 그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며 그 말을 실천하기로 하였고, 그 날 저녁에는 그 나라 참가자가 주방장이 되어서 요리를 하는 날을 만들었다. 처음 우리나라로 시작되었다 준비한 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 그리고 쿠킹그룹이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 따로 그룹과 요리를 할 날을 정해서 모두가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아침에는 요리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다른 참가자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였다. 모두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성실히 하여 항상 재밌고 맛있는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유네스코토론회를 개최해서는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었다.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문화와 설명해주는 것의 차이를 느끼게 되어 더욱 집중했다.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고,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는 방법에서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무언가를 지키거나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어 서로가 도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일 하루와 문화체험의 날 하루 총 이틀은 우리가 계획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고 날씨와 같은 많은 변수가 있어서 한편으로 부담도 많았다. 먼저 휴일에는 홀통 해수욕장을 갔다. 교통편과 길을 잘 몰라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계획을 진행하였다. 우리 숙소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0분 정도 걸어나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홀통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자신만의 휴일을 즐겼다.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해수욕하는 등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에는 문화체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전통의상인 한복과 다도체험을 시작으로 문화체험의 날을 시작하였다. 무안에서 목포로 가는 길에 있는 초의선사에 가기로 했는데 꽤 거리가 멀어서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초의선사에 도착해서 초의선사 탄생 배경 설명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운 후 바로 한복을 입고 다도체험을 시작했다. 모두가 고운 자태의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외국인들에게도 최고의 체험이라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절,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좋은 경험을 하였는데 나도 10 년 만에 한복을 입게 되어서 의미가 남달랐었다.

드디어 시작되었던 농촌활동의 시간! 주민들의 일손을 돕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촌활동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논에 들어가서 잡초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벼와 잡초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에는 밭에서 잡초 제거와 비닐 제거, 양배추 모종 심기, 수박 농사 돕기, 토마토 재배 등 다양하게 활동을 했다. 모두가 한곳에서 농촌활동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 16명의 참가자를 2~3그룹으로 나누어 작업하였다. 그중 나는 무안 용산마을 이장님을 돕는 그룹이 되었고, 더운 날씨와 고된 노동으로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였다. 하지만 서로 좋은 경험을 가졌고, 모두가 서로에게 힘내라는 말로 서로를 북돋워 주고 일을 함께 도우면서 한층 가까워지고, 더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 워크캠프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알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농산물을 알게 되고, 주민들의 고된 노동을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마을 이장님, 참가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빌려주신 주민들,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 우리 참가자에게 생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준 지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역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에 부쩍 가까워질 수 있었다. 나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의사소통'이었다. 부족한 언어 실력으로 인해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많은 제한이 생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한국 참가자와 외국인 참가자들이 조금씩 도와주었다. 특히, 한국인 참가자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대본을 적어서 주고, 같이 해석하면서 이해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한국인 캠퍼들은 내게 큰 감동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일'이다.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외국 참가자 중 한 명이 먼저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준 행동이었다. 그 덕분에 제시간에 딱 맞춰 끝낼 수 있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모두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활동의 결과도 좋았다. 캠프가 끝날 무렵 밤에는 모두가 서로가 느낀 것과 고마웠던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고, 좋은 추억과 함께 자신들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2주가 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서로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과 태도, 행동, 모습 등이 정말 많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 서로가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한국 참가자 5명이어서 이번 국제워크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적절히 임무가 분배되어 완벽하게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국가별 고유의 음식을 맛보고 싶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맛보지 못한 점과 여러 나라의 간단한 문화, 지역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많이 못 배운 것이다.

캠프를 끝내면서 내 안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이다. 길을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외국인들이 대화를 걸면 항상 피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국제워크캠프를 통해서 언어적으로 성장한 나의 모습으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더 친근하고,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이 있는 곳은 참가하고, 같이 즐기면서 더 좋은 추억과 배움을 찾아 나가고 싶다. 끝으로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도울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싶다.

이번 국제워크캠프(무안)에서는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캠프였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고마움을 느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였고, 절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의지하며 먼저 배려해주는 것을 배우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번 워크캠프를 진행하면서 생각에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하며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활동을 하거나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가자 모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을 낳고 더 발전되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가 되었으면 한다.









임하연

누군가 나에게 대학 시절 가장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골학'과 '무안워크캠 프'를 꼽을 것이다. '골학'은 의대에서 해부학을 배우기 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직접 신체의 뼈와 혈관, 신경 등 해부 구조를 가르치는 행사인데, 우리 학교는 좁은 방안에서 시간을 알 수 없게 핸드폰, 시계, 창문의 빛 등 모두 없애고 일주일 내내 모든 구조물을 모든 사람이 외울 때까지 재우지 않는다. 일종의 고문 행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옆 친구의 미쳐가는 모습과 나 자신이 점점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일주일 날 새워보라!)

이번 '무안 워크캠프' 또한 사실 '골학'만큼 힘들었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우리 한국 친구들, "I will kill you, Jab-cho! Jab-cho!" 이글거리는 땡볕 태양 아래에서 씩씩거리며 잡초를 뽑으러 한국까지 온 우리 외국 친구들, 그 옆에서 잡초 뽑으면서, Mr. Jab-cho(마을 아저씨를 이렇게 불렀다)에게 영어 통역할 머리 굴리면서, 일 안 하고 노는 친구 감시하면서, 아픈 친구는 없는지 보면서 multi-player 역할을 하는 나. 사실 외국 친구들에겐 잡초 뽑는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겠지만, 내겐 무념무상으로 잡초를 뽑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선 언제나 잡초 같은 힘든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아르바이트 할 때 진상 고객 한 명도 마주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있을까? 가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다툼이 없이 캠프를 잘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책 방안을 세우고 시작하였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진상 고객 달래듯(한국어도 안 통하는^^), 그것도 영어로 설명하고 달래주다 보니 사뭇 생각과는 달랐다. 다행히도 원래 성품은 착한 꾸러기들이라서 심각한 상황까진 되지 않았지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칭얼대는 Jab-cho들을 보면서 솎아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global Jab-cho들 말고 너무나 좋은 친구들도 많았다. 워크캠프 경험이 많아 알아서 할 일 척척 하는 Gian,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직접 잘 말해주는 똑똑이 Lisa, 도와줄 일 없냐며 항상 먼저 다가와 준 Tinka, 마음도 미소마저 예쁜 Vietnamese ladies Henley, Phan, 아는 여자는 많은데 여자 친구가 왜 없는지 모르겠는 요섹남 Ton, 큰 눈 멍하게 끔벅거리지만 시키면 하는 Yeni, Cosme, Namy, 셀카의 여신 Blue (1명 더 있으나 필자의 감정으로 인해 no-comment)…. 그리고 함께 일하느라 덩달아 힘들고 지쳤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마을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무엇보다 그 어떤 캠프보다 소수 정예로 진짜 수고한 우리, 한국의 독수리 오형제.

다른 2명이 불참을 선언하여 우리는 다른 캠프보다 더 강해져야 했고, 없는 2인분 몫을 톡톡히 해내야 했다. 캠프를 하면서 한국인 10명, 외국인 10명의 제주캠프는 1인당 1명씩 맡으면 되니 얼마나 편할까, 우리도 1명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꿈에 잠들기도 하였고, 내가 지금 자지 않아야 내일이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한밤중 컴퓨터 작업, 청소를(쓰레기를 쓰레기통 말고 집안 곳곳에 숨겨놓는 Jab-cho가 있었다!!) 하기도 했다.

다음 기수에게 하고 싶은 말 중 한 가지는, 모든 업무를 미리 정하고 분담하라는 것이다. 물론 미리 work 조, 식사 조, 청소 조를 모두 짜고 매일 누가 식사 당번인지 정하였으나, 생각보다 분담해야 할 잔업무가 많다. 예를 들면 매일 식사의 설거지 조도 짜야 하며, 청소를 정할 때도 냉장고, 부엌 싱크대,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개집 청소, 빨래 정리 등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한다. 외국 친구들은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는 이상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은 영어로 세제를 어떻게 쓰는지(모르면 세탁용 세제로 청소하기도 한다), 물걸레 찾아주느라, 자기 맡은 청소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는 것.

두 번째, 숙소의 세탁기가 고장 나서 빨래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물로만 빠는데도 해보면 힘들다. 세탁기 발명 이후로 여성의 자유 시간이 늘어났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 날 수 있으니 캠프에는 버릴 옷으로 가져가자. 버릴 긴 양말(논에 들어가면 2겹 신는 것이 좋다.), 버릴 긴 셔츠(안 입으면 깜둥이 된다), 버릴 속옷(다리가 아파서 흙바닥 앉는 순간 못 입게 된다), 수영복(깨끗하지 않은 바다 들어가려면 필요….) 등…. 그리고 무안캠프는 비어있는 집이라 집 청소 때 버릴 걸레도 필요하다.

세 번째, 어린이 캠프의 어린이들이 정말 착하고 순진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말 안 듣는 사춘기부터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까지 다양하니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우리 캠프에서는 흰발농게 화분 조형물을 만드느라 애먹은 적도 많았고, 미리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귀찮은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만들고 나니 꽤 그럴듯한 조형물이 만들어져 뿌듯하긴 하다.

네 번째, 엄마가 되지 말자! 사실 캠프 동안 나는 12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가 된 느낌이었다. 밀가루가 어디 있니 소금은 어디 있니 부터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외국과일, 소스가 있느냐는 말에 열심히 구글을 애용하며 찾아 주었다. 한국에 왔으니 좋은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우리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고 단지 친구니깐.

사실 나도 워크캠프를 하기 전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고정 관념들이 몇 가지 있었다. 동남아 쪽은 더운 나라니 게으를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주장 강할 것이다, 아랍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다(이건 순전히 IS 때문이다). 등등. 몇 가지 생각들은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틀렸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모든 친구가 그 나라의 excellent ambassador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친구들의 나라 또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 우리 또한, 머나먼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온 외국 친구들에게 잘 대해 주었는지,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소개를 해주었는지,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보냈는지 지금은 아쉽기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좋은 추억을 되새겨보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영어. 영어는 중요하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늦게나마 토익 공부라도 시작해볼까 한다. 잊지 못할 학생 시절 나의 마지막 방학이었다. 감사합니다!





최형민

'그 많던 나의 호기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2013년 1년을 말레이시아 교환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의 1년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았는지 숨김없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1 년은 스스로 켜켜이 쌓아놓은 그 틀들을 깨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서도 교환학생 때 품었던 다짐들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높은 벽과 하루하루 숨 가쁜 일상에 치이면서, 차츰 세상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보다는 회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일해보고 싶다는 제 꿈은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집-수업-도서관이라는 뾰족한 삼각형 모서리 안에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저 자신을 보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안 워크캠프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속하 지역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안캠프에 지원하게 된 외국인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은 유네스코 회관 앞 명동 거리에 여느 외국인 관광객들처럼 충분히 즐기다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굳이 무안이라는 생소한 지역까지 와서 고생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개인적 반성과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유네스코 국제 무안 워크캠프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기 개님…. 리더 하실래요?'

아직도 외국인 참가자들과의 첫 만남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국인 참가자들끼리 먼저 모여 앞으로 캠프를 어떻게 꾸려갈지 한창 의논하고 앞으로 머무를 숙소 정리가 한창일 때, 김현규 담당관님으로부터 '10분 후면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갯벌센터 입구 앞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위압감이 들 정도로 커 보였던 관광버스 출입문 사이로 외국인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내리고 저마다 자기 몸집만 한 캐리어를 주섬주섬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한 기분이 절로 들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님이 어찌나 부럽던지…. (한 응가를 뒤처리하면서 제 처지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사실 제게 '리더'라는 자리는 부담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리더십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리더하면 흔히 떠올리는,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제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척척 해결해주는 능력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캠프 기간 내내 고민하면서도 계속 신경 썼던 부분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리더'가 되겠다는 것과 최대한 구성원들이 무안 워크캠프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란 자리가 다른 참가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하는 자리이기에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지만, 개인적인 고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로 캠프 중반부를 넘어서 두 중동 참가자들이 따로 찾아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자신들은 이슬람교도라 캠프 시작 때부터 먹는 음식에 대해 신경 써야 했다면서 오늘 저녁때 메인요리가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라 부엌에 있는 식빵 몇 조각을 집어 먹었는데 한 참가자가 식빵을 집어먹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참가자가 무심결에 말한 발언을 두고 두 참가자가 느끼기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참가자한테 너희한테 말한 참가자가 결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하면서, 그날 미팅 시간에 중동 참가자들과 얘기 나눴던 부분을 언급하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중동 참가자가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그 이후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리더가 가진 역할의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사례로 캠프에 태국 참가자가 있었는데 캠프 기간 내내 묵묵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다른 참가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줬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참가자라고 해서 피곤할 때 좀 쉬고, 개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그 참가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해 기회를 보다가 둘이 있었을 때 따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 를 비롯한 우리 한국 참가자들은 너의 평소 솔선수범한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캠프 일정을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너의 그런 모습에 나 역시 많이 배우고 있다, 너로 인해 캠프 내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솔직한 제 생각을 전달하여 태국 참가자한테 자신이 이 워크캠프에 소중한 구성원임을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워크캠프를 하면서 재미있고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진행에 관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노동을 했던 주가 폭염주의보도 몇 차례 뜨고 더워서 참가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두 참가자가 더위를 먹어 탈진 증세를 보였고, 일단 급히 그늘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생태지평 선생님께 연락드려 숙소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제가 좀 더 신경 썼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두 참가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은 일부 참가자의 개인행동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참가자는 캠프 초반부터 자기한테 직접 시키지 않는 한, 뭔가를 같이 도우려고 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려는 참가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1차 주니어캠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갯벌탐방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몇몇 한국인 참가자들은 남아서 흰발농게 폐자원 조형물 작업을 하고 있어 외국인 참가자한테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참가자 혼자 따로 한국인 참가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후 일정이 거의 끝날 때까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참가자에게 개인 여가시간에 자기 볼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들 바쁘고 모두가 일해야 하는 시간에 혼자 오후 시간 내내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겼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정규업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한국인 참가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자칫 이 참가자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영향을 주어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분위기를 해칠까 봐 우려가 된 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 참가자들이 그 참가자도 다른 참가자와 같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지속해서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무대로 힘차게 뛰어나갈 친구들이자 동료들을 얻었다는 것'

이번 무안 워크캠프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한국 참가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중에서 무안캠프가 제일 한국 참가자 수가 적었던 만큼, 때로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해야 할 몫까지 감당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던 임하연, 김아현, 이민수, 이상욱 참가자들이 있었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워크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신미아 팀장님, 김현규 담당관님, 박노성 인턴님, 생태지평 장지영 선생님, 이자희 선생님, 무안군 관계자분들, 생태갯벌센터 관계자분, 마을 이장님, 아재 분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주 동안 사람 냄새 폴폴 나는 곳에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멋진 참가자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며, 재미나게 일하다 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이지만 당분간은 계속 워크캠프의 여운이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위축되었던 제 생각과 마음가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매우 만족스러웠고,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제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위주로 쓴 에세이라 다음 워크캠프에 참가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재미있고, 값진 경험이 될 것이란 점입니다. 지원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AL GHAZALI, Abdul Majeed Abdallah Saleh

As matter fact,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have participated in this #Workcamp. Like: #Oman, #Spain, #Mexico, #Japan, #China, #Vietnam, #Slovakia, #Thailand, #France, #Korea, and #Indonesia. In fact I've spent my first two days in the capital Seoul. The third day I had opening ceremony like a meeting in Myongdong by the UNESCO. Then each participant has to go to her/his own place, which means that we've divided into 3 places, I've been in MUAN which have the green land.

As matter fact I've enjoyed and discovered new things at the same time while the time which I spent with my participants in Muan. It needless to say that I introduced myself and my country at the same time, I am proud that I was the only Arabic guy since then. My participants and I we've visited the Muan beach which has so many crabs and full of Mud. In addition we went to visit the Festival which was holding by the Locals, we've enjoyed and danced over there. It needless to say that Koreans were providing me especially Halal food which belongs to our religion, I really appreciated that.

In fact, despite we've faced a lot of difficulties, we realized that working on the fields and the farms sounds very important for elderly, they really look old and they still work hard and active. Moreover I was representing my country. For example, the way I dress, the way how we deal with each other, the way how we live, not only representing the country, I also showed the children our culture, like Omani Coffee, wearing Omani Cap and so on. Last but not the least, I've cooked for the participants Omani food which belongs to my country. Lastly, I would like to say that, I really can't forget loving my participants who made me feel so mature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with me, as well as sharing each other cultures.

Actually each country had to represent its culture and share i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others how they live their life. It was an adorable moment; I brought some traditional items which belong to our culture. Like: traditional Game, Caps, sweets, coffee and incenses which gives a smoke with a nice smell which extracted from the trees.







BERTOVA, Martina

My name is Tinka and I come from Slovakia. My workcamp in Muan was a really interesting experience. I thought I have already some experience of cooperation with people from abroad and not much can surprise me. Before coming to Korea, I already had Korean friends. So I thought that I have some knowledge about Korean and their culture. But I was wrong. Workcamp in South Korea was so much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I learned Koreans are really well prepared. Before the camp the UNESCO sent us agenda for whole duration of camp. Infosheet was full of helpful information about UNESCO, Muan, culture, food and the way how to get from airport to UNESCO office (meeting point). We had really nice invitation meeting in UNESCO office. Transportation was provided from Seoul to Muan.

The first day in Muan we were given a lot of information about workcamp. Again I want to stress that Korean participants were well prepare. We were divided to working groups, cooking groups and cleaning groups.

The main activity in workcamp was farming. In infosheet was clearly mentioned that we are going to experience manual work. I thought I have prepared my mindset for that. But I was wrong again :) Koreans are hardworkers and they expect the same from you. We worked 9 hours on the field. It would be nice to work less hours because we did not have so much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I still do not really understand how working with local farmers help to spread awareness and to preserve natural beauty of Tidal flat.

We were able to present our culture to local kids. Two junior camp sessions

were prepared. Kids seems to enjoy it although I guess younger children were not so interested. The communication was quite challenging with them cause they did not speak good English. It was hard to interact with them due to language barrier. One time I experienced cultural difference. I tried to talked to the kid and she was not even looking at me. I did not know if she was listening to me. Later Korean participants explained to me it is impolite to look directly into the eyes of older person. I experienced that age is really important for Koreans. It is unbelievable and admirable how they respect older people. Another example of that is that in subway the seats for older people are taken just with older people. Even there are no older people around Koreans do not sit on the place for older people. It shows also another Korean feature. They value rules so much. They barely breake the rules. I guess that is why there is low criminality in South Korea. I have to admit I felt really safe in there.

The accomodation was simple but sufficient. We had no mattrasses Now I now what is Korean style floor. The food was awesome. We took turns in cooking dinner and showcasing our own culture's food. That was really nice because we had chance to try foods from all over the world in 2 weeks. I did not like Korean food because it was too spicy for me. But it was worth to try.

I guess the most exciting for all foreign participants was cultural day. I have seen budhist temple for the first time. We have attended tea ceremony and we tried hanbok - Korean national dress. The festival in Mokpo was amazing too. We have seen traditional dancers and had a lot of fun in festival.

But the best thing about all the camp is meeting new people. We had so much fun and laugh. I need to say that working on the field was not a piece of cake. Weather did not make it easier for us. In Muan it was really hot and humid. I like the fact it was hot so I got suntanned. The same thing all Asians hated - to be suntanned.

If I should give piece of advice to European coming for workcamp to Korea I would be : BE PATIENT. Korean mindset is different. I think European are way too

direct. We tend to express our opinion all the time. Also we tend to question things and complain too much. Koreans do not do that. I stressed Korean are good in preparation but that is not organization. I have noticed lack of operational organization. Koreans are not so flexible when something suddenly changes. I gues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ir group decision making. Europeans are more flexible and independant. Talking of independance - I felt that everything in camp was scheduled, waking time, breakfast, work, lunch, dinner, evening meeting. Everything has place and time. Even our free day was planned and we were reminded what things we should take. I was not used to that.

It was amazing time and I might sound like I complained. But it is just because of the fact I am European :) (I am joking) To summarize camp in few words: fun, friends, manual work, different culture. All that you can get if you participate in work camp. Do it and your effort will be appreciated :)





CHAPRI, Naiman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ork camp 2015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imes of my life. I had the best experience of my lifetime in Korea. South Korea is the beautiful country. I started my journey after staying two nights in beautiful Seoul. After meeting the volunteers from many countries during our opening ceremony, I left Seoul along with my group to Muan in a big bus.

I stayed there for two weeks which I could never forget. I worked in agricultural fields. I was given a chance to share with them my knowledge of Omani culture. I played and interacted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aught them about our culture at the junior camp. We did many activities with children both indoor and outdoor, which include going on a short trip to tidal flats and playing traditional games with them.

My friends from China, Mexico, Spain, Vietnam, France, Slovakia, Indonesia, Thailand and Korea taught me their languages and their respective cultures. Moreover, my friends from my camp were so friendly and helpful. I felt like I was in a home away from home and a family away from my family. The best thing about the camp was that everything was as per schedule and on time. I learned a disciplinary way of life over there.

I struggled with food but my friends provided me some good ones over there. I enjoyed delicious delicacies from my international friends. Everyday each country had a special day to cook a traditional food and teach some basic words of their language. We played "Warewolf", we all had fun, did household chores, cleaned our dishes, washed our own clothes, played games, cooked our food, ate together, sang and danced and most of all we went crazy about things that we all did together. Good friends are hard to find harder to leave and impossible to forget.

The washroom was approximately 300 meters away from the camp which was quite a problem in the beginning but later on I was enjoying my morning walk through a beautiful misty green view which soothes up my eyes. Another thing was that there was no Wifi but I realized that it was an advantage for all of us as we were doing different activities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rather than using our social media apps which gave us an extra time to know each other and spend time. Last but not the least I will never forget working in the "jabchao fields" which was the real hard working deal for us as we removed the terrible jabchao grass and weeds while working under the hot sun. We also planted plants. Furthermore, we painted walls we created some interesting marine life paints on wooden planks by the help of Master Lisa and other participants. We planted small plants in waste plastic bottles as our aim was to protect the flora and fauna and the environment and to reduce plastic which was a great job indeed.

We went to many trips to beautiful beach, tidal flats, and Korean temples where we learned how to wear Korean traditional clothes "Hanbok" and learned how to greet others, we enjoyed the very aromatic green tea ceremony and learned how to serve as a host and receive as a guest. It was quite a different but excellent experience. The most memorable was the Mokpo festival where we enjoyed a lot, we danced on the stage played games, buy souvenirs took photographs and watched the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

I would like to thanks Mr. Ton for his portable hotspot connection. I would call him the king of Wifi ha ha ha. Thank you Yeni for entertaining us by your cool music. I would like to thank our Korean participants who guided us and helped us while performing our tasks. Our leader Mr. choi was so calm and cool, and will never forget his golden words "we have enough chicks for tomorrow hahahahah.. Thank you all my friends. Blue for being very close to my heart I miss you your tears made me emotional really "me you me you" remember that song hahaha, Kim the cute lady I always liked the way you talk and explain things, Minsu you are our first friend in Korea appreciate your friendship, Sangwook I really wanna follow you but cannot haha I miss your English haha, Tinka thanks for being our mama appreciate your friendship, Ha yeon I thank you doctor for such a nice time wish you a best of luck, Yeni let's go to Korea again . I miss your damn awesome music, Lisa, I wanna take a foot selfie, you are a great artist thanks for being such a nice friend, Ton it is already open haha miss your food and your friendship, Cosme come on young boy show up we all miss you, Henley I would like you to be a photographer, thanks for being such a nice photographer and a nice friend, Phan what would I say hmmm I love you 'LB' shhhh secret hahah, Gian ahhh REALLY I miss you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and best of luck, and my brother Ghazali... yo my nigga you were the best man.... And thanks to other organization members for giving me such a memorable time of my life. I learned a lot from all you. To be honest I really had tears in my eyes when I left you all guys. Thanks all of you. Namy (the freak and the craziest man with long moustaches) hahaha loves you all and wishes everyone a bright future with full of happiness and craziness. I strongly appreciate your friendship and will never forget you guys. I miss you guys, hope to see you again because good friends never say goodbye.





ETIKASARI, Gian Wahyu

This summer year was special summer for me and it would be one of unforgettable summer for me. This Summer I went to South Korea to join Work camp held by UNESCO in Muan, work camp is a favorite activity because I ever joined some work camp in my country. But this was my first time for me joining work camp in another country. Before I went to Korea I felt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s excited with the activity that I would do in Korea also. Moreover, I was excited to meet other participants who will life and did work camp activity with me. That day was coming. I arrived in Korea, (nan wasso). In UNESCO hall I meet other work camp participants and got short orientation from UNESCO staff. Finally, we went to Muan. Work camp would be begun now. It took 5 hours from Seoul to go to Muan. I presented a beautiful view during a trip to Muan. There were 16 participants from some countries who lived and did workcamp together in Muan #Korea #Oman #China #Slovakia #Mexico #France #Thailand #Vietnam #Spain #Indonesia.

First activity that we had in the work camp was an opening ceremony. We also got orientation about Muan tidal flat. All participants looked so serious and were excited to listen the guide. I learnt how to live in tidal flat area, and the main activity was coming that was a labor work. I helped local farmers to plant vegetable in the field. We learnt how Korean farmer plating and taking care their plant. The activity was so hard for me because of hot weather, but this was so appealing activity since the farmers and local people were so nice so we didn't fell hard and tired. Meanwhile planting we have removed "Jabcho" in the field and painting with kids. Every day was special day, When I got a chance to introduce my country which was called Indonesian day I taught another participants how to greet someone using my language. Moreover, I cooked Indonesia food for them. So, by joining this work camp I could learn many languages and cultures in that work camp.

After joining many activities, finally we had free time. We woke up early and prepared many things to go to a beach. The second free time day, it was amazing trip because I went to the temple. I also got a new experience wearing "Hanbok" (Korean traditional custom) and learnt how to do a tea ceremony. I liked it so much because I learnt a new culture there, they taught me a history about Korean women who was graceful and full of modesty. I came to the State that had a beautiful and unique culture. Before the free time ended, I joined a local festival in Mokpo. There was a lot of boots and I tried a traditional nail art and it was free for me. Yeeayy ^^

A memorable experience for me was Junior Camp, because in that activity I made a boot about my country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my culture to local children. I liked kids very much so it was another amazing activity for me because I could play traditional games with them.

My last day in the work camp, I had a farewell party with local people, the local people made barbeque. All of the participants drank together, and we sang in front of local people. The local people were kind people.

I got many experience. I also got new friends and new family in the work camp. Moreover, I got a lot of memorable memory, learnt new something, even a problem also appeared in our work camp but we could overcome it and made it as a spice sweetener in our Work camp. After work camp done, we also made a social group to keep in touch, the group named "jabcho" work camp.

There is much credit to be given around for this splendid experience, not least of all a big thanks to UNESCO for having had the will and the desire to set-up such an educational program in the first place. I must thank the Korean participants, Choi (ajussi) who is a best leader, I found 3 dongseng : Minsu, A hyon and Sangwook and my Korean cinggu ha- yoen for their effort, and for being such great hosts to their foreign guests (including me). And thanks to my work camp friend who already being my new family: Lisa, blue, yeni, Tinka, Ton, Pham, Henley, Gazaly, namy, Cosme. Thank you so much also to our mentor lee ja hee and jang ji young who always helped and supported us Congmal Gomawoyo. I hope we can meet again in any country, wherever it is.







MARICELL, Yeni

A few months ago I decided to apply for a work camp with the UNESCO. When I get the confirmation of acceptance, I could not believe it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trying to apply for a program abroad at first the excitement of being in a new country filled me with curious questions to myself.

Everything became more real when I started to have contact with the active members of the UNESCO South Korea. Then unfortunately I heard on the news that Korea was in a health emergency, to be honest I felt a bit disappointed to think that the camp would be postponed or perhaps canceled fortunately soon good news arrived. The situation was not serious as was being saying on the news; only with a little care everything would be fine with a plus that the place where we were had not presented any case of MERS.

Then shortly after it came time to meet the members of the camp through a global communication Facebook, different continents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ages and just one goal.

I found that the members were friendly and cooperative I think it was because we had a mission together to develop. Then the day came all prepared to take a flight of twenty three hours to a continent totally unknown 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I can say that was my first trip to another continent alone and with the barrier that had no idea of the language.

Arrived in Korea and I was lucky enough to meet a day earlier with some of my colleagues of the work camp and form a closer bond. Was time for the committee meeting in the hall of UNESCO in South Korea, we talked about security recommendations and where we were going to be three weeks. W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other members of other camps.

It was time to meet others of our colleagues already waiting for us with everything ready to welcome our workplace. We had the opportunity to make a private presentation of us with our partners and start organizing the tasks and schedule that we would have for those three weeks.

Workdays cannot say that everything was rosy but I realized how strong the field work is, I think the hardest part for me was working in the sun and climate. I had never worked on an activity in the field but one of the many good things that I found in this experience is teamwork I realized that agricult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in a country and I am proud that I now have experience in this kind of activities.

Another important point to be emphasized is that kind of environment was generated inside the house because for three weeks we lived as a family I am surprised as different types of cultures and thoughts were able to adapt so fast. If you ask me if there was ever misunderstandings or differences among members of the camp the answer is yes but we were 16 members of different cultures. The important thing was how quickly they solved and that we could share our points of view.

And finally I love to share everything I learned of this beautiful country with a culture steeped in history and most of all take as an example because all that has been achieved is starting from the bottom, talking about the people I never imagined that people were so friendly that despite the barriers of the language they are willing to help you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Last but not least to mention the friendship that was created and I think that will remain for a long time with all members of the camp, because we remain a family.

Tinka, Lisa, Cosme, Ton, Phan, Thu, Naimaan, Gian, Abdul, Blue, Ahyun, Minsu, Sangwook, Hayen, Hyeong min.



MOUEN MAKOUA, Lisa

For my summer vacation 2015, I decided to participate to MUAN workcamp which took place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worcamp was held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South Korea was a country which attracted me a lot for its singular culture. It was for me an occasion to discover the country in a more \ll authentic \gg way, an opportunity to be more than just being a tourist. Getting the chance to exchange with locals was something important to me. This project has filled all of my hopes in my thirst for learning and sharing, but it has especially consolidated my curiosity about South Korea.

Muan Workcamp was based on the awarness of the environment, the tidal mudflat around Muan-gun is register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as a Biosphere Reserve. We were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the Muan Tidal Wetland Research, except during days in fields and excursions, we were working in their building. The Institute is situated in an exeptional setting, really beautiful and well kept. It wasn't rare that one of us would take a nap on a bench to enjoy the sunset. The workers here are so friendly, especially Lee Ja Hee and Jang Ji Young who have accompanied us throughout the two weeks. I must thank them for being so good care to us and by coming everyday to encourage us.

Our mission has been cut in different activities. We had to organize two days of junior camp (making presentation of our countries for local kids and finding a way to make aware people about the biodiversity of Muan-gun tidal flat). The most outstanding activity we had to do was working in fields. It was long and hard work but we got to become friendly with the ajushi farmers and I could sing with the ajuhma ladies! What more would you need?! I had the opportunity to go paint

walls with another participant and professional painters from a nearby city. I love painting, so it was a really good day for me, i got to enjoy painting in music with cool weather, I almost forgot my friends working in fields.

Thanks to KNCU we had possibility to do cultural activity for free. What we did was really instructive, i loved it . We went to a famous bouddhist temple, in which, one of the most famous monks in Korea. The building was fantastic, i'm interst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s, so the woodwork blew me away . With the visit we had the chance to learn and do the tea ceremony in traditional clothes. The two teachers taught us Korean refinment.

Our accomodation was an old farmers house, you can't get more authentic. Sleeping on the floor was a first for me, but you get used to it pretty fast. Nights after tiring days we would gather on the house steps to discuss and have fun together. A small anecdote : The first night was a surprise for all foreigners, communal showers! Like the rest, you get used to it pretty quicly. It becomes something almost burlesque when you are washing your clothes and locals enter.

Having all participants constantly together is what enabled to be as close as we are today. Preparing meals, washing, looking after each other, being tired together, so much things. I'm sincerely happy to have participed this workcamp, I left South Korea with stars in my eyes, now I just want to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The language charmed me, I started to take korean lessons and I hope I would get opportunies in my studies over there.

A big thank you to KNCU youth that allowed me to make this wonderful experience that have deeply affected me, also to all five koreans participants who works everyday to organize our daily activities, and finally to all Muan group, love you guys!



PHUONG TUONG, Phan

My last summer was amazing with a chance to join in Muan workcamp which was held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t was the great experience which I can deeply understand the life in Korean rural. It was also the first time I taught and shared to kids about my stories, about my country. Though I was also grown up at the village like Muan but I ever did farm work before and this was a very first time I worked as a farmers: jabcho; planting seeding; cover water melons; used picks to harvest potatoes from the ground. It was a surreal experience I will be hard to forget.

I learned many things from this trip, and discover a lot of things. I have explored and checked the deepest recess of my understanding, and learned more about myself and the world around me. The field trip through the village taught me about rural life in Korea, did good thing, made friends and had amazing memories.

Korea - such a lovely country with lovely and kind people! With all of my Korean friends and foreign friends from China, Indonesia, Thailand, Oman, Spain, Mexico, Slovakia, France I have met, I had the best experience in Korea full of unforgettable memories!!!

Everything is like a wonderful summer dream in my life, full of mixed emotions that I can not express all by words. Close my eyes and trying to sleep at night but I just keep thinking about our work camp and our amazing moments together. I'm getting used to the sweet sound "Phan" you called me, and keep hearing your voice talking to me in my head. I miss having breakfast with all of you at 6am what I never did in Vietnam; cooked, smile and said "good morning" to each other every morning; had breakfast together and started a day. I miss walking on the very peaceful and green pavement towards the Center. I miss labor work when we did jab-cho together; listened music and chat about everything. I miss the moments when we played stop and go; the mafia and wink game on the room at midnight. I miss the moments when we started international day with one day was representing by each country; we learned how to greeting in many languages. I wondered that after work camp I have ability to speak 9 languages <just kidding>. I miss the moment when we joined in the Korean greeting class and Mokpo festival, dance freely with local dancers and happily with music. I miss the moment we walked to Lotte mart and connect wifi ahaa. I miss the moment that we drunk beers and soju in the middle fields. I miss going to karaoke; i miss our last night, our party with very lovely and friendly local people. I miss hugs, smiles, kindness, amazing moments.

Besides that I also thank UNESCO for facilitating us with a wonderful experience. The people in Muan the uncles, the aunts had made me very touching. Sometime when I see that we did not help anymore; sometimes we ware lazy; but uncles and aunts always treated us well, helped us so much. They also bought us ice cream and very tasty food. Uncles always smiled and skipped with all our flaws. That makes me very grateful and love Muan a lot.

I don't even know why every corner of Korea, every picture of Korea I see, I always see you- my friends and hearing your voices ^^

I appreciate all of you - my amazing friends! I will forever keep our wonderful memories deep down in my heart! Thank you for everything!

Love from Vietnam

Phan



THU NHA TRANG, Pham

There is a real interesting point that I partook Muan Camp on the last days of my nineteen and when I was writing this piece, I was 20 for few days. Being a little bit more mature, hopefully I can better impart my feelings and thoughts of this camp. To be honest, even when I came back to my country, convivial memories I had during the camp was still extant in my mind as a slow-motion movie. My summertime, due to the time I spent there, became memorable.

What would I remember whenever I think of Korea? It is not simply the people, the sights or work. But all my experiences, all the things we all do together, the road we passed, all of these sketch a beautiful picture that I never forget.

I frankly did not expect that we, 16 people from ten different countries, would be so close, yet we are. We did a good job to create a harmony and diverse culture during the camp. And the very hard work in Muan took us together. Waking up at 6 am and doing labor work for most of days were not easy for all of us. Some members got sick, some burnt their face because of extremely hot weather, some hurt themselves. Sometimes, I was back from the field, exhausted but our day had not finished yet. I either had to cook or clean the room then we would have a meeting at 8 or 9 pm. I was tired, really. However, it was weird to say that I was happy. Those hard-working days gave me precious memories. I will tell you the reason.

We sang in the field. We danced. We lay down on the ground, looked at the cloudless blue sky and shared our stories. Our hands were dirty, our clothes were full of mud. We sat down behind the truck every day after work to come back home. We felt the soft wind blowing between our hair and sang. We named "stub-

born weeds" jabcho and called ourselves Muan Jabcho Members. We did all together. We are family.

Those memories have become my inspiration in life. I must thank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for such an amazing workcamp. The Korean participant in Muan camp were more than great. They had formed a best host team to carefully take care of us: imperturbable Choi, enthusiastic Hayeon, adorable Kim and Minsu, last but not least, thoughtful Sangwook. Thank the staffs from Eco-Horizon Institute for their care and guidance. Their efforts has created a successful program. I also must thank all the affable locals in Muan. Their hospitality made us feel home right in a foreign country.

Last but not least, it is my appreciation for my dear friends, all Korean and non-Korean participants. All of you have made Muan the best camp I have ever taken. I know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YANG, Lan

I am glad to get a chance to visit to Muan hel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uring the summer vacation. It was so special and meaningful experience for me that I will not forget the best memorable.

During the two weeks, we helped local farmers who were not only kind but also friendly to work some agriculture that was to remove grass in field or mud under the hot sun, which was real difficult. On the other hand, we picked small tomato in green house with some local women. They taught us how to pick them right and set an example. Althoug it was really hot, we put our whole hearts in to the work of picking.

We had two days to do activities with Korean children in junior international camp in which I could teach them the culture of China. Little by little, our knowl-edge will be well enriched and our horizons will be greatly broadened at the same time. And we played with them with funny Korean games and took them to visit crabs. Though we had not seen each other before, hardly had their beaming face come into my sight. And you could imagine the big enjoyable expression on their face. They are very outgoing, so we quickly fell into heated chatting like old friends. There is no denying that we learned difference languages and culture each other. The following days, we painted on two boards and use some plastic bottles to decorate them. It was so funny when we planted small flowers in bottles. I thought it looked like an artwork because we need to be cooperative, persistent and decisive.

After doing these work, we had two free days and were so lucky that we met Mokpo festival in which we were taught how to wear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knowledge about tea culture. So enthusiastic was the host that they told us a lot. Korean volunteers took us to watch drama. Although I couldn't understand the meaning of it, I was amazed to see the colorful costumes and the unique way of performing. On the last day, we went fishing with a huge net and then played water each other in the sea.

Happy times were always funning fast. It was time for us to return our country. I was very grateful for what UNESCO and my friends had done and hoped you were really impressed by the Chinese culture. I really cherish the invaluable experience, in which not only do I helped some famers and kids, but also realize that there is no distance between cultures.

As far as I am concerned, I learn a lot from the experience in which it is of great necessity to equip ourselves with ability to cope with problems because there is no denying that we may encounter many problems during the work camp, but that doesn't mean we will give up. Only when we are proficient with dealing with some difficulties, can we fully enjoy happiness and live a merry life. In a word, I want to appreciate everyone met in Korea, wishing you will feel happy when you recall this memorize. Miss all in Korea!







김하은

워크 캠프 공지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고 할까 말까 보다는 될까 안 될까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워크캠프를 가기 전에 가족들은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많이 걱정했지만, 위험하지 않을 거라 믿었기에 참여했습니다. 가기 전날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워크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워크캠프가 시작되기 전날 미리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 도착해서, 선발대로 외국인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캠프 동안에 할 게임이나 활동에 대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국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음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음식을 잘하는 팀원이 많아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타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업활동은 주로 풀을 베거나 사과가 맛있게 익기 위해서 한 가지에 여러 개 달린 사과를 솎아내는 작업, 그리고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흙을 채우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자유 시간에는 고구려 전통 소리와 북소리를 배우고, 냇강마을에 가서 적정기술을 배우고, 주니어 캠프와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각국 문화소개도 하고, 런닝맨을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시간에는 백담사를 방문하고, 용늪과 을지 전망대, 제4 땅굴을 다녀왔습니다. 인제 바퀴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용늪과 을지 전망대, 제4 땅굴을 간 날에 차량 지원이 4 시까지만 가능해서, 바쁘게 다녔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사실과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들을 보면서 외국인 참가자들은 물론 한국인 참가자들도 세계 어디서도 전혀 할 수 없는 활동에 가슴이 아프지만 흥미로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지 않았는데, 다행히 농업활동을 할 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계속 농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시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다른 날에 계획한 실내 활동과 바꿨습니다. 대부분 DMZ평화생명동산 식당에서 나오는 한식을 먹었고, 주말에는 음식을 하고 싶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식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따로 빵이나 감자나 토마토 같은 것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쑤시기는 했지만, 일을 열심히 한 나 자신에게 뿌듯했고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2주 동안 팀원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두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협력 단체에서 틈틈이 간식을 많이 챙겨 주시고, 메르스로 인해서 단체에 일이 밀리고 겹쳐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를 많이 돌봐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팀 내에서의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팀이 분열되고 워크캠프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작은 갈등 중 하나는 한국인 참가자들과 중국인, 대만인 참가자들끼리 너무 자국의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타 국가 친구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공용어인 영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참가자 중에서 한국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두 명이 있어서 따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챙기지 않아서 숙소에 따로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챙겨서 같이 먹도록 방향을 바꿨는데도, 음식을 잘 챙겨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경우가 많아져 불만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그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챙겨 오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 대해서 고정관념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만나니 고정 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체 생활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의 생각을 깨고 그들은 단체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한국에 전체적인 관심이 많아서 지원했을 거로 생각했지만, 한국보다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을 고구려 소리 배우기, 북 치기, 윷놀이, DMZ 답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항상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인 제게 아침 6~7시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농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한다는 말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상외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2주일간 일찍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워크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뭐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서 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피하기만 했던 영어이지만 세계 공용어라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느꼈고, 영어에 대한 학습 의지가 생겼습니다. 문법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회화 위주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크캠프가 마무리될 때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적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2주 동안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과의 헤어짐은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서 남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유네스코 위원회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그리고 참가자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지은

2015년 5월 29일 유네스코 워크 캠프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라 마음이 설렜다. 내 버킷리스트에 작성되어 있는 '워크캠프 참여하기'를 이룰 수 있길 희망하면서 결과발표를 확인했었다. 결과는 합격! 너무 기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날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Top 5 안에 드는 일이다. 워크숍이 있었던 6월 5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까 하는 기대된 마음을 갖고 유네스코회관으로 향했었다. 만난 사람 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함께 타 친해진 분들이 그곳에 다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마도 그 버스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버스라고 생각된다. 처음 본 사람들도 다들 너무 좋으셨다. 분위기는 인제 워크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짤 때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계획을 다 세운 우리는 워크캠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사전답사를 거친 7월이 지나 캠프 날짜인 21일이 다가오면서 설레는 기분과 함께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2주 동안 잘할 수 있을지, 새벽부터 하게 되는 농활을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만감이 교차했다. 선발대였던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함께 하루 전날 미리 가서 그 다음 날 할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고 요리할 것도 저녁에 만들어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DMZ 관계자분들도 초대해 자리를 만들려고 약 20 인분의 요리를 준비했었다. 집에서 2~3인분을 만들었을 때는 요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20인분의 요리가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만든 요리를 보고 고맙다고 얘기해주었던 친구들이 있었기에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떡볶이를 좋아하던 친구, 해물 볶음 우동을 맛있게 먹던 친구, 부추 부침개를 먹고 맛있게 먹던 친구 등 이렇게 글로 쓰면서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몸으로 말해요.' 게임에서 동물을 자세하게 표현해 우리에게 웃음을 줬던 HAO KENG 등 리액션을 크게 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재밌고 2주 동안 얼마나 신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새벽부터 시작했던 농업 활동에서 외국인들이 모이라는 시간에 모이지 않아 생각보다 농업활동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시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어디에 모이자고 약속을 해도 조금씩 지체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아시아 사람들은 시간 안에 잘 모였다는 것이 역시 같은 아시아인이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일 밤 미팅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땠는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등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팀워크를 맞춰나갈 수 있었다.

2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친자매처럼 지냈던 일본인 친구 Mika 이 글을 쓰면서도 Mika가 그립고 겨울이 되어서 빨리 Mika가 있는 일본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영어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며 친해지는 이 기회가 너무 행복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해 놀랬던 루마니아 친구 ADRI-ANA 중국에서 온 YEMIN 등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 루마니아 친구였던 ADRIANA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갖고 있던 틴트가 어디 거냐고 물어봐서 명동에 간다고 해서 어디 가게에 파는지 제품명도 알려줬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도 변화되었다. 2주간의 계획을 직접 짜고 계획한 일들을 하면서 원통고 친구들, 귀둔초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원예학과와 결합해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즐거워하는지를 알게 해준 워크캠프는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여주었던 소중한 추억들이다. 2015년 여름에 특별한 기억과 추억을 쌓게 해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득원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 라는 말처럼 워크캠프의 시작은 단순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워크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한 단계 자신을 성숙시키지 않았나 싶다. 워크캠프 참가자로 합격하고 한국 캠프 리더들과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상의를 하며,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사전 물품을 사고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설렘을 가지고 진행했었다. 워크캠프는 이런 설렘과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

먼저 가장 큰 추억은 인제 워크캠프 참가자들과 같이 활동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해외 참가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한국 캠프 리더들과 오전에는 농업활동을, 오후에는 적정기술 만들기, 전통 북 체험, DMZ 관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외국 참가자들과 같이 농업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공동의 노동과 활동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우리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은 주니어가 캠프 아니었나 싶다.

인제 워크캠프에서는 1박 2일의 주니어캠프를 고등학생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2번 진행했는데, 자유분방한 애들을 상대로 한 주니어캠프에서 우리는 세계문화 부스, 농업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운영하였다. 다양한 국가의 부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몸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다 같이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과 농업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 간에 협동심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인제 캠프 참가자들의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주니어 캠프를 보람차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특색을 보여줬는데. 나에게는 가지지 못한 면모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루마니아에서 온 loana,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본에서 온 Mika, 묵묵히 자기 할 일 성실히 하는 한국 캠프리더 민근,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대만에 온 Hargen 그리고 문규 그 밖에 캠프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이 보여준 성격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자신감을, 책임감을 채울 수 있었고, 다른 견해와 시각을 나누고 배움으로써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캠프 기간 내 참가자들 간에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 간에 생활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식하고 참가자들의 성격을 존중하면서 캠프가 진행되면 불편한 숙소환경과 참가자들 간 갈등은 어느새 잊히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 UNESCO 직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워크캠프는 물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평화, 환경, 기아, 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워크캠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캠프를 참가한 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서 환경개발 문제와 전쟁과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워크캠프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참가자는 나뿐만 아니라 워크캠프에 참여했던 해외 참가자, 주니어캠프 참가자 그리고 국내참가자 들도 가졌을 것이다. UNESCO 워크캠프! 2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든 시간이었다.





전소영

2015년, 유네스코 워크캠프와 함께 한 이번 여름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번 워크캠프는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고, 6 개 국가에서 온 9명의 외국 참가자들과 7명의 한국 캠프 리더들이 직접 우리의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겨나갔다. 우선 한국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인제라는 곳에서 캠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통한 환경, DMZ 답사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찾고 현지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여는 데 중점 목적을 두었다.

캠프 출발 전, DMZ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워크숍과 1박 2일 사전답사를 하며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워크캠프 참가자 모집공고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을 만난 것은 내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워크캠프 첫날, 나는 인솔자 중 한 명으로 외국 참가자들을 만나러 갔다. 낯가리는 성격과 오랜만에 써야 하는 영어 탓에 긴장 속,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주했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얼마나 유쾌하고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 참가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했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었다.

주중 오전은 주로 제초 작업과 화단 조성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다들 얼마나 열심인지 오히려 일에 익숙지 않은 나는 외국 참가자들에게 장난식으로 꾸중을 듣기도 했다. 워크캠프는 말 그대로 한여름의 육체노동은 정말 많은 땀을 흘리게 했지만, 노동을 통해 모든 친구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화단을 만들기 위해 남자 한 명이 자갈을 퍼 올리면 여자 두 명이 자루에 담아 옮기고, 사과나무 주위 여러 명이 쭈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풀을 베는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약속된 6시부터 힘겹게 잠을 이겨내고 몸뻬 차림으로 나온 우리 모습은 매일 서로의 웃음을 터트렸다. 첫날과는 확연히 달리 캠프 마지막 때쯤, 풀베기를 위해 능숙하게 낫질을 하고 여유롭게 일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솔직히 캠프 내내 오전 노동을 하며 우리를 괴롭힌 것은 일의 강도가 아닌 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다행히 크게 쏘인 사람은 없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숙소에서도 벌은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다.

주중 대부분 시간은 일과 교육으로 보냈지만, 주말은 자유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캠프 첫날부터 루마니아의 한 참가자는 내게 한국의 역사, 특히 DMZ에 관해 물었으며 주말 답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답사 전부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공부를 해야 했다. 주말을 맞이하며 거의 모든 하루를 보냈던 평화생명동산을 벗어난다는 자체가 모든 친구들을 기분 좋게 했던 것 같다. 을지 전망대에서 멀리나마 북한의 모습을 보고 제4 땅굴에서 분단된 국가의 현실을 마주한 외국 참가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쉽게 볼 수 없는 분단국가의 현실로 신기해하지만 전망대에서 산밖에 보이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맨눈으로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 모든 참가자들이 답사를 통해 하루 내내 한국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었고 DMZ에 대해 열심히 생각했던 시간이었다. 그 뒤로 한국의 역사와 외교에 관해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나는 더 치열한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DMZ 답사와 함께 제일 생각나는 것은 원통 고등학교, 귀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문화교실이다. 1박 2일의 시간은 학생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유네스코에서 제공한 여권을 가지고 세계 부스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를 체험한 시간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다. 모두 노트북으로 본인 나라를 소개하며 전통 의상, 춤을 보여주거나 과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나는 일본 참가자 Mika를 도와 일본 부스에서 통역하고 물풍선 장난감 만들기를 도왔는데 만들기도 어려웠거니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물풍선을 가지고 놀아 여기저기 터뜨리는 바람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인 캠프 리더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1박 2일 동안 함께 밥 먹고 게임을 하며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내내 '괜찮아, 한국어로도 좋으니 아무 말이나 건네 봐'라고 다독이곤 했다. 역시나 남자 학생들에겐 게임, 여자 학생들에겐 소규모의 이야기 시간이 딱딱한 분위기를 풀 수 있었던 열쇠였다. 외국 참가자들도 처음으로 한국 아이들과 대면하는 자리였기에 많이 좋아하고 다가가려 노력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같이 일하고 놀았던 그 순간이 모두에게 가치 있었음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게임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과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면 우리에게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여름, DMZ평화생명동산에는 유네스코 워크캠프 말고도 많은 캠프 참가자들이 있었기에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캠프 첫날, 미리 도착해있던 몇몇 한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캠프 중간에 루마니아와 중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음식의 주제가 된 나라 참가자가 메인 요리사였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음식을 돕고 배웠다. 땀 흘려 만든 서로의 요리에 감탄하고 허겁지겁 먹었던 기억이 난다. 주위에서 급하게 산 탓에 재료도 많이 부족했지만 낯선 친구들에게 자기 나라 음식을 소개하고픈 마음을 알기에 모두 더 기쁘고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유네스코 워크캠프의 의의를 무엇이든 '함께' 했다는 것에 두고 싶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함께 했고 그렇기에 피곤한 일정 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외국인들과 2주 동안 영어로 이야기할 기회여서 더 좋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Workcamp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들기도 했고 날씨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다. 때때로 나는 통역을 맡았기에 조금 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만큼 더 뿌듯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매일 즐거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캠프였다.

서로의 나라를 대표해서 모인 참가자들이기에 어느 때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캠프이기도 했다. 나는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어주었고 그들은 우물 안 개구리인 나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대학 생활의 끝을 앞두고 꿈을 찾아 방황하는 나에게 더 큰 자신감과 자극을 준 시간이자 또 다른 워크캠프를 경험하고픈 욕심을 만들기도 했다.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 없는 청춘이라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관계자분들과 힘들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 모든 워크캠프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문규

[한국인이 아닌 지구인이 되세요!]

우선, 이번 워크캠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다. 워크캠프는 단순히 일만 하는 캠프를 떠나서 '지구의 축소판'을 보는 듯했다. 개인적으로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외국인들과 2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외국인 친구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며, 우리와 생각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느끼며 워크캠프 이전에 여행을 다니면서도 생각했던 게 이번 워크캠프를 하는 동안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바로 '한국인이 아닌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쓰고 '어? 미국인!?' '어? 동남아 노동자들!?'이라고 속으로 되뇔 때가 있다. 그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언저리에 있는 어느 나라일 거라는 편중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외국인만 보면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며,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차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워크캠프 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친구들이고, 같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지구인이다'라는 인식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졌던 결과, 100%는 아니더라도 2주 동안의 지구인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문화와 인식 차이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 음식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너무 적극적인 친구가 있으면, 소극적인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같은 지구인이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배려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던 친구가 가까워지고, 색안경을 썼던 내가 점점 선글라스를 끼고 외국인 친구들을 똑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흘 동안 진행되었던 주니어캠프도 역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다. 수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외국인 친구들을 볼 기회가 적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을 마련하였다는 점 자체만으로 의미가 남달랐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 친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느낌이 묘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누구를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으로 불릴 수 있었고, 고등학생 친구들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쪽지를 적어서 덕분에 재밌었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해줬을 때 정말 뿌듯하고 아이들을 잘 이끌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나만큼 컸을 때, 나보다 더 나은 글로벌 인재가 되길 바란다.

[어디서든 글로벌해질 수 있습니다!]

워크캠프를 하는 데 있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하는 워크캠프나 대외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한 현실에서 워크캠프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번 워크캠프가 열렸던 장소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심지어 태평양에 떨어진 무인도였을지라도 이번 워크캠프는 내가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준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유네스코 워크캠프에 지원을 하게 되고 글로벌 인재로써 역량을 쌓아나갈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던 '지구인이 되라!'는 말을 한 번은 되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조민근

이런 자원활동이 처음인 나에게 이번 워크캠프는 많은 것을 주고, 바뀌게 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처음 시작하기 전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에도 이번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겁이 났었다. 하지만 참가자들과 점점 친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캠프를 이끌어 나갈 방향들을 회의하면서 점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준비 기간에 의욕도 앞서고 욕심도 나서 그런지 계획을 정말 타이트하게 만들었는데 캠프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과욕에 대한 후회도 조금 있었다.

첫날 인제에 도착해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오기 전,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음식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싶었다. 떡볶이, 전 등을 만들었는데 다들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밥을 먹고 서로를 소개하면서 이름을 외우고 어색함을 깨면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들이 준비한 한국문화 체험과 문화교류 등을 하면서 평일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자유시간도 같고 인제 주변 관광지와 DMZ 체험들을 했다. 그렇게 2주일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런데 그 2주일이라는 시간의 기억이 23년 살아온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신청했던 것 같기도 하다.

캠프 전 나는 영어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 전혀 없었다. 그냥 한국 직장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다. 그런데 한국 참가자의 영어 실력에 한번 놀랐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에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를 존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보고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존중하며 세계관, 시야를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캠프가 끝난 현재 나는 조금의 변화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이번 캠프에 가장 고마운 점은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는 것. 그 다음 나에게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한상일

첫 번째 국제자원활동인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외국에서 태어나 3살 때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해외에서 생활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없지만, '나는 해외에서 태어났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한국 밖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워크캠프 활동은 제게 해외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궁금증,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하던 영어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말 값진 경험이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조금 막막했지만, 덕분에 활동에 더 주도적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았던 덕분에, 참가자들 간의 유대가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문화권과 상대방의 문화권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덕분에 각자의 문화와 의견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차이 속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공감대를 가져오는 등,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캠프는 '시야를 넓힌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GOJA, Ioana Gabriela

My experience in Korea, my summertime in Inje Workcamp hel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t has been more than one month since I was back in Romania and everything it is still fresh in my mind and soul…it's like it happened yesterday.

I remember before arriving in Korea a lots of feelings were trying me, enthusiasm and fear, I did not know what to expect, but when I arrived there everything has changed…everything was so simple, beautiful and peaceful.

Even now when I am writing this essay I am thinking that I was so lucky that I have been selected to take part in Inje Workcamp. At the beginning I was afraid just thinking how close I was to the DMZ, but I have discovered a peaceful place with friendly people….people who through their actions and way of living are doing everything to live in peace and in harmony with nature, environment and society.

Even though, sometimes were moments when I really felt myself like a foreigner there…and now looking back I had all the right to feel myself like that…and this is because I found Korean people very respectful and conservatives, they know how to treasure their traditions, they show respect to the environment and to the human beings and they are expecting foreigners to share their values too…and I found this to be the most appreciable thing. Based on their lifestyle, I have learned to be more respectful, to appreciate more my traditions, to do everything I can to protect the environment.

All the activities at which I was participating, like: farming within educational

centre "Peace Life Valley", intercultural classes with high school students and primary grade students, Korean traditional games, Korean traditional dance lessons and cooking evenings, all this things will be memorable experience for me that I will never forget. I really enjoyed the time spent with the students and I hope that through my knowledge and my experience shared with them, to be a small part in their future decisions.

I would like to thank you UNESCO for the great opportunity that you gave us to take part to this educational program, because we were not simpl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rying to spend two weeks together in Korea, we were nations connected through this program by the desire to learn how we can better protect the environment, to learn Korean culture and history and to contribute to the well being among nations.





MARTIN, Adriana

It's been so long since I returned home from the Workcamp in Inje, Korea, but the memories are still fresh and everything seems to have happened just yesterday. I remember how nervous I was when I first met the other volunteers at the UNESCO House in Seoul. I was clumsy, tripped a few times and couldn't remember any names. But it didn't take long till the wonderful people I came to know there found their way into my heart and became my family for two wonderful weeks.

We shared experiences that were new for most of us, such as creating flower gardens, cleaning the weeds near the apple trees, or even creating an ecological water mill in a nearby village. It would've been difficult if we hadn't worked together, but everything always turned out all right because we were there for each other. I find it amazing tha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managed to create such a strong connection, which enabled them to do so many wonderful things. This shows that it doesn't matter whether people come from different cultures, what brings them together is the will to do something good for this world and share their knowledge with others. Therefore, I'll always cherish the lovely volunteers and the unforgettable memories I have with them.

We also had the chance to play some really fun games which brought us closer, and even go on trips, my favourite of which being the one at the 4th Tunnel. There, we were able to gain a deeper insight into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unique land of contrasts.

One of the most special activities in the Workcamp was, in my opinion, learning how to dance and sing Korean Traditional songs from Mister Ji Seong Cheol. His passion was so contagious that it made us all fall in love even more deeply with the Korean culture. To me, this new experience was so interesting that though a month has passed, I still find myself sometimes singing Teacher's songs without even realizing it.

Though my Korean is pretty bad, I appreciate that everyone encouraged me to learn and talk as much as I could. As one of the awesome volunteers put it, the best thing about learning is that you can also teach others what you have learned, so I'll make sure to share all the beautiful memories and new insight that I gained from the Inje Workcamp with my friends in Romania.

In the end, I came to realize that I see the world in a whole different way now. The person that left her home for Korea is not the same with the one who returned. Before, I had only known and understood my own part of the world. But after spending time with people from such different lands, I was able to see the other side of the coin as well, to view the greater picture that makes humanity.

Thus, I am and will always be grateful to have been given a chance to come to the Inje Workcamp, so I am really thankful to UNESCO and the wonderful people in the Peace-Life Valley who welcomed us as their guests. The experience is unforgettable and I can't wait to come back to Korea someday in the future.





ZHOU, Shenglin

I am very happy as a volunteer to visit Korea hel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t is a great experience for me,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to go abroad and the activity here was wonderful. I learned a lot from this trip and make so many kind foreign friends. All you guys here gave me a good memory, thank you guys again.

21st of August I arrived Soul. We, volunteers came different countries, gathered in the Korea UNESCO HOUSE. So excited and a little nervous, it was first time I met so many foreign friends who I would live with for half month, and then we departed as three team to go to different area.

So what did we do during the half month? We put our whole hearts into the work of building garden, cutting grass, and using picks, shovels and gloved hands to harvest apple from the tree.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which I will never forget even in the distant future. Such a nature experience. Besides, we also had other activities, like cultural exchange, learning Korean history and culture. Through the activity, cultural exchange, my eyes opened, and I know more about other countries(Korea, Japan, Romania, Kenya, Oman and so on), thoughts from different culture.

I learn a lot from our talking with the chairman in the workcamp who has a deep belief in Taoism, which is another important meaning for me about this trip. I like the idea, save water, save food, save energy. I will use it as my guideline for my life, and we should do our best to protect our environment.

There is much credit to be given around for this splendid experience, not least of all a big thanks to UNESCO for having had the will and the desire to set-up such an educational program in the first place. I must thank the Korean volunteers Jun Soyeong, Jung Munkyu, Han Sangil for their effort, and for being such great hosts to their foreign guests (including me). I must thank the DMZ Work-life Valley Foundation for their hospitality and guidance during the workcamp. Ok, the most important is here. We all know we have only one life, thanks for all you guys turn up in my life and give me such a wonderful memory. I will miss you everyone.





T O N G Y E O N G



구창훈

유네스코라는 세계적인 단체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워크캠프를 지원하였고, 선발되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사전답사를 통해서 파악한 후 대략적으로나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시작되고 한국인 캠프들은 미리 도착하여 외국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환대해 주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로 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통영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어 덕분에 빨리 외국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업무인 계단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풀이 무성한 산길을 다지고 다듬으면서 계단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날씨까지 덥고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계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각국 소개 및 전통놀이를 같이하였고, 비정상회담식의 토의로 해양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역 학생들과 한 교육은 정말 뜻 깊고 서로 많은 것을 얻고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분들과 식사를 하며, 계단 완공식을 통해서 저희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유 시간에는 워터 파크를 갔었고, 장을 보면서 전통 시장도 구경해봄으로써 일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매일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각 나라의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캠프가 끝나는 날 헤어질 때 우리는 모두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하나가 된 느낌,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처음인 외국 친구들이 좋은 기억을 가져가서 캠프를 진행한 리더로서 그 부분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병주

외국인 친구들이 오기 전 저를 포함한 한국인 참가자들은 하루 일찍 통영 세자트라 센터로 모여 다음 날 도착하게 될 외국인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숙소 규칙과 생활 규칙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끼리의 첫날 합숙 때 한국인 참가자들끼리 마찰이 있었으나, 대화로 잘 해결하였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먼 여정 후 센터에 도착한 21일 저녁에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첫째 날 밤입니다.

매일 아침 선촌마을을 한 바퀴 돌며, 쓰레기를 주우면서 마을 어르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며 반가워 해주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요 활동인 계단 만들기라는 힘든 활동을 수행했지만, 일하는 중에 모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전 답사도 하였고 계단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작업량이 방대하여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모두 힘을 내어 각자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단 만들기를 위해 목재 수집을 해야 했습니다. 통영 세자트라 센터 주위에 흩어진 계단이 될 만한 나무를 장정 5명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정 5명 외에도 통영 세자트라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턴피디님 그리고 피디님도 계단 만들기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든 계단 만들기 작업을 뒤로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통영 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순신 공원에서는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 뜨거워 걸어 다니는 데 힘들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동피랑 마을에는 매우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땀을 주룩주룩 흘리며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동피랑 마을을 둘러보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결국, 계단을 완성하였습니다. 처음 구간부터 5구간까지 올라와 봤을 때 있었던 수많은 수풀을 언제 다 제거하고 계단을 만드나 막막했었는데, 외국인, 한국인 캠퍼들이 힘을 모아 수일에 걸쳐 계단 만들기를 완성한 후에 그 계단을 내려갈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주말을 이용하여 워터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계단을 만들고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워터파크가 더 즐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영 시장님께 초청을 받아 센터장님, 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통영시청을 방문하여 통영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영시장님의 외교관으로 근무하셨던 이력 때문에 대화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해산 날, 버스 출발을 몇 분 전까지도 헤어지기 정말 아쉬웠습니다. 캠프 후에 한국을 여행하는 친구들은 며칠 더 함께하기로 하여 아쉬움이 덜했지만 바로 가야만 하는 외국인 친구들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힘들어 매우 슬펐습니다.

캠프 후 느낀 점은 지구에 정말 다양한 삶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현 지구촌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서 후회가 없고,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시 만날 멋진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통영 RCE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중에 꼭 다 함께 통영 RCE 센터에서 재회할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여경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워크캠프는 졸업 전에 반드시 경험해봐야 하는 꿈의 활동이었다. 그래서 2015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를 떠나기 전 나는 통영이라는 낯선 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여름을 보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다. 이후 사전답사를 통해 캠프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숙지하고 SNS를 통해 외국인 참가자들과 워크캠프를 준비하면서 나의 설렘과 에너지는 더욱더 커져만 갔다. 마침내 본격적인 워크캠프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방문한 통영 RCE 센터는 '세자트라 숲'이라고도 불렸는데 ' 세자트라'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천하는 세자트라 센터에서 나는 총 14일에 걸쳐 공존의 삶을 배울 수 있었고, 이 같은 경험을 크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사람 대 사람의 공존'으로 나누어 되돌아보고자 한다.

먼저 통영 RCE 센터 내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 규칙들을 정해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센터에 도착했을 때 센터 분들이 세자트라 숲의 다양한 규칙을 설명해주셨는데, 그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항상 개인 컵과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과 3단 설거지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3단 설거지는 매 식사 후 친환경적인 세제만을 사용해 총 3번의 물 양동이에 걸쳐 설거지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3단 설거지의 위생적인 부분이 걱정되었지만, 캠프 기간 3단 설거지를 실천하니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센터에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실천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센터 뒤에 자리한 산속에 친환경 계단을 짓기로 계획했다. 통영 RCE 센터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센터와 텃밭 사이의 가파른 숲 속 길에 아이들을 위한 계단이 필요했다.

계단 건설에 앞서 참가자들과 함께 계단이 세워질 산에 올랐을 때는 모두의 말문이 막혔다. 허리까지 자란 풀과 가시나무를 헤치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온몸이 말 그대로 흙투성이가 되었다. 또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자는 이전에 계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회의를 통해 계단의 제작방법과 재료를 정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대략적인 계단 밑그림을 정한 후 우리는 풀을 베어 숲길을 만들고 산속에서 나무를 모아 계단을 만들어 나갔다. 모두가 처음 해 본 일이어서 초반에는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량에 절망과 좌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 리더가 참가자들을 팀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도모했고, 참가자들은 서로 힘을 북돋워 주어 모두가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7월 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매일 산속에서 땀범벅이 되었지만, 계단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느껴졌고, 마침내 계단의 끝이 보였을 때는 외국인 친구들과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기뻤다. 이후 계단을 완성하고서는 모든 참가자가 모여 계단에 세울 나무 팻말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완성된 계단과 길에 '공존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각국의 언어로 친환경 계단에 대한 느낌과 소망을 적었는데, 이 문구들을 한데 모아 팻말을 설치하니 16명의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지며 그동안의 뿌듯함과 성취감이 배가 되었다.

이처럼 친환경 계단 만들기를 통해 깨우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외에도 나는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사람 대 사람의 공존'을 경험할 수 있었다. 먼저 통영 캠프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사이프러스, 오만, 터키, 멕시코, 베트남, 한국이라는 총 8개국의 16명 참가자가 모여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익혔다. 출신, 배경, 문화가 각기 다른 참가자들이 세자트라 센터에 모여 계단을 만들고 빨래, 청소, 식사 등 생활적인 부분들을 분담하면서 외국인 참가자들과 또 다른 한국인 참가자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식사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음식문화와 종교를 배려해야 했다. 친구들이 준비한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매일매일 외국에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특정 활동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충돌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비로소 다양한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우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통영 캠프에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공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기 전에는 센터 주변 마을을 청소하며 마을 주민들과 교류했고, 계단이 완성된 후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개발 교육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8개국의 참가자들은 통영 중· 고등학생들에게 각국의 문화와 전통놀이를 소개하고, 해양오염을 주제로 함께 비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을 준비하면서 나 역시 몰랐던 외국의 문화와 해양오염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지역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도가 놀라웠다. 끝으로 우리는 캠프가 마무리될 때쯤 교육에 참가했던 청소년들과 해안가 정화 활동을 펼쳤고 마을잔치인 세자트라 키친을 준비하며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즉,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처음 방문하게 된 통영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양오염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2주의 통영 국제워크캠프를 마치고 나서 내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길을 지나다니다 계단을 마주할 때면 나는 저절로 계단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땀과 노고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세자트라 센터에서의 경험한 공존의 규칙들을 떠올리며 개인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영 워크캠프는 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게 앞으로 학생들에게 ESD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강원

- 워크캠프를 가기 전에 든 생각

무(無)스펙에 가까운 참가신청서로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변변찮은 대답을 했지만, 최종면접까지 통과하게 되면서 기분이 좋긴 했다. 하지만 막노동에 가까울 수도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계획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다. 특히 사전답사를 가서 보았던 우리가 일해야 하는 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험난한 곳이어서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 사전준비

워크숍에서 우리는 친환경 계단 만들기와 지역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로 정했다. 먼저 계단 만들기는 제초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직접 산에서 구해와서 계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계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끼리 고민을 많이 해야 했다. 교육프로그램 또한 쉽지 않았는데, 지역 청소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고,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발표를 맡기는 형식이어서 그 친구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올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전반적인 생활수칙 같은 것은 젖혀두고, '캠프'가 아닌 오로지 '워크'에만 집중해서 계획을 짰다. 하지만 막상 외국인 친구들이 오자, 우리들의 한계가 드러났다.

- 1일차 외국 캠퍼들과의 첫날밤

첫날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었다. 처음 보는 외국인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녁 식사 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프레젠테이션과 문서작성을 요구하면서 한국 캠퍼들은 외국인 친구들을 뒤로한 체 문서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짧은 소개 시간이 끝나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바로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이 과정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느껴졌다. 자원활동을 하러 먼 길을 온 친구들에게 충분히 환영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소중한 첫날밤을 이렇게 보내버려야 한다는 데 조금은 화가 났다.

외국인 캠퍼들을 인솔하여 직접 통영까지 와주신 박노성 인턴님이 자신의 워크캠프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알려주셨다.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계단 만들기와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워크'에만 집중한 나머지 '캠프'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날 밤, 한국 캠퍼들끼리 더 얘기한 결과, 이제는 좀 더 ' 워크'가 아닌 '캠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걱정스럽던 첫날밤이 지나갔다.

- 2일차 오리엔테이션과 통영 시티투어

전날 밤에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침이 된다고 바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우왕좌왕했고, 단체와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일정이 조금 틀어졌다. 먼저 아침 식사 문제. 우리는 워크숍 때 일을 하게 되면 아침을 꼭 먹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다 같이 7시에 일어나고 7시 반에 모여서 매일 같이 아침을 먹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7시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아침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런 것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대한 빨리 우리의 생활수칙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잇달아서 단체와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겼다. 단체와 정한 일정에서 2일차 오전은 OT로 되어있었다. 우리가 생각한 OT는 그야말로 생활수칙을 정하고, 서로 이름도 외우고 그러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단체에서 생각한 OT는 단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단체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듣는 '통영 RCE센터 OT'였다. 그래서 우리는 9시에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그날 장을 봐야 해서 시급했던 음식문제(종교나 알레르기 등에 의한 못 먹는 음식 조사)와 전반적인 시간이나 일정에 대해서 외국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단체에서 마련한 OT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단체와의 OT가 끝나고는 통영 시티투어를 하게 되었다. 원래는 토요일 일정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통영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답사를 2 일차에 하고, 토요일에 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티투어를 하면서 한국캠퍼들과 외국인 캠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만약 첫날부터 일하게 되었다면, 우왕좌왕하던 우리가 제대로 외국 캠퍼들과 의사소통하고 일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투어가 끝나고는 식사 조가 모여서 메뉴를 정하고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장도 함께 보면서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돌아오니 아침에 있었던 회의시간보다 더 부드러운 상황에서 캠프의 전반적인 생활수칙에 대해서 미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날과 다르게 미팅이 끝나고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생각하던 외국인 친구들과의 캠프가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했다. 이날 나는 수첩에 '오늘만 같아라!' 라고 적었다.

- 3일차~5일차 계단 만들기 |

3일차부터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었다. 9시에 모여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마을청소와 함께 동네 주민들께 인사드리는 거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리고 '계단 만들기' 작업을 시작했다. 설명을 조금 하자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꼭대기를 교육용 텃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언덕이 아이들이 오르기에는 가팔라서 중간마다 계단을 놓아서 아이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우리가 이번에 그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제초부터 시작해서 재료도 산에서 구해 와야 했고, 계단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조를 나눠서 제초하고, 재료를 구해보니, 생각보다 일의 진척이 빨랐다. 제초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낫을 쥐여주고, 낫질을 알려주니 거의 반나절 만에 대부분의 구간의 제초가 끝이 났다. 빠른 속도에 우리 자신도 놀랐다. 저녁 식사 후 미팅 시간에도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박수도 쳤다.

그 다음 날부터는 조를 다시 나눠서 일부는 제초해놓은 길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일부는 실험적으로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 한 개를 만드는 데 한 시간 반이 걸렸다. 온종일 해서 5 개를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작업을 하자, 노하우가 쌓여서 작업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열심히 땀 흘려준 캠퍼들과 쌓여가는 노하우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보기 전에 미리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팀워크가 좋으면 즐겁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불볕더위 속에서 일 하는 우리에게 고생한다고 초복 때 삼계탕도 사주시고, 너무 더울 때는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점심 휴식시간을 늘려주신 통영 RCE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일하는 도중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외국 캠퍼들에게서 '아이스크림 가이'로 통한 주PD님께 여러모로 항상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8일차~9일차 계단 만들기 ॥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고 계단 만들기 작업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속도와 완성도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였다. 계단을 만드는 팀은 계속 계단을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단의 내구성을 높이고, 주변 정리를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 1시간 30분 동안 계단 한 개 만들던 우리가 이제는 계단 한 개 만드는 데 30분이면 충분한 실력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끝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9일차에 딱 맞춰서 전 구역의 계단을 완성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 만든 계단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때의 그 성취감은 잊지 못할 것이다.

계단이 완성된 날 미팅에서 우리는 계단의 완성을 자축하고, 계단을 만들어본 소감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눴다. 힘들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작업이 끝났으니 청소년 교육에 집중해야 했다.

- 10일차, 11일차 청소년 교육

외국 친구들이 교육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친구들이 열심히 해왔다. 문제는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분량이 많은 경우가 많았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친구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 포맷에 맞게 편집이 필요했다. 그 작업을 7일차부터 시작했고, 주 중에 저녁 미팅이 끝나고도 계속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계단이 완성된 날 밤에 모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하고 교육준비를 끝마쳤다.

10일차 오전에는 리허설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2 시에 청소년들이 왔고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은 외국인 친구들의 각자 나라 소개, 외국 전통 놀이 체험, 각국의 바다와 해양오염에 관한 비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행히 참가한 지역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을 보여줬고, 덕분에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교육 둘째 날이던 11일차에는 유네스코 신미아 팀장님과 박노성 인턴님이 통영에 직접 내려오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셨다. 신미아 팀장님께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마웠고, 박노성 인턴님이 전통놀이 체험에 참여해주셔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할지, 어떤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 친구들이 발표하게 되면 통역을 어떻게 해줄지도 고민이었다. 하지만 막상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우리가 외국인 친구들에게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부담감을 안겨줬지만, 모두가 책임감 있게 준비를 잘해줘서 감사했다.

- 12일차 마지막 워크데이 -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해양 정화활동, '공존의 길' 오프닝 행사 및 행사 음식 준비

마지막 워크데이였던 12일차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교육에 참여했던 지역 청소년 중 희망자들과 함께 센터 근처의 바다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했다. 외국인 친구들과 만난 게 재밌었는지, 교통 외지이면서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가 참여해줘서 고마웠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공존의 길' 오프닝 행사 준비와 그때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여러 나라 음식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만든 텃밭 가는 길을 '공존의 길'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공존의 길'을 만든 기념으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고, 여러 나라 음식도 나눠 먹는 행사를 하였다.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했다. 또한, 오전 해양 정화활동에 참여했던 지역 청소년들이 음식 준비며 행사 준비까지 도와주고, 행사도 같이 즐겨줘서 고마웠다. 오프닝 행사가 끝나고 각국 음식을 시식해보는 시간에 스페인 친구들이 만든 '샹그리아'를 한잔 들고 우리가 만든 텃밭 가는 길, '공존의 길'을 다시 한 번 올라가 보았다. 우리가 땀 흘렸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텃밭까지 올라가니 감회가 남달랐다. 행사가 끝나고 모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즐거웠고, 그날 밤을 즐겼다. - 캠프가 끝나고...

사실 아직도 조금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그 여운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같다. 캠프가 끝나서 아쉽기도 하고, 지금 안 보면 또 못 볼 것 같아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서울과 부산에서 함께한 기억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한 명씩 비행기 타러 떠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인사를 나누며 뜨거운 포옹과 함께 웃으면서 헤어졌다.

여전히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하고 있으며, 채팅을 통해서 만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외국 친구들의 자국에서의 삶 또한 여전히 흥미롭다. 앞으로 꼭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이렇게 계속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해외경험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외국어 공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폭넓게 가져보고 싶다.






채수아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신나게 놀기도 하고 힘든 일도같이 하면서 정이 많이 쌓였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 눈물이 저절로 흐를 정도로 슬펐다. 순수하고 배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운 점도 많았다. 또 솔직한 면, 가식은 없지만, 예의는 있는 점 등….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다르고 불편하고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똑같았고 오히려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 돼 사이가 더 좋았다.

자기 나라의 음식을 서로에게 선보이는 점심, 저녁 식사 자리도 뜻깊었다. 특히 식사 전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우리끼리지만 우리만의 격식을 차린 절차로 느껴져 더 좋았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서로의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프랑스 친구는 잘 방, 빵 그리고 와인, 터키 친구는 매일 맥주를 줄 것이고 화장실에 10년을 재워준다고 했다. 오만 친구는 잘 방과 식사까지 다 제공해 준다고 했다. 나도 역시 숙박 제공과 관광을 약속했다. 휴대폰에 녹음했고, 그것을 공유했다.

사실 캠프 중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그 약속을 했을 때가 제일 재밌고 신났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조만간 꼭 외국에 가려고 한다. 살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 기분을 느끼고 배우러.



최동연

방학 기간에 스스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네스코 워크캠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워크캠프',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자원 활동' 모두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워크캠프에 참여하기 전, 한 가지 확신했던 건 '내가 직접 힘을 쓰는 것이 나 자신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겠구나.'였습니다. 합격한 이후, 팀 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워크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계단 만들기, 마을청소, 해안가 청소, 어르신들을 위한 세자트라 키친, 해양 오염에 대해 토의해보는 비정상회담, 문화교류, 문화놀이체험, 각 나라 소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쉽게 먼저 나서서 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은 계단 만들기였습니다. 직접 손을 써서 계단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점, 자원해서 진행한 활동이라는 점이 워크캠프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밟고 다녔던 계단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반성과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공존은 또 다른 공존을 낳는다.' 계단을 완성한 후 가장 많이 떠올랐던 문구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만든 계단이 계단을 올라갈 누군가와 다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일일지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 워크캠프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했던 워크캠프가 세계가 서로 소통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더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이지만,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토익점수 하나 없는 제가 '과연 외국인 참가자가 많은 이 워크캠프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다른 배경과 생각을 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는 워크캠프가 제게 걱정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건물 안에 있었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 외국인들보다 앞서서 워크캠프를 진행해야 하는 한국인 참가자가 단지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라도 좋으니 성실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을 때, 워크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였지만 그 이상의 회화능력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신기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비록 2주였지만 회화능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열고, 어떻게 먹는지가 결정되었을 때, 다음의 제 모습이 결정되었습니다. 워크캠프 전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면, 통영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을 제대로 사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열고 소통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자주 쓰는 회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할 때 남들보다 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워크캠프라고 확신합니다.

비빔밥! 다채로운 재료가 들어갔기에 맛있는 음식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2주 동안의 힘든 일들을 같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이번 워크캠프는 비빔밥처럼 알차고 맛있었습니다. 다음 워크캠프 때, 혹시 저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걱정해서 스스로 작아지려 하는 분이 있다면, 부딪쳐 볼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캠프를 통틀어서 국내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적은 20살의 대학생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형, 누나들과는 다르게 첫 대외활동이었던 저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대외활동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워크캠프였다는 것에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계단도 만들고, 해양 오염에 대한 외국인 친구들의 다양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고,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진정성 있게 일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계단 하나 만들고, 해안가 청소하는 일 등등 돈 주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 문득문득 생각했지만, 이번 워크캠프가 끝났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만들어 가는 세계평화, 대화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음에도 워크캠프가 사라지지 않고 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든 곳에 가서 자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직접 나를 위해 힘이 되었다고 느낄 때, 왜 세계적으로 워크캠프가 아직도 있는지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워크캠프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기회(CHANCE)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실천할 자세만 있다면 워크캠프는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기회(OPPORTUNITY)입니다. 제게는 좋은 기회(OPPORTUNITY)일 수밖에 없었던 워크캠프였습니다. 문화교류의 고정관념도 바뀌게 되었고,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두려움도 극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후회가 없었던 국제워크캠프였습니다. 모두 감사했고, 서로의 롤링페이퍼에 남겼던 말 '공존은 또 다른 공존을 낳는다.' 처럼, 훗날 서로 다시 만나서 워크캠프를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영

이 보고서를 쓰면서 캠프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처음에 지원할 때는 부담 없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막상 면접 때가 되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더구나 내가 사는 '통영'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더 열정이 생겼다. 면접 때, 나를 '통영의 딸'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난다. 캠프기간동안 내가 내뱉은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2주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고,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팀도 미리 다 정했다.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의견이 오갔다. 그래도 외국인 참가자들이 도착한 후 다 함께 시티투어를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가이드께서 통영 관련된 역사를 상세히 알려주셔서 이 지역 사람으로서 참 감사했다.

총 7일간 계단 만드는 작업을 했다. 제일 먼저 풀을 베고, 큰 돌들을 빼서 땅을 평평하게 했다. 그다음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은 여자들이 하고 계단을 만들 재료인 나무를 구해서 자르는 작업은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 일을 배분했다. 평탄화 작업 후 본격적으로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솔직히 우리도 하면서 완성하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다행히 완성했고 또 푯말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뿌듯한 시간이었다.

계단 작업이 끝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청소년 ESD교육'과 '세자트라 키친'이었다. 앞으로 4일 남았는데 말이다. 참 막막했다. 그래도 막상 해보니 안 되는 것은 없었다. 외국인 친구들이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한국인 참가자들이 미리 짜놓은 구상안을 함께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틀 동안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과 함께하니 더욱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각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호응도 가장 많았다. 총 3가지 코너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나라 소개, 나라 문화체험(게임), 비정상회담(토의)이었 다. 마지막 '비정상 회담' 시간에는 각 나라의 해양오염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때는 한국 참가자들이 통역을 같이 해주었는데, 내게 기억에 남는 나라가 '사이프러스', ' 프랑스', '오만'이었다. 사이프러스는 바다거북이 해변에 있는 호텔이나 빌딩의 불빛 때문에 바다로 향하지 않고 육지 쪽으로 와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을 함께 보여주었다. 내가 중학교 때 관심 가졌던 부분이어서 이해도 더 잘되고 Lydia 가 필요했던 부분을 잘 도와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 프랑스와 오만도 내가 통역을 맡았던 나라라 그런지 기억에 남는다. 두 나라 다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좋았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프랑스를 맡았던 Celeste는 급하게 완성해서 분량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거의 즉석에서 말하고 통역하는 수준이라 처음 해보는 나에게는 약간 진땀 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친구와 마음이 맞아서인지 둘째 날에는 순조롭게 잘 끝내서 둘이서 엄청나게 뿌듯해 했다. 오만은 첫날은 Mariam이, 둘째 날은 Huda가 했다. 예상치 못하게 발표자를 바꿔서 좀 당황했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스타일로 내용 전달하는 것이 흥미로워서 기억에 남는다.

어느새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치고 나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주간 써놨던 수첩을 보니 그때 참 많이 아쉬웠나 보다. 별의별 다짐이 다 적혀있었다. 이 친구들 나라 언어 다 배워야지, 돈 모아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야지, 편지 써야지 등등…. 헤어지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하루는 스페인에서 왔던 Helena랑 Patricia가 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뜬금없는데 그때 밤이어서 그랬는지 주저리주저리 대답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살고 각자 다른 전공이지만 취업 걱정하는 건 세계 공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 중에 지나가던 Lydia가 동참해서는 자기도 확실하지 않다고 동감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얘기할수록 참 많이 다른듯하면서도 같은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 사실 2주 동안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재밌었고 좋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고자 하는

이런 유사한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지원할 것 같다. 일하는 순간은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만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에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페인 발렌시아 이 세 곳에서 Celeste, Lydia, 그리고 Patricia와 Helena를 만나기로 했다. 단순히 참가자로 만나 친구로까지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JIMENEZ ORTEGA, Andrés

Are you interested in Environment, South Korea or UNESCO? Good news then, these workcamps are for you. It is all about the environment, during theses workcamps you are going to learn several way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ut also you'll learn about UNESCO and South Korea in General.

In my personal opinion the workcamp started as soon I got out the airport. Why? South Korea really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aking care of nature. Even in big cities like Seoul there are a lot of green areas. That was my first lesson, cities and nature can co-exist.

Anyways, let's talk about Tongyeong's workcamp. It was hosted by RCE (Regional Center of Expertise) of Tongyoung. This center was recently opened (May 2015), so it was the first time they held a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I must say they need to fix some issues that happened during the event, like some waste of time, but despite this they managed the workcamp very well and they were always generous with us.

Toungyeong's RCE is surrounded by Sejahtera Forest so the activities we made we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t. Picking up the garbage nearby, making stairs to ease the access of the forest or talk to students about ocean's problems were some of the activities we did during the camp.

All activities had their own challenges, but they all were rew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stair represented a physical challenge that we overtook by fully completing them. Talking about our countries and ocean problems we realized that it is an issue we need to solve through cooperation. Even picking up garbage and see the results of a clean street is satisfactory.

Most of the success of this workcamp is due the companions you meet and I must say in this aspect it was victorious. Staring from the Korean members, they knew exactly how to welcome us. They are kind people always willing to help and friendly, too! Foreigners had an incredible sense of committed not only in terms of work but also with each other's. Koreans and Foreigners formed a solid team that has the job done. It is amazing how much fun I remember and how in only fifteen days I got involved with every one of them.

The goal of the workcamps is to make aware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yes, they did it. But for every participant it is essential to apply the knowledge we acquired in our daily life. It would be a failure if the workcamp taught you about the importance of saving water and you after this journey waste it unnecessary. It would be a shame that after this you do not care about littering. So the real success of workcamps will depend how much good we can do after. It is time to realize world's obstacles will not be solved if we do not make something to fix it. I think that is the real objective of workcamps.





MICHAEL, Lydia

In summer 2015 I was able to experience a whole new different world. Always,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when they think about summer, they always think about holidays, beach, partying, traveling etc. But with UNESCO I had the chance to have a more proactive summer not only in the aspect of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a workcamp in order to enhance the community and provide lessons for sustainability for the locals as well as for us but also to learn and experience a whole different culture from my own and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 had the chance to participate at a workcamp in Tongyeong at the RCE Centre. It was truly an amazing experience. We were 9 international volunteers and 7 Korean but I sincerely believe the world does not have any boundaries. It's true we had our differences as being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but as human beings we all have the same feelings and we honestly were able to connect from the beginning. We were able to work together lik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us and we could share our culture and be accepted for who we are.

Our work was hard but it was an experience where in the future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achieved something with our own hands. Our workcamp lasted for 2 weeks. At the beginning we had to make stairs for the Sajahtera Forest which surrounds the RCE Centre and they are meant to be for the locals of Tongyeong. It was hard work but we were able to finish them in time.

Afterwards, w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local students. Firstly, we, the international volunteers, we prepared presentations for our countries in order to show them our culture and history. Personally, I found it quite amazing because all the students were eager to learn about our countries and they were happy that

they could meet foreigners and share their thoughts. Afterwards, with the help of the Korean members we prepared presentations for water pollution in our countries especially pollution in the oceans. The interesting thing that really amazed me was that all the students wanted to learn about pollution and had many questions towards us and they all tried to understand better what pollution is, what the environment is and who is responsible for it. The reason that I was amazed is because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are not only regional neither national, they are international and young students cannot understand the gravitational influence they have in our world but the students that participate in our program were able to understand through us.

Furthermore, except from learning about the environment and pollution we had the chance to share our culture with the students through traditional games from our countries. We separated into 4 different groups as well as the students separated into different groups in order for them to try all the different games we prepared. I think during that time we were able to get closer to the students, talk to them and what I personally like all the students talked to us about their dreams for the future, their studies and their daily life. And in the end what we'll all remember in the future is the friendship that we created.

Meanwhile, every day we were cleaning the roads of the village from rubbish. But while we were walking around the village what made us happy, especially us the international volunteers was the smile of the local people and how happy they seemed when we were saying 'Annyeonghaseyo'. Lastly, after we finished all the work and the presentations we organised the opening of the stairs we created.

Firstly, we went to clean the beach along with students from whom there was a lot of positive response. Then, we went to prepare traditional food for the opening ceremony with the help of the students. I think that day will remain in our memories forever because it was the opening of all our hard work but also the opening for the reason we were in Tongyeong, and the reason we all became friends. They are the stairs that made us tired, sad, mad, and happy and stairs that made us love not only Tongyeong but also Korea and the locals. That day was the last day of all the work and responsibilities we had.

The next day was our last day. But it wasn't a sad day. We had the chance to celebrate the end of the workcamp by going at an ocean park. It was an awesome day, it was so much fun. We were able to let all out and be happy for completing our tasks and giving something to the community of Tongyeong. But as I already mentioned, it was not a sad end. By going to Tongyeong RCE Centre we were able to meet each other and make amazing memories that will always remain in our minds and then one day they will become stories for our children whereas we will be able to tell them with a smile. Also, I'm glad that today I can say that I gain 15 friends and I now have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I want to thank Korea UNESCO and Tongyeong RCE Centre for giving me this amazing opportunity.



KOREA-JAPAN DMZ



소병훈

먼저, 일본 참가자와 함께 진행하는 캠프여서 우려가 컸다. 한일관계의 냉기류가 캠프에도 당연히 전해질 거라고 여겼고, 첫날 소개하는 시간에 마스크를 낀 일본 참가자도 있었으니…. (뭔가 한국을 싫어해서 마스크를 낀 거로 생각했다. 물론 편견이었지만) 어쭙찮게 리더를 맡은 입장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첫날부터 머릿속이 복잡했다. 보통의 극우 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40대 이상의 멤버도 있었고 나는 이분의 행동반경을 상당히 걱정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치졸한 편견이었음은 이번 캠프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내가 한국을 싫어해서 마스크를 낀 것 같다고 생각했던 Saki는 누구보다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고 여리고 순수한 친구였다. 캠프 기간 중 발생한 비상상황에 눈물을 보였던 여린 감성의 소유자에게 나는 지금도 처음 했던 그 오해가 미안하다. 그냥 감기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쓴 마스크였는데, 외형만 보고 판단했던 내 수준이란…. 그리고 Yoshiaki씨, 캠프 내내 소탈한 모습으로 많은 웃음을 주었고, 민감한 소재에 관해 토론을 피하면 결국 이 문제는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촌철살인을 남겨준 분이다. 술을 많이 좋아했지만, 나름의 원칙으로 낮술은 절대 안 하시는 철저함과 술 한잔 딱 하시면 어디든지 잘 자는(;;) 얌전한 성격 덕분에 무슨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많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고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정 계획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자주 바뀌었고(특히 식사 관련), 담당자도 해당 기관에서 바뀌어 버렸고 그렇다. 식비 관련한 문제는 서로 민감한 것이라 최대한 아껴서 살자는 독려도 한 두 번이지 싸움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었다. 또, 일정이 마무리될 때 그들이 어떻게 서울로(또는 인천공항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수단 강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도 않았던 것은 명백한 주최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모집만 해 놓고 거의 모든 부분을 캠프 참가자들이 하게 하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자유와 자율은 엄연히 다르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에 속박되는, 일명 자발적인 속박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합당한 것이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휙 내던져져 있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자율도 아닌 그냥 혼돈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워크캠프의 워크는 잘 진행되었지만, 캠프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역시 이것 때문이다. 나는 최소한의 리더의 책임감으로, 일본 친구들이 서울에 가는 것, 숙소를 갑는 것, 그리고 언제 돌아가는지, 그동안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고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잘 따라와 준 한국팀 팀원들과 함께 관광 가이드를 자처했다. 돈을 벌려고 했다면 돈을 받아도 될 만큼 성심껏 했고, 나는 그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이런 한국인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을 찾은 외부인에 대한 예의는 그들이 한국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한 행동은 그 예의의 일환이므로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캠프가 있다면, 이런 점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비용문제도 비용이지만, 그들의 행동반경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송준혁

8월 14일 아침! 내가 눈을 뜬 것은 오전 5시였다. 강원도 원통까지 가야 하므로 일찍 들뜬 마음에 버스에 타긴 했으나 5시간이 넘게 걸릴 줄은 누가 알았으랴…. 원통에서 워크캠프를 추천해 준 형과 함께 점심을 해결하고 합류하기로 한 다른 팀을 만나 같이 합류하고 원통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 도착했다.

산등성이에 있는 그곳은 녹슨 철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뜻밖에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저녁에는 일본팀과도 합류하여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 뒤 첫째 날은 그렇게 마쳤다. 다음 날부터는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일하기 전에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 아침 일과를 받았다. 아침 일과는 농촌체험활동이었는데 첫째 날은 농촌봉사활동의 단골메뉴인 갑초 뽑기를 시전했다. 설마 이번 농촌봉사에서도 잡초만 뽑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마음을 알았는지 그것보다 더욱 고된 활동을 겪었다. 사람 만한 잡초를 뽑거나 사과나무를 고정할 봉을 고정하는 등의 고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오기 전에 다짐하고 온 것이기에 힘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놀란 것은 일본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일본사람이면 역사 공부를 많이 받아서 역사적 지식도 뚜렷하고 한국과의 민감한 사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10일 동안 겪어본 일본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야기 하다 보면 한국사람이 일본사에 대해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사람들 자신도 자신들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지식은 풍부한 것 같다. 거기에 민감한 사항 특히 독도라던가 일제강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미룬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그런 시민의식에 감동했고 놀랐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이 직접 조사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면 매스컴에 뜨는 국가 대 국가 외교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다.

인제군에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시는 마을에도 방문했다.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방 안이 정말 말도 아니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면사무소 면장이 와서 수고하신다며 사진 몇 장을 찍고 돌아갔다. 처음에 저 사람은 대체 왜 온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같이 봉사하시는 어머님들께 물어봤더니 연례행사격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1년에 1번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바로 옆에 면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다. 1년에 한 번 오는데도 봉사활동 하나 안 하고 직원을 시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그런 것 말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교에서 수많은 사회복지학과라던가 정치학과 등 많은 사람이 전공을 살려서 공무원이 된다. 그러한 공무원들은 바로 옆에 고통 받는 사람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다. 이번 워크 캠프를 다녀와서 앞으로 민간외교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혜진

2015년 8월 14일~24일 강원도 인제 한일 DMZ 워크캠프! 처음 하는 활동이라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인제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공기도 맑고 깊숙이 들어와 주변엔 큰 건물들이나 사람들이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장보기를 마친 후 일본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일본 친구들을 만났을 땐 서로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첫날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손으로 잡초를 뽑는 거였습니다. 오전의 잡초 뽑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 1시쯤 '평화생명동산'을 둘러보고 DMZ에 대한 교육도 받고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어서 아침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답사를 떠났습니다.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을지 전망대'였습니다. 바로 가까이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방한계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어로만 설명하여 일본인 친구들에게 전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 땅굴을 갔습니다. 북한군이 뚫었던 터널을 발견하여 현재는 여러 관광객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야키소바와 샐러드를 해 주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워크캠프 중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자체식사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2번 정도로 일본 친구들과 서로 음식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아침에도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해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점이 좀 불만이었습니다.

워크캠프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일은 '행복 마을'청소였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을청소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니 청소가 끝나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스크를 나눠주시며 마스크 없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힘드니 모두 착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 할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 집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청소하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여의치 않아 마을주민들이 도와주는 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들을 처리를 못 하셔서 음식물이 썩은 냄새와 개와 같이 살고 계셔서 개의 냄새까지 할아버지 집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옷들은 개의 털과 냄새로 인하여 입기에는 불가능했고, 쌀과 양파 등 음식재료들은 썩어있어 먹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물론 한국인인 저희까지 이 집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이렇게까지 됐는데 주변에선 왜 빨리 도와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청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위에서 자주 할아버지 댁을 청소해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청소년 교류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의 방문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어서 일본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자 이 시간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유카타를 입고, 오코노미야키와 소바를 만들어 주었고, 한국인 친구들은 일본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워크캠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자유시간, 밥 먹는 시간엔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지려 게임 같은 것도 해보고 한국어도 알려주고 일본어도 조금씩 알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일 교류캠프가 끝나기 전날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친구들을 데리고 근처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속초까지 가긴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고생은 했지만, 한국 음식도 먹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은 헤어지기 아쉬워서 눈물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트러블이나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 즐겁게 캠프를 마무리해서 너무 좋았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웠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황예은

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 사실 전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앞섰습니다. '낯선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들과 함께 10일간의 캠프를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공용어가 영어인데 내 실력으로 의사소통이 될까?' 이런 걱정들과 함께 저는 강원도 인제 한국DMZ 평화생명동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첫날은 역시 예상대로 어색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을 이루고 다음 날 아침 바로 농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처음 농업활동은 잡초 뽑기였는데, 보통 풀이 아닌 제 키만 한 잡초들을 뽑아야 했습니다. 날씨도 무더워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일을 마치고 말끔해진 부지를 보니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모두가 모여서 개선사항이나 느낀 점을 말하는 정리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로부터 처음 나온 의견은 'Don't be shy'였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얼른 이 어색함을 깨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날 밖으로 외출할 기회가 있었고, 다이소에 가서 자유시간을 즐겁게 보낼 보드게임 몇 가지를 샀습니다. 그중 가장 즐거웠고 효과 있던 게임은 '부루마블' 이였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한 명씩 짝을 이뤄서 게임을 진행했는데 한번 시작하면 약 2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여가를 보냈습니다. 그 게임 덕에 초반보다 서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농업 활동 이외에도 오후에는 DMZ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을지 전망대, 땅굴, 산촌박물관, 한계령, 건봉사 등등 또한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계곡과 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캠프 기간 내내 차로 편하게 이곳저곳 데려다주신 계신일 부장님 덕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청년들뿐 아니라 54살의 일본인 아저씨도 함께하셨는데, 사실 캠프 전 어떤 분이 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편협한 사고를 지니신 분 이 실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모든 것은 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분은 이런 워크캠프 경험이 꽤 많으신 분이셨고, 각국의 젊은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기간 중 광복절이 있었는데, 그날 아저씨는 아마 일본이 한 달 만 더 일찍 패전 사과를 했다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분단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섞인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8월 15일은 광복을 얻은 기쁜 날이지만, 일본에는 패전의 날이기에 진심을 담은 아저씨의 말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캠프 중간중간 저희와 한일문제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려 말을 걸어주셨고, 토론 시간에는 잘 몰랐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강의를 해주셔서 영토분쟁 배경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츠나 라는 친구는 4년간 학교 영어교사로 일했는데 그만두고 해외 여기저기 워크캠프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를 보면서 많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취업이라는 부담감 속에서 웅크려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더 멀리, 넓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워크캠프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리더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모든 팀원이 배려했기에 행복했던 워크캠프가 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참가자 에세이





강동렬

이번이 세 번째, 녀석과는 구면이다. 해외봉사와 문화교류에 이어 워크캠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녀석에게 돌아왔다. 전에 가봤던 위앙캄과 비엔티안보다 북부에 있는 방비앵이기에, 녀석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니 다시금 설레어온다. 산간지역이니 날씨가 '춥지는 않을까?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가 출발한다. 사실 라오스도 라오스지만 아직도 서먹서먹한 팀원들과의 생활도 걱정된다. 해외봉사나 문화교류 프로그램과는 달리 오리엔테이션 때 딱 한 번 본 이 친구들과 아직도 어색한데 캠프까지 이동하는 4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는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스르륵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5시간 30분의 비행은 끝나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아열대의 습기와 쌀쌀한 밤공기가 엄습하며 라오스는 지금 자정이라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익숙하게 미니밴을 잡아타며 숙소로 향하는 길에 기사님과 흥정을 한다. "아이~ 빠이 낙호네섹 응언 돌라 타오다이?" 라오어로 말을 건네자 넌 누구냐 라는 눈빛으로 싱긋 웃으며 가격을 부른다. "사람이 많으니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무슨 소리냐 외국인이라 물가를 모를 것 같으냐" 등 작은 승강이를 벌이며 도착한 숙소에서 결국 불렀던 값의 2/3를 받는다. 그리고 내일 아침 동선을 확인하시더니 친구를 소개해 주신단다. 가격은 당연히 "더 싸게!"를 외치자, 졌다는 표정으로 씨익 웃고 시간을 잡아주셨다. 낯선 아열대의 달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침이 밝자 기사님이 재촉한다. 라오스의 싸바이 싸바이 문화는 어디 가고 약속 시각 30분 전부터 와서 재촉하는 기사님은 외국인을 능숙하게 다루는 베테랑이셨다. 이윽고 공항으로 이동하다 발견한 쌀국수집. 라오스에 와서 아침 쌀국수를 먹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쌀국수 한 그릇씩을 뚝딱 해치우고는 다시 차에 올라 방비엥 행 미니밴을 향해 달렸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거리는 이질적이다. 매연을 풀풀 날리는 중고 오토바이와 뚝뚝(오토바이를 트럭처럼 개조한 메콩 강 유역 국가들의 이동수단) 사이로 벤츠와 넥서스가 매끈한 이마를 들이민다.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역설적이게도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인민 동지들을 위한 공동작업을 통해 공동배분하던 시절은 지난 지 오래다.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되고, 특권계층의 권력 세습은 불문율이라 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공항에 도착하여 방비엥 행 미니밴으로 몸을 옮겼다. 3시간 정도 예상했던 거리지만 폭우로 인해 곳곳이 움푹 파여 결국 약속 시각보다 20분이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내리자마자 터미널의 아무나 붙잡고 전화를 걸으니 다행히도 금방 데리러 오셨다. 스쿨버스라 불리는 트럭에는 홍콩, 일본, 라오스 참가자들이 짐을 받아주며 화사한 미소를 건넸다. 우리는 마치 1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안부를 물으며 빠른 속도로 서로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경이롭게도 캠프에 도착할 때 즈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있었고, 내리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다를 떠는 모습에 코디네이터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표했다.

이미 도착하는 광경에서부터 나타났듯이, 우리 팀의 팀워크는 최고였다. 빠른 적응력과 왕성한 행동력에 무엇이든 해낼 수만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샘솟아 오르는 김에 각 국가의 친목게임을 섭렵하며 첫날이 막을 내렸다. 둘째 날 아침이 밝자 라오캠퍼의 근면함에 놀랐다. 사실 첫날 식사 당번을 정했고 3팀이 돌아가며 하루의 끼니를 모두 차리기로 하였는데, 식사 조가 반찬을 만들러 나갔을 때는 이미 밥을 짓고 있는 근면한 라오캠퍼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매일 매일의 새벽 화덕의 불을 지피며 밥을 짓는 라오캠퍼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중한 고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건물의 기반을 다지고 벽을 올리기 위한 시멘트를 만들 때도 마치 삽이 나이고 내가 삽인 듯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며 한 마리의 용이 춤추는듯한 본새로 시멘트를 만드는 광경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수없는 진지 공사에 입했던 대한건아들의 존경심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무언가를 돕기 위해 왔다고 착각하던 14인의 외국인들은 라오캠퍼들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건축의 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또 익히며 즐거움을 느꼈다. 라오캠퍼들의 기술력에 그저 우리의 인력을 보태며 하루하루 올라가는 건물의 모습을

배운 것이 있으면 되갚는 것이 인지상정. 훌륭한 건축기술을 전수받은 대신 무언가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한-중-일 참가자의 생각은 부엌의 위생문제에 대해 떠올렸다. 캠프의 부엌은 이용자의 다양성을 극도로 존중하는 구조여서 때때로 견공들과 소, 닭, 심지어는 말까지도 들어오곤 했다. 또한, 화장실과 불과 5걸음 거리에, 소각장과도 10걸음 거리였기에 입소하던 그 날부터 사소한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는 했다. 그러던 중 분리수거와 '업사이클링'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코디네이터에게 가소성 폐기물과 고철류, 플라스틱류로의 분류 창고를 제안했다. 코디네이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며 예산과 물자는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다. 이에 팀을 나눠, 한 팀은 소기의 목적이었던 실내 운동장 완공에 전념하고, 다른 한 팀은 그동안 배워왔던 기술을 총동원하여 분리수거장을 만들었다. 다행히도 능숙해진 손놀림으로 기한 내 완공할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송별식에 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다시 둘째 날로 돌아가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노력봉사를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문기술자인 라오캠퍼들의 지도편달 덕분이기도 했지만, 매일 오후 엔돌핀을 담뿍 나누어주고 가는 천사들을 만나고자 서두른 덕분도 있었다. 매일 아침 11시 즈음이 되면(첫날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학생들이 등장했지만, 그 수업이 썩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동네 꼬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옆에서 벽돌을 들어주거나 꽃을 꺾어주곤 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공사장에서 물리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작업을 마쳐야 했고, 그와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후 시간이(비록 침낭에 등을 누이자마자 곯아떨어질 만큼 탈진하더라도)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영어 수업을 위해 '곰 세 마리'와 ' 귀요미 송' 등 몇 가지 동요를 라오어로 준비해왔던 보람이 있게 아이들은 율동을 동반한 동요를 곧잘 따라 부르곤 했고, 여세를 몰아 영어 동요까지 가르쳐도 여유롭게 소화해내고는 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던 논어 말씀이 떠올라 아쉬웠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선생님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답은 역시 라오캠퍼가 제공해주었다.

실롱은 라오캠퍼이며 20세의 학구열이 넘치는 여성이다. 그녀의 꿈은 영어 선생님이고 그녀의 고향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을 나누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더 이상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학업중단 교사지망생들을 도와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램프의 요정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번 워크캠프를 다녀온 대한민국과 홍콩의 참가자들은 실롱과 같은 학업중단 교사지망생들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교사들을 양성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모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육은 빈곤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과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돋우어 주십시오. 그들과의 인연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관호

'설렘과 걱정'이라는 상반되는 두 감정을 갖고 8월 3일 티웨이 항공편을 통해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으로 향하며 인천공항을 떠났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기본적인 라오스 언어를 공부하였고, 방문경험이 있는 동렬이 형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방비엥 시내에 도착한 후 픽업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푸딘뎅 유스센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인 철골뼈대만 남아있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보였다. 가기 전에 모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잘까 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선 우리는 최우선으로 구조물 작업을 했다. 홈을 파고, 벽돌을 쌓고 나르며 시멘트를 발라 한 층 한 층 쌓아올렸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도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다들 분간이 안 가서 주춤하였는데 몇 번 보고 나더니 금세 잘 따라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조가 당번일 때 내가 작명한 '핫 스파이시 로스포크'라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이다. 하지만 요리도구들이 많이 낡아서 요리하는 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애를 먹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무리 청결을 유지하려 해도 줄어들지 않는 각종 벌레와 개미들이었다. 나중에는 다들 포기하다시피 그냥 쓰윽 훑어내고 요리하고 아무렇지 않게 먹고 했다. 다행히 음식으로 인한 배탈은 아무도 나지 않았다. 쿠킹팀은 총 3 개 조로 나뉘었으며 생각보다 내 음식의 반응이 괜찮았다!

라오스, 홍콩, 한국, 일본 참가자들을 모두 섞어 컴퓨터 수업, 영어수업 등 팀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했다. 나는 컴퓨터 수업을 맡아 라오캠퍼 썽(Sung)에게 영어 자기소개서를 함께 작성하고 출력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유스센터에서 지내는 라오캠퍼들은 현대문화를 잘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컴퓨터 다루는 것까지는 아직 미숙하였다. 다른 동네 아이들은 기초도 안 되어 있어서 본체, 모니터, 마우스 등등 기본 구조부터 가르치고 시작해야 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다. 평소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라오스의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잊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서들 나타나는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쯤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붐볐다. 정말 하나같이 다들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져 조금 씁쓸하기도 하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라오스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이런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캠프를 떠날 당시 네팔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고소식을 접하고 네팔의 구원단체에 응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우리가 직접 작성해보았다. 보드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다 같이 '위 아 더 월드'를 외치며 손을 흔드는 단체 영상도 함께 보냈다.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워크캠프에 오기 전,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교양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외국에 원조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때마침 라오스 워크캠프에 지원하는 공지를 보고 바로 지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다.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나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처럼 한 번도 해외봉사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전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역시나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 이라는 말도 있듯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매우 추천하고 싶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박근형

1학기 기말고사 전, '방학 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군대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는지라 어떻게 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낼까 한참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학교공지에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해외 봉사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고 당연하다는 듯이 신청했다. 하지만 워크캠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발표가 올라왔고,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절망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추가합격 전화가 와서 워크캠프 참가자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짜가 다가왔다. 당연히 나는 그곳에 '동생, 친구, 형, 누나들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형, 누나들만 계셨다. 그분들의 대학생활과 지원했던 서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선배님들처럼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마치고 안전교육 후 귀가하는 길에 이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집에 가서 한국인 리더 형이 라오스 문화와 언어를 정리한 파일을 주신 것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 든 의문점은 "과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또 밥을 손으로 먹는 문화를 실제로 본다는 것이 신선한 경험이 될 것만 같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8월 2일 인포시트의 준비물을 잘 챙기고, 마음의 준비를 한 뒤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 한국인 리더 형과 만나 너무 반가웠고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했다. 팀원들과 만나 비행기를 탄 후 라오스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외웠던 것은 가격을 깎는 말이었다. 밤중에 도착하고 바로 호텔로 출발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그때부터 언어의 벽을 실감했다. 의사소통 때문에 피로가 더해져 바로 침대로 가서 기절을 하고 다음날에 전날 밴을 태워줬던 분이 비교적 싼 값으로 방비엥으로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좋고 넓은 편이라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방비엥에 도착한 뒤, 미팅 포인트를 통해 우리의 활동지로 출발했다. 그곳엔 이미 라오스, 일본, 홍콩 친구들이 타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트럭에 타는 순간 만석이 됐지만,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다. 정말 재밌었고 캠프를 한껏 기대하게 하여주었다. 도착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그날만큼은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특히나 외향적이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기 시작했는데 특히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졌었다. 아무래도 유일하게 같은 또래 2명이 있었고 한국과 일본은 많은 관련이 있는지라 그만큼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고 통하는 것도 많았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일 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까지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운동장 건설을 위하여 기반을 다지고 시멘트로 벽을 세웠고 오후에는 컴퓨터 교실과 영어 교실로 나뉘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나는 건축에서 주로 삽질과 흙 나르기를 담당했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삽질을 제대로 해본 것이 처음이어서 정말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다. 오후 컴퓨터 교실에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영어가 가능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교육을 해갔다. 하지만 같은 아이들을 계속하여 가르치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를 알아 도움 없이도 수업진행이 가능했다.

또 다른 주요업무가 있었다면 바로 식사였다. 우리 워크캠프팀은 3조로 나뉘어 국적이 섞인 7명이서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을 담당하여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곳에는 버너가 충분하지 않아 불을 피워야 했는데 불을 피우는 과정이 1시간 정도 소요되어 요리 하나에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 또 일한 후 2시간 동안 불 앞에서 씨름하면 엄청난 체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식사시간에 모두가 허기진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찬 기분이 더 컸다.

7일이 지난 후 우리는 하루를 통째로 계획해서 방비엥 시내로 나갔다. 라오스를 와서 처음으로 관광하는지라 설레는 맘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꽃보다 청춘에서 나와 유명한 블루라군을 갔다. TV에서 영상이 정말 아름답게 나와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많은 서양 사람들과 그보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 많이 즐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라오스는 한국보다 5배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그동안 몸이 많이 피로해 있어서 잠이 들었고 정말 깊게 잤던 것 같다. 저녁으로는 라오스 캠프리더의 친구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분위기가 좋고 강가 옆에 있는지라 야경 또한 좋아서 밥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엔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을 보면서 돌아올 수 있었다.

봉사 기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일본인 남자인 친구가 해선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여 깊은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 친구가 문화적 차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나는 그 말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문화적 차이라 한들 사람들 사이의 예의에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있지만 간과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우리의 이해와 용서로 좋게 끝나긴 했지만 아마 계속해서 뇌리에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다. 떠나기 전 우리는 라오스 사원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보고 체험했다. 라오스에는 복지제도가 없어 사람들이 돈과 쌀 음식을 공양하고 스님들께서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듣고는 안타까웠다. 또 '바시 세리모니'라고 하여 마을 어르신들께서 우리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세리모니가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 본 우리에게 진심으로 그들의 언어로 축복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됐던 것 같다. 이 사원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캠프는 종료됐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다.

라오스는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다. 아마 내가 여행으로 왔다면 절대 느끼지 못할 것들 말이다. 첫 번째로는 여유이다. 그들은 '괜찮아'를 의미하는 '보뺀냥'을 연속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모든 일 들을 처리한다. 라오스를 가기 전까지 원래의 나는 느긋함은 나쁜 것이고 뭐든지 서두르고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고 햇볕이 강해도 일을 하지 않으며 천천히 하나씩 유쾌하게 해나가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걸 서두르는 '나는 과연 행복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두 번째는 웃음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웃음과 함께 한다. 무엇이든지 유쾌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수해도 ' '보뺀냥'이라는 단어를 통해 용서해줄 뿐이었다. 이 두 가지만 본다면 내가 라오스에서 느낀 가장 큰 것은 아마 행복이 아닐까 싶다. 사실 가기 전만 해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라오스 사람들의 행복은 나의 것과는 달랐다. 마지막으로는 구름과 별이었다. 고층건물이 없고 하늘이 정말 맑아 구름이 너무 뚜렷하고 아름답게 보여 아침에 산책하면서 본 구름으로 아침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했다. 또 별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별자리를 실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고 많은 수가 보였다. 이것 또한 맥주를 마실 때 안주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황홀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실 라오스에서 별, 구름을 보고 내가 '한국에선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ONE OF THE HAPPIEST MEMORIES OF MY LIFE)

박예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파견하는 라오스 워크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대학생 시절에 해외봉사를 한 번쯤은 가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때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면서 국제워크캠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봤는데 다른 해외봉사와는 다르게 워크캠프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 함께 생활한다는 점이 무척 재미있게 보였고 나는 지원 마감날에야 지원서를 넣었다. 합격발표날짜에 내 이름이 5명 명단에 없는 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도전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3일 후에 추가합격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뻤다.

라오스 워크캠프에 가기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국내외 워크캠프 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했었는데 그곳에서 라오스에 같이 가는 한국인 6명의 멤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만나기 전 SNS로만 대화하다가 처음으로 만나 서로 소개를 하면서 모인 각 팀원의 전공, 성격, 출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정말 다이내믹한 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을 실망하게 하지 않고 멤버들 모두가 협동해서 재미 넘치는 에피소드가 가득 담긴 멋진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 라오스멤버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라오스캠프에서 선보일 한국 음식과 또 어떤 선물을 사갈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고 라오스에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라오스로 출국하는 날까지 서로가 바쁘고 거주지역이 달라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SNS를 통해 라오스에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라오스 일상회화와 예절 등과 같은 정부를 공유하며 소통했다.

워크숍이 끝나고 2주 후인 8월 2일 날 라오스로 떠나기 위해 저녁에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출국 당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공항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었는데 일단 라오스로 떠나는 비행기를 무사히 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속력으로 뛰었던 기억이 난다.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에 자정이 다되어 도착한 후 예약했던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고 나서 홍콩, 일본에서 온 해외봉사자들과 만나기로 되어있었던 방비엔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했다.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 차선이 없이 우측통행이라는 관념만 가지고 많은 차들이 지나다녔다. 어른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린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4~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들까지 동반해 타는 모습을 보고 한국과는 다른 라오스의 첫 문화 차이에 놀랐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드디어 다른 해외봉사자들을 만나 앞으로 2주간 우리의 활동지가 될 Phodingdong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Youth Center로 향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의 길이 좁고 비포장도로여서 우리를 포함해 22명의 인원이 다 함께 가지고 온 짐들과 끼여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왔다. 큰 웅덩이나 돌출된 땅에 부딪힐 때마다 위아래, 양옆으로 부딪치며 모두 신음소리를 냈지만 처음 만남인 만큼 설레는 마음과 함께 조금 정신은 없지만 즐거운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짐을 여자숙소에 풀어놓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도시의 안락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진짜 농촌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겠다는 느낌이 왔다. 여자들이 지낼 숙소의 바닥은 아무런 바닥재가 깔려있지 않은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그곳에 얇은 매트를 깔고 각자가 가져온 침낭을 깔아서 자야 했다. 또 처음 들어왔을 때 바닥에 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3~4번 열심히 쓸어내야 했다. 여자 공용화장실은 하나였는데 재래식 변기가 있었고 샤워시설은 우물물과 연결된 호수를 사용해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바가지로 퍼서 씻고 물이 동나면 다시 채워서 썼다. 도착하자마자 이런 생활환경과 맞닿으니 과연 내가 라오스 농촌의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고 라오스로 워크캠프 간다는 말에 왜 굳이 사서 고생하려 하냐고 물었던 부모님과 친구들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지만 걱정도 잠깐!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현지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점이 나에게 무척 모험적으로 느껴졌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또 중학교 때부터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부분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실제로 내가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새롭게 배울 것에 대한 욕구가 힘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걱정을 수그러지게 했다. 2주 동안 라오스 농촌 경험을 하면서 자연과 상호공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몸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매일 좋은 공기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열대우림지역의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뻥 뚫어진 하늘에 사방으로 깔려있는 푸른 구름을 보고, 또 밤이 되면 맑은 공기로 인해 하늘에 수 놓인 반짝이는 별들과 어쩔 땐 은하수를 보면서 자연에서 산림욕을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 무엇보다 도시의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걱정거리들로부터의 해방될 수 있었다. 학교생활을 할 때는 내일까지 해야 할 과제와 여러 고민을 하루에도 수십 번했었는데 라오스에서는 정말 걱정거리 없이 내가 숨 쉬는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진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라오스 베이스캠프에서 우리의 일과는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 3 시간 집 짓는 일을 한 후 점심을 먹고 마을 어린아이들과 마을주민들이 영어나 컴퓨터를 배우러 오면 그때부터 1~2시간 정도 수업을 했다. 수업이 마친 후에는 아이들과 큰 잔디밭에 나가서 한국에서 어릴 때 주로 놀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게임들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처음 본 날에는 5~9세까지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낯을 가리고 라오스어로 이름을 물어도 선뜻 대답해 주지 않았었는데 2~3일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봉사자들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스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는데 처음 봤을 때 말을 걸어도 별 반응이 없고 얼굴에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서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영어수업이 시작되기 전 스삔이 와서 나를 포함해 영어를 가르쳐주었던 봉사단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한명 한명씩 이름을 수줍은 듯 웃는 얼굴로 불러주는 것을 보고 우리의 열심에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영어 알파벳도 기억을 못 했던 아이들이 손으로 알파벳을 가리켜 물었을 때 너무 잘 대답할 때, 또 영어로 읽어주는 단어들을 큰소리로 잘 따라서 발음할 때, 손동작과 함께 가르쳐주었던 영어 동요들을 아이들이 외워서 한목소리로 합창할 때, 매일 1~2 시간이었지만 혼신을 다해 가르쳤던 봉사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큰 보상과 기쁨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이스캠프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 동고동락했던 캠프 참가자들 모두가 어느새 가족처럼 친근하게 느껴져 가고 있었다. 문화적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본 참가자들보다 홍콩 참가자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는데 홍콩 참가자들 중 Hermia 라는 25살 언니와 15일 동안 친해져서 아직도 SNS를 통해서 연락하며 안부를 서로 전하고 있다. 여러 대화를 통해 소소한 연애, 친구 얘기에서부터 미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문화와 언어권이 다르지만,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신기했다. 홍콩참가 자중 Sze Tung이라는 언니와도 많이 친해졌는데 둘 다 기독교인이어서 라오스라는 이국에서 같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 사실 라오스캠프에 오기 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주일성수를 해왔기에 98%가 불교신자로 구성된 라오스에는 교회가 없지만 혼자서라도 짧게 예배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Sze Tung언니와 함께 일요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눌 수 있었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신했다. 이렇게 홍콩 언니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 라오스 현지인들, 그리고 같이 간 한국멤버들과 같이 요리하고, 집을 짓고, 어린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정이 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라오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조금은 있었지만 다들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참가자들을 반겨주고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려는 모습이 고마웠다. 여자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Xee Lor이라는 20살의 라오스 여자아이와 친해질 수 있었는데 공부에 대한 의지는 넘치지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 보편적 복지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공산주의 체계인 국가에 살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 우리나라에 비해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산주의와 경제 빈국인 라오스에 대해 체감할 수 있었다. Xee Lor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캠프에 있던 다른 라오스 현지인에 비해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능숙하게 했다. 내가 어떻게 영어를 배웠느냐는 말에 현재 최종 학력인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읽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은 워크캠프봉사자로 몇 년간 활동하면서 이곳에 오는 여러 나라 참가자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습득했다고 했다.

Xee Lor이 학교를 다시 다닐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20살인 현재 중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까지 6년간 학교를 더 다녀야 하고 지금의 꿈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까지 진학을 해야 한다. Xee Lor과 대화하면서 라오스의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 군인, 의사와 같은 직업군을 선호하고, 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대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학업을 배울 시기를 놓치면 결국 라오스에서 가장 흔한 농민으로서 생활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전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배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사회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한국에 사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라오스에 갔다 와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워크캠프에 참여한 한국, 홍콩, 일본, 라오스 참가자들 모두 같이 지내면서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큰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밤에 하나뿐인 화장실에서 샤워하려고 모두가 줄을 설 때도 다음 날 아침 식사당번인 사람들을 배려해 서로가 마지막으로 샤워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해외참가자들을 배려해서 라오스 현지인들이 라오스음식을 만들 때 향신료를 조금 넣어 덜 자극적이게 만들어 주는 모습 등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의 행동 가운데 남을 위해 자신을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다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고 더 나아가 남의 일까지 도우려는 모습들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배려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남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또 대화하면서 각자 나라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점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한번은 일본 참가자들과 한국 참가자들이 대화하면서 'KFC(Kentucky Fried Chicken)'를 일상생활에서 부를 때 일본은 "Kentucky Fried Chicken"으로 한국은 "KFC"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의 명칭이 더 낫다고 장난으로 우기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다른 해외참가자들과 인연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한국에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다. 지금은 라오스 참가자들 모두 개인의 일상생활로 복귀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홍콩, 일본, 라오스 참가자들과 대화하고 있고 한국 참가자들과는 겨울방학 때 부산으로 다 같이 모이기로 기약 되어있다.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며 지낼 수 있는 인연들이 된 것이 너무 기쁘다. 갔다 와서 생긴 나의 목표는 해외참가자들이 사는 각 나라에 여행 가서 참가자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 되었다. 아마도 이번 12월 31에 홍콩으로 가서 홍콩 언니들과 신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장재현

라오스는 동남아시아(SEA)의 중심인 베트남과 태국에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인구 600 만 명 규모의 작은 국가입니다. 근래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지표를 나타냈지만, 상대적으로 라오스는 그에 비해 십 여년 뒤처져 있지요. 현재까지 사회주의공화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부독재하에 우민화 정책이 수십년간 공격적으로 진행되어 국가발전을 저해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꾸준한 물적 지원과 인적 자원의 파견으로 많은 라오스의 지역과의 MOU가 체결되었고 그 도움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국가였다가 최근에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한 '꽃보다 청춘'을 통해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저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휴양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선발된 7명의 한국 참가자들은 2015 AVAN Work camp에 참여해 14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전 안전교육지침에 따라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Youth Centre에서의 업무에 충실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 참가자뿐만 아니라 4개국에서 온 20명의 참가자 모두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7.17. 워크캠프가 시작되기 2주 전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시민학교 강당에 모여 다른 워크캠프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워크캠프에 대한 소개 및 개요,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당회의 교육 내용은 활동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었습니다. 특히, 워크캠프를 이미 다녀온 경험자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활동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워크캠프 활동 기간이 많이 임박해 있던 터라 참가자들과 함께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우선 업무였습니다. 워크캠프의 특성상 미팅 포인트까지의 이동에 관해서는 보호,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서 가장 시급했던 사항이었지요. 교육을 마치고 우리 한국 참가자들은 항공권 예매를 가정 먼저 확정을 지은 뒤 식사를 같이하면서 워크캠프에 필요한 물품 을 항목화 했습니다. 현지에 파견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공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숙소 및 교통편을 숙지해 둘 것

2. 현지 아이들을 위해 재활용 물품들을 후원받아 전달할 것 (펜, 공책 등의 학용품)

3.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홍보물을 후원받거나 갖춰 놓을 것

4. 한국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음식재료를 구매할 것

5. 비상시에 필요한 의약품과 응급상자를 준비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알아볼 것.

6. 현지 사람들과의 빠른 융화를 위해 현지의 언어를 익혀둘 것

개개인은 최소 한 가지에서 두 가지의 항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목록화-서류화-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준비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많이 길어졌지만, 캠프 날짜가 임박해 있었고 지방에 적을 두고 있는 참가자들이 있어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을 분담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7명의 참가자 전부 너무나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 먼저 나서서 일을 담당해주었고, 국제활동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참가자 '강동렬' 분의 아이디어와 제언들 덕분에 빈틈없고 꼼꼼히 대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희도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현지에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현지 상황을 100%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자부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예상치 못한 환경과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불편한 상황들에 적잖이 당황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소할 것으로 생각하며 준비했던 항목들이 의도치 않게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단히 준비해놓은 항목에 대해서 거의 현지 사정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참가자 중 한 명은, 특별한 의도 없이 두 개의 단소를 챙겨갔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현지 친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악기와 음악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요는, '무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정성껏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면 소지품과 가방은 최소화하고 현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겠습니다만, 워크캠프를 비롯한 국제활동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충분히 생존할 만큼만 챙기더라도, 세밀하고 작은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섬세한 관심과 준비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7.17의 워크숍 이후 다음 만남은 8월 1일 출국일. 공항에서였습니다. 그전까지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SNS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라오스 현지의 풍토 상황을 파악, 관련 질환 예방접종과 약을 갖추도록 지시, 점검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의 일상이 있는지라 점검 사항에서 지체되고 빠지게 된 부분이 조금씩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도와가면서 구멍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당일, 저녁 7시에 공항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출국 절차를 밟은 뒤 큰 문제 없이 비행기에 모두 탑승했지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각자의 명찰을 갈아 끼웠습니다.

저희가 선택했던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으로 국내 저가항공사 중 하나였습니다. 5시간 50 분의 비행에 2시간의 시간경계선을 지나서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고 나오자마자 예약해 두었던 호텔로 밴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호텔은 아주 넓고 좋은 시설이었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리셉션 직원들이 영어에 서툴렀던 탓에 체크인 수속을 밟은 데 적잖은 애를 먹었습니다.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불편함과 늦은 시간에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인지 라오스에서 첫날 밤은 모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노곤함이 풀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면시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에 방비엥의 meeting point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수도 비엔티안에서 방비엥까지 걸리는 시간은 4~5시간이었지요. 모두 7시에 일어나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타지에 도착하면 가지게 되는 부푼 마음과 잘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무장되어있던 저희 7명 모두는 피곤함을 감추고 미소로 서로에게 아침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희는 후원물품과 요리재료 등 준비해온 짐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비엥까지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날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용했던 벤 운전기사님의 명함을 받아 연락을 취하고 방비엥까지의 이동에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인당 \$9의 가격으로 합의해 시간적 여유, 편리함과 동시에 더욱 신속하게 방비엥까지 이동할 수 있었지요. 처음 저희가 기사님을 통해 전달받은 예상 소요시간은 3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시간은 4~5시간 정도. 처음 보는 라오스의 풍경은 창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으로만 너덧 시간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다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전원생활과 이에 어우러진 그림 같은 산, 그리고 하늘은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창이 야속해지게 하더군요. 순박하고 소박한 일상과 자연 속에서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밴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저희에게 의아한 시선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냐고.

라오스의 길은 대부분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차가 높은 속도를 낼 수도 없지요. 이동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 자체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또 이따금 소 떼가 길을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차는 소 떼가 길을 벗어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덕분에 차가 멈춘 동안은 바쁘게 눈을 굴리지 않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요. 2시를 훌쩍 넘어 3시가 다 되어서야 meeting point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늦은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었어야 했지만, 산길을 달리는 동안은 휴대전화 신호가 터지지 않아 연락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한국의 파견 당국과 현지 담당자 모두 속 꽤 태웠지 싶네요.

Meeting point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착한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을 태운 차량이 출발한 뒤였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취한 저희 때문에 차량은 가던 길을 되돌아왔지요. 30분 정도 뒤 트럭이 한 대 도착했는데, 이미 일본, 홍콩, 라오스 참가자들이 그 안에 착 붙어 앉아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덜컹거리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럭에서 바짝 붙어 서로를 의지한 채 1시간 정도 달리니 시골 넓은 들판을 가진 자그마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Phonsung Youth Centre이라고 작은 나무판자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Centre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네 칸짜리 방을 가진 긴 건물 하나와 전통 뒷간을 연상시키는 재래식 화장실 겸 욕실. 그리고 아슬아슬하니 대나무 기둥 네 개를 겨우 세워두고 천막을 걸쳐 놓은 부엌까지. 이색적이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금 막 터를 잡아 만든 주거공간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도착하기 10분 전부터는 우레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길바닥이 금세 수영장이 되었습니다. Centre 입구 안쪽부터는 흙바닥이고, 비가 온 탓에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었기에 우리는 밖에서 내려짐을 직접 날라야 했습니다. 우산은 집어던지고, 철조망 사이를 비집어 들어가 물건들을 차례차례 Centre 안으로 옮겨 넣었습니다. 서로 첫인사를 나눈 지 두 시간이 채 안 된 참가자들이었지만 서로 손에 든 물건을 들어주고 철조망을 벌려주면서 금세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며 짐을 나르는 동안 서로에게 오갔던 'Thank you'라는 인사말은 앞으로 2주 동안 서로에게 건넬 말임을 암시하는 복선이었습니다.

컴퓨터실과 회의실 겸 식당으로 쓰이는 다목적실은 남자 숙소와 같은 건물에, 여자들의 숙소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매일같이 들판을 가로질러 왕복해야만 했지요. 8월은 라오스의 우기가 한창인 기간이라 땅이 항상 젖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숙소를 다녀오면 발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의 남자 참가자들은 도착하여 짐을 풀자마자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진흙 길을 무사히 건너기 위한 돌다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쓰다 남은 벽돌과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한 바위를 골라 옮겨 진흙 길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나중에 발을 딛기에 편한 벽돌로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때 저희가 만든 돌다리가 기반이 되었고, 덕분에 캠프 기간 동안 캠프 참가자들이 여자숙소를 한결 편하게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행한 이 일은 비록 간단하지만 자발적으로 캠프 참가자들이 완성한 '첫 번째' 일로서 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자신을 Empty man이라고 지칭하는 organizer이자 Anchor 역할을 하는 '캄 산'이 모든 참가자들을 불러모아 놓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모든 참가자를 한 명씩 소개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어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험과 노련한 인술을 가진 '강동렬' 참가자의 주도 아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게임들을 배우고 다 같이 즐겼습니다. 덕분에 훨씬 서로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 방법은 사실 저로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 즐기면서 대화하는 것만큼 빠르게 친해질 수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 새내기 때 술자리에서 선배들과의 서먹한 분위기를 게임을 통해 풀어나갔던 기억을 더듬어서 옆 사람과 부대끼며 어색함을 조금씩 지워나갔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서로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격식은 잠시 뒤로 하고 말이지요.

도착한 첫날과 그 다음 날, 이틀간은 정식으로 업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캠프 내부의 자치규약을 정하며,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짜는 시간을 가졌지요. 처음에는 규칙으로서 여러 안건이 제시되었지만 모든 참가자가 규칙에 대한 무의미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규약들만 전지에 큼지막하게 적어넣었지요. 다른 한 장의 전지 위에는 팀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요리와 설거지,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영어수업과 컴퓨터 수업을 준비할 팀을 나누기 위함이지요. 최대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또 적절한 숫자의 요리팀이 섞이도록 많은 요건을 고려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있던 요리팀은 Sze tong(홍콩), Yuri hayashi(일본), Yeran(한국), Park(한국), Asa(라오스) 총 여섯 명이, 컴퓨터 수업 준비팀에는 Kwan(한국), Park(한국), Nanami(일본), Yuri(일본), Circle(홍콩)으로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에 여섯 명이었습니다.

저희의 주된 업무는 마당에 설치된 콘크리트 기둥 구조물을 기반으로 Pavilion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워크숍 당시 신신당부했던 내용 중 하나가 '한 번의 워크캠프 활동에 너무 많은 성과를 바라지 마라'라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당시 그 당부를 까맣게 잊고, 돌아갈 때쯤이면 완성된 Pavilion을 보고 뿌듯한 미소를 짓는 저희의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건물을 짓는 업무의 경우는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변한 장비나 건설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어카 하나 없는 텅 빈 환경에서 맨손으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기 동안 비가 오면 업무를 잠정 중단해야 하므로 기약 없이 지켜만 봐야 할 때가 적지 않지요. 조급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민족성은 조급함과 빨리빨리 문화가 기본 소양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느긋함과 여유를 미덕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지나친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것은 쉬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희 워크캠프의 실정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라오스에서는 라오스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야 합니다.

이틀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표에 따르면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 요리팀 기상

5:30~7:30 아침식사 준비 및 전원 기상

7:30~9:00 아침식사 및 설거지. 오전업무 준비

9:00~12:00 오전 업무(Pavilion 건설)/ 10:00~12:00 요리팀 점심식사 준비 12:00~13:30 점심식사 및 설거지. 13:30~15:00 휴식

15:00~17:00 오후 업무(Pavilion 건설)

17:00~20:00 Computer class & English class /

18:00~20:00 요리팀 저녁식사 준비

20:00~21:00 저녁식사 및 설거지

21:00~22:00 Meeting time (Review)

22:00~ 취침

골자는 이러하지만 실제로 이대로 일정이 진행되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개입되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지요. 가령 동네 아이들이 Centre로 오는 시간은 너무나도 제각각입니다. 방학 중인 아이들은 때로는 아침 식사 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연령대도 다양하므로 나이에 따라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지요. 일정이 다소 일찍 시작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햇볕이 지나치게 강한 낮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 시간에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정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부엌은 야외 부엌의 형태이며 물은 수도가 아닌 우물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양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물의 양이 강한 수압으로 쏟아져 나오지요. 그 때문에 이 물을 직접 이용할 수는 없고, 부엌의 대야, 화장실의 물바구미에 수시로 채워서 바가지로 쓸 만큼을 덜어 사용했습니다. 부엌은 썩 위생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냉장고가 없으므로 긴 시간 음식물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많은 파리와 개미들의 습격은 이틀 정도가 지나면 더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허전할 정도이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들은 여기 있습니다.

부엌으로 날아드는 닭과 병아리, 개. 그리고 소들까지. 이들은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기도 합니다. 그러고 말면 다행이지만 도마나 음식재료 위를 밟고 지나다니면서 흙과 동물들의 분변을 이곳저곳 묻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생문제에 직접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분변이 음식에 섞이게 되면 모든 음식을 나누어 먹는 환경에서 감염병의 전파는 시간문제입니다. 더욱이 변변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서 들판 한편에 쓰레기를 모아두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뒤지던 동물들이 부엌에 들어와 음식재료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워크캠프의 묘미가 한 번 더 발휘됩니다. 현실에서 직시 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현지 친구들 또 앞으로 워크캠프를 진행할 뒤 기수들을 위해 일을 찾아 하는 것. 저희는 Pavilion을 짓는 일 만큼이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쓰레기장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위생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쓰레기장을 부엌과 완전히 분리해 새로 만들자는 계획이지요. 이 안건은 첫째 주 Meeting time 때에 채택되었고, 캄산의 결재를 거쳐 또 한 가지의 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채택된 이후로는 업무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 쓰레기장을 구축하는 팀과 Pavilion을 건설하는 팀이 나뉘어 일에 착수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비해 훨씬 간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끝나기 전날까지 분리수거시설은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문제 인식, 해결방안 제시 및 실천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가동한 예는 적지 않았습니다. 요리 팀에서 필요로 하는 꼬치를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베어와 깎는다거나, 다리를 다친 참가자를 위해 지팡이를 만들어 준다거나. 변변한 장소 없이 공놀이하는 아이들을 위해 경기장 경계선을 긋고 네트를 걸어 세트를 마련해 주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참가자들의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 뒤에는 솜씨 좋은 현지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지요. 그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수행하는 중 불평이나 반대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해 난감해 할 때면, 사람 좋은 웃음으로 다가와서는 먼저 손을 건네 우리가 원했던바 그 이상으로 뚝딱뚝딱 해결하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저희 일 중 하나는 Class 운영입니다. 저는 Computer class 담당이었고, 대상 학생은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 친구들, 또 10살 즈음 되어 보이는 좀 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English class처럼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뛰어놀고 말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차 수업에 임합니다. 수업을 준비했던 저희는 매일 머리를 맞대며 커리큘럼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를 켜고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간단한 기능들.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비록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설명에 적잖은 애를 먹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한숨보다는 ' 디(좋아)'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교육의 홍수 속에 사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는 좀처럼 찿아보기 힘든, '눈빛'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5-70년대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흡수하고 익히고자 하는 열정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캠프를 같이 했던 한 현지인 친구는 꿈이 '아짠(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꿈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선생이 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고,선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덤덤하게 이야기했던 이 말은 지금도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황한 우리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희가 떠나는 날까지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난 꿈을 버렸어.' 라는 이야기를 제 귀로, 처음으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워크캠프의 목적에 충실히, 일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보름 동안, 일 자체가 저희에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 간의 교류와 친목의 시간.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한 순간순간들은 어쩌면 자원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많은 이점 중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과 업무시간 동안은 대부분의 참가자가 빠짐없이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 간에 깊은 대화나 추억을 쌓을 기회는 주로 점심 후 휴식시간, 취침 전 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Free day에 주로 있습니다. Phonsung Youth Centre는 방비엥 시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깊숙하 시골이기 때문에 일과가 있는 하루 중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 동안 가 볼 수 있는 장소는 Centre 근처 동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연경관이 워낙 빼어나고 전원생활의 모습 그대로를 품고 있는 주변 환경은 매일 보아도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바위, 동굴, 그리고 그 안에 고인 호수. 널찍한 논과 그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 밤이면 가로등 하나 없는 거리에서 쏟아질 듯 빛나고 있는 별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타 관광지나 휴양지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이쪽이 꼭 신선놀음이었다죠. 하루는 모든 참가자와 다 함께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비 온 뒤라 물이 다소 탁하고 풀잎들이 많이 떠다녔지만,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그것이 문젯거리가 될 리 만무했죠. 눈 닿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산과 하늘들을 배경 속의 주인공이 된 저희를 제가 사진 속으로 담아내는 동안, 고상한 취미를 어여삐 여긴 다른 참가자들은 제게 물속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유난히 햇빛이 강해 오전 업무 동안 모두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날의 물놀이는 피로와 땀방울을 깨끗이 씻어내 주었습니다.

Free day에는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운 여행시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방비엥에 유명한 명소인 Blue ragoon이 그날 저희의 행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캠프 시작 이후 처음으로 시내에 나와 여러 관광지를 구경하고 휴가다운 휴가를 즐겼습니다.현지인의 동행 없이 참가자들끼리 가고자 하는 장소로 나뉘어 하루를 보낸 뒤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하루만큼은 캠프를 모두 잊고 휴가를 왔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반복해야 했던 요리와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학수고대했던 시간은 저녁 회의를 마친 뒤의 밤이었습니다. 보통 캠프 참 자기들은 일과를 마치면 속속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취침준비를 시작합니다. 누구는 일과를 애인 혹은 가족과의 통화로 공유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신만의 노트에 하루를 글로. 곱씹어냅니다. 저는 이른 시간에 잠드는 것이 익숙지 않을뿐더러 못내 아쉬운 하루를 고이 보내주지 못하고 매일 바짓가랑이를 잡고 쉬이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워크캠프 기간 동안 밤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자주 쳤는데,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 빗소리를 배경 음 삼아 다른 참가자들과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낭만적이던지요. 처음 며칠 간은 밤마다 한국 참가자들끼리 모여 자체적으로 평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적을 따지기보다는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있었거나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진 참가자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비가 오지 않는 날 밤에는 귀를 간질이는 빗소리 대신 밤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질문들, 가령 워크캠프를 신청하 이유, 활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들, 가족과 친구, 학업 이야기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갈수록 사회의 문제와 국가 간 갈등문제, 국제화에 대한 견해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거리까지 허물없이 꺼내놓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생각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 국제개발협력부서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조경 가가 되고 싶은 사람, 상담원이 되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국의 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한 견해를 내놓으면서 워크캠프의 일원으로 와 있는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 고심해보고 나의 역할에 대해 재탐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고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워크캠프를 떠나면서 저는 먼저 한국의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의 질과 동남아의 최빈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라오스와의 그것을 비교하고 개선점이나 보급해줄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캠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까지 그 나라 국민이 말하는 각국의 의료제도와 수준, 유병률의 차이를 사회문화적 특정과 연관 지어 생생히 들으면서 학교에 다니며 구축된 사고와 시야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특히 홍콩의 의료제도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으로서 등록될 수 없고 '시술'이 아닌 '치료'에 대해 수가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비교적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는 병원 영리법인이 인정되고 의료보험 일부만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병원이 영리병원과 국가 의료제도 하에 운영되는 공립병원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리병원과 공립병원의 의료비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고 공립병원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쳐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간 영리병원의 경우 대기자가 거의 없으므로 응급실과 같은 수준으로 회전율이 빠릅니다. 제도가 굳어짐에 따라 병원 종류의 차이는 일종의 신분 차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지표로 주목받았고, 어느 병원의 고객인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의료 정핵에 강한 반감과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저였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제 확고했던 생각을 재고해보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생활은 이러한 삶들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가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벽돌벽과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남자 숙소 방 앞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꽃들이 삼십여 개 피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꽃이 봉선화라는 것을 알고 저희는 라오스 현지 친구들에게 봉숭아 물을 들여주었습니다. 진한 텐 저린 색으로 물든 손톱을 보고 좋아하는 그들의 순박한 미소는 또 다음 일과를 힘내서 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마지막 날에는 업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예배를 구경하고 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과는 사뭇 다른 외형과 예배의 진행을 했습니다. 불교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불상의 모습은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중간 지점에 있는 듯한 종교관을 추구하는 라오스의 불교는 불상이 대부분 외상이고 우리나라처럼 미륵, 약사여래, 석가 등으로 구분되는 불상이 아니라 한 종류의 불상에 여러 힌두교의 화신(化身)이 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의 벽과 천장은 온통 금빛으로 빛났고 그 가운데에는 석가의 일생이 그려진 벽화가 시간과 사건의 순서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마지막 이별의 축제인 'Basi ceremony'를 준비합니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Centre를 청소하고 그동안 현지 친구들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녁 5시가 되면 축제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방 중앙에 있는 나무 조각물에 달린 실을 하나씩 잡고 어르신들이 해 주는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안 내용이지만 이 축제는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수호신이 여행자의 곁에 함께하도록 축복하는 축제로서 저희가 잡은 흰 실은 인연의 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여 명 한명 한명씩 모두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에 고기와 밥을 쥐여주십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머리 위로 생쌀을 뿌려주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저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참가자의 손목에 실로 팔찌를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는 한쪽 팔에 50여 개의 팔찌가 걸리는데 이 실은 날카로운 것으로 잘려선 안 되고 최소 3일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신을 떠나서 잘 떠나라는 인사로 손목에 걸어준 어르신들, 그리고 친구들의 선물을 선뜻 끊고자 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까지 팔찌를 차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수료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명씩 수료증을 건네받고 악수를 건네받고 나면 이로써 캠프의 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14일간 무사히 자원활동을 마쳤고 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도 잊지 말자는 약속을 간직한 채 축복으로 가득한 행사는 막을 내립니다. 행사 후에는 음식에 맥주를 곁들여 묵었던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워크캠프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둘씩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숙소 청소를 하고 짐을 챙기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의약품과 구급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숙소에는 저희가 가져온 약뿐만 아니라 이전 워크캠프에서 전북대와 충남대 학생들이 가져온 많은 종류의 약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Centre에 남아있을 사람들과 다음 워크캠프 참가자들을 위해 약의 영어 이름을 명시하고 기능별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소화제와 지사제, 소염제와 해열제 등 한글로 적혀 있는 약들을 현지 사람들이 보고도 어떤 약이고 하루에 몇 번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반듯하게 정리, 분류해 주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9시 출발 예정이던 우리는 9시 반이 되어서야 모든 작별인사를 마치고 덜컹거리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트럭은 방비엥 시내로 나가는 차량이고, 다시는 저희 참가자들을 태우고 Centre로 돌아오지 않을 버스였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보름간의 여정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예비 참가자들은 워크캠프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려는 마음'과 '배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타지에서 여러 국적의 참가자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는 자체를 즐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라며 지레 겁을 먹고서는, 여러분이 워크캠프를 통해 도움을 전달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캠프의 특성상 육체노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많이 무리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캠프 기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배려'의 정신입니다. 처음에는 예의와 격식을 차리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점차 내 몸 하나 지키기가 어려워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배려'의 정신은 캠프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 옆에 똑같이 힘들어하는 참가자가 좀 더 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지요. 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참가자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배려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표현을 이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국가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배우, 영화, 작가, 책 등), 시사 등을 미리 공부해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시이고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이는 원활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기폭제가 됩니다.

워크캠프는 현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본 에세이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서는 절대 안 되며, 참고용으로 사용하여 워크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뜨리는 항목들을 최소화 하고, 가져야 할 마음 채비를 일러주자는 목적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워크캠프를 통해 귀중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수진

국제 자원활동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막상 닥치게 되니 말 그대로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다. 사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봉사하러 가니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처음 가보는 곳의 생활환경이나 기후, 음식 등은 어떨까? '등등 많은 것들이 가늠되지 않았다. 물론 설레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걱정이 많이 됐다. 일단 처음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안내 지침서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준비했다. 도착해서 공항까지는 순탄했는데 생각보다 라오스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익숙하지 않아 적잖은 당황을 했다. 하지만 간단한 기본 라오스 단어를 동렬 오빠가 준비해주신 덕분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다. 그리고 숙소를 미리 한국에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숙소에 도착했는데, 예약확인에 2시간이나 걸렸다. 하지만 그땐 새벽 4시였고, 첫날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이라 생각했다. 비록 여러 문제점이 있어 팀원들끼리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외국 친구들과 베이스캠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생소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보니 라오스 현지인들도 있었다. 라오스 주민들을 처음 봐서 매우 새로웠다.

당일에는 짐을 풀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고, 점심을 라오스 현지인들이 만들었다. 우리는 도와줄 것이 없나 하고 주방에 나와 주방주위에 모여들어서 거의 이야기만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외국인들과 대화가 처음이었고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었다. 거의 이틀 동안 거의 묵언수행을 한 것 같다. 언어 대신에 계속 시도했던 바디랭귀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질 때쯤, 거의 3일째 되던 날 한국 캠퍼들이 내가 너무 걱정이 돼 보였는지 용기를 정말 많이 주셨다. 우리 한국 캠퍼들은 괜찮다고, 한국어로 말하면 통역해주겠다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수없이 격려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3~4일째 되어 가면서 내가 조금씩 다른 나라 봉사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물론 그분들이 답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다. 삽질이 처음이었는데 생각대로 삽이 안 움직이는데도 잘하는 군필자 오빠들이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거의 7~8일 동안 단순반복 노동만 한 것 같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동네 시골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3일째 4일째 되던 날엔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모이고 나중에는 3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다. 우리는 컴퓨터, 영어 2개 반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컴퓨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영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동요나, 노래, 게임으로 공부했다. 그러고 거의 마지막 날쯤 돼서는 그사이 아이들하고도 많은 정이 쌓인 것 같다. 처음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는 괜찮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쏙디~'라는 말을 전할 때는 뭉클해지는 마음을 느꼈다. 뜻은 이제 만날 사이가 아닌 사람을 보낼 때, 더는 볼 수 없을 때 이런 단어를 쏜다고 했다. 생활하면서 라오스 현지인들의 생각과 다른 나라 캠퍼들의 마인드를 많이 볼 수 있었었다. 나랑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본 받아야 할,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홍콩에서 온 헐미아랑, 씨통, 써클은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말 잘 보이지 않고도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주 동안 생활하면서 나에게는 두 번째 큰 시련이 닥쳤다. 도착하고 10일 정도 지난날 잠에서 눈을 떴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너무 큰 두통이 생겼다. 심지어 헛구역질까지 나오고 구토증세도 심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2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워만 있었다. 우리나라 캠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캠퍼들에게도 나만 쉬고 있는 것으로 보일까 봐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다들 이해해주고, 다독였었다. 그리고 빨리 나으라는 말에 또 한 번 감동했다. 아플 때 옆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부채질까지 마다치 않고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준 너무너무 한국캠퍼들에게 감사했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좋아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난 한국에선 벌레도 못 잡았지만, 거기에 워낙 벌레가 많았기 때문에 벌레가 떠다니는 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하고 이도 헹구고 옷도 빨고, 잠잘 때도 벌레랑 같이 자는 등 무서움이 사라졌다. 평소에는 잘 못 느꼈던 한국의 깨끗함을 알게 됐다. 일단 도착한 후에 적응이 잘 안 됐다. 마음은 라오스에 있는데 몸만 한국에 와있는 그런 기분이 3~4일 정도 갔다. 그리고 한 4일쯤 지났을 때부터 라오스에서 아팠던 두통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서 고생을 좀 했다. 같이 생활한 모두 너무 착하고 가족 같았다. 또, 너무 재밌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졸업하고 또 갈 기회가 생기면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언어에서 느낀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제는 알겠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한 것뿐만 아니라 free time 때 여러 유명 관광지나 절 같은 곳을 많이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내가 생활한 시간들이 너무 재밌었고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었다. 라오스는 참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가면 내 마음도 여유로워져서 좋았다.





INDONESIA



김태현

사실 처음 KUSA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연계활동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양한 기획을 구상하였다. 국제 봉사활동은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였다. 그 가운데 KUSA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캠프 모집이 시작됐고, 주변 친구들이 캠프에 참가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러웠다. 하지만 마침 먼저 계획됐던 조국순례대행진이 취소됐고 나는 기쁜 맘으로 워크캠프를 참가하였다. 게다가 오직 KUSA 회원만 참가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이 너무도 궁금하였고, 참가인원을 확인한 후 첫 모임 전까지 최대한 개별적으로 친해지려 하였다. 또한, 매일같이 항공권과 인도네시아의 문화, 기후 언어, 종교 등을 검색하며 준비하였다.

다만 볼런티어 프로젝트와 과외 등 개인적인 일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 준비물을 계획대로 챙기는 것이 어려웠다. 준비물에 한국 기념품이 있어서 인사동에 가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예상보다 비싼 물건들에 실망하고 간단한 목조 인형과 식탁 덮개 휴대폰 고리 등을 준비해 갔다. 가면서 요리를 전담하여 다양한 한국요리를 해보고 싶었지만, 막상 캠프가 시작하니, 역할에 따라 바삐 움직여야 했고, 낯선 재료 때문에 요리를 구상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 그러나 캠프 초반에 Hope, Afraid, Expectation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벽에 적어두니 후에도 그 목표를 위해 더욱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한국 사람과 한국문화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우리들에게 잘 대해주어 상당히 감동하였다. 처음 보로부두르 사원 사무실에 가서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작업을 지켜보며 과학적인 궁금증을 품기도 하였다. 현지인들과는 영어로 소통하면서 예상외로 대다수가 영어에 능통한 것에 놀랐다. 또한, 여러 가지 농담에 함께 웃고, 그 나라 문화를 전해 들으면서 신기해하는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다.

사실 어렸을 적부터 가까운 외국은 다녀보았지만 언제나 오직 여행의 목적이었고 대부분 집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접하거나 현지의 언어로 현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여태껏 외국에 나간다는 것에 막연히 겁을 먹었었고, 외국인에 대한 경계 등 좋지 않은 면으로 그들을 정의했던 것이 창피해졌다. 또한, 지금까지 만나본 한국에 온 여행객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가하였었지만 다른 언어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다 유연한 계획과 진행사항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껏 직접 기획하였던 캠페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서로 다른 국적, 문화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캠페인을 진행하는 내내 신선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어 그 막연한 환경에서 정말 즐겁게 뛰어다녔다.

지금까지 막연히 겁내던 외국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고 계획뿐이던 어학연수나 해외 인턴십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이 생기고 있다. 또한, 아직은 아시아 내의 나라들만 경험해 보았기에, 대학생활을 끝내기 전에 비아시아권의 나라에서도 워크캠프 등의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기획하는 워크캠프는 어떨지 상상해보고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 만나는 다양한 국적/인종의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호의를 베풀며 살 것이다.





류승연

처음 지원한 건 막연한 도전정신 때문이었다. 참가비가 면제라서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았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다. 또 KUSA에 들어온 후로 여러 프로젝트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KUSA 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해서 안면이 없던 지회장 언니에게 연락했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서 쓰는 것 자체가 경험이라며 격려해주고 바쁜 와중에도 지원서를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었다.

최종합격한 후엔 워크캠프 참가자들과 두 번 정도 만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팀을 짜고 자료를 조사했다. 리더와 회계(총무)를 정하고 공동으로 가져갈 준비물이나 각자 챙겨야 할 준비물을 분배했다. 거기서 할 우리나라 게임도 정했다. 처음엔 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2주간의 공동생활로 우린 준 가족급이 되었다.

가서 한 활동은 주로 캠페인 준비, 홍보캠페인, 미화 활동이었다. 우리는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관광객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취지('save the heritage')를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말라, 문화유산에 앉거나 기대지 말라 등의 내용이었다. 미화 활동은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이끼를 떼는 작업이었다. 이끼가 번지면서 사원을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가장 놀랍고 인상 깊었던 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학교에 갔을 때였다. 우린 그저 자원봉사자일 뿐인데 과한 관심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싫었다는 뜻이 아니라 놀랍고 고마웠다. 우리가 나시고랭(볶음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숙소에 와서 해주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후에 못 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따로 연락까지 해줘서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

식사는 아침은 간단하게 빵이나 시리얼 등으로 해결했고, 점심은 주로 나가서 사 먹었다. 저녁은 첫날 짰던 요리/청소/설거지팀 중에 요리팀이 준비했다. 덕분에 현지음식과 한식을 골고루 먹은 것 같다. 그리고 때때로 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한다. 화장실은 심각하게 더러워 보였지만 막상 사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우리는 화장실용 슬리퍼와 두루마리 휴지, 휴지통을 비치해두었다. 그래서 더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다.

가기 직전엔 집 나가면 X고생이라는데 괜히 생고생하는 길을 택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건 거의 없었다. 다만, 머리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이나 먼 길을 자전거 타고 이동해야 하는 점이 체력부족인 나에겐 피곤하긴 했다. 그리고 영어회화 공부를 더 했으면 좀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즉각적으로 영어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다녀와서 달라진 점은 외적으로 꼽자면 내가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좀 더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전엔 집에 혼자 가만히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부분이 강했는데 요즘은 밖에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다. 다른 친구들은 여행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왔는데 조금도 부럽지 않다.

귀국한 후엔 지원서에 썼던 것처럼 볼런티어로서 문화유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워크캠프에 또 참가하고 싶다. 한 학기 동안 내가 활발히 활동한 것이 인정받아 KUSA경기지회 어드보커시팀장이 되었다. 덕분에 유례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워크캠프에 최종합격하여 무사히 다녀온 것도, 한 학기 만에 임원이 된 것도 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사실 캠페인 피켓을 만들 때 의견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누구 한 명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해서 수월하게 끝났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2주 동안 별 탈 없이,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다들 무사히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맙고, 더 행복한 경험으로 남은 것 같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박수!! 짝짝짝!!!





심재희

이 워크캠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워크캠프'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줄 알고 신청해서 설명회를 들으러 갔다가 그때 '워크캠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봉사활동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봉사활동과 다른 것인지는 몰랐는데 워크캠프에 참여해 보고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내가 남을 돕는 것이라면 '워크캠프'는 '돕는 것'보다는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더 중점 되어 있었다. 똑같이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활동한다고 쳤을 때 '봉사활동'이라면 캠페인을 하고 이끼 제거 작업에 중점을 둔다면 '워크캠프'에서는 정해진 것이 별로 없고 현지에서 현지상황에 맞게 처음부터 만들어 나간다. 캠페인에는 무엇을 쓸 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캠페인 장소와 시간, 인원까지 그곳에서 맞춰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그 자체보다는 그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팀과 잘 맞아서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주로 한 활동은 크게 문화교류, 로컬 십대 봉사단체와의 연합, 보로부두르 사원 보존 활동이었는데 활동 자체도 크게 의미 있었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이 활동들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더 만족스럽고 기억에 남는다. '활동'이 중심이 되는 봉사활동과는 달리 활동을 준비해 나가는 것부터 같이 시작하는 '워크캠프'에서 다른 사람과 이견을 조율하고 활동을 계획해 나가는 것은 그 시작부터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큰 것 같다. 또 그 과정에 다른 문화에 속한 낯선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생활하고 생각을 나누며 산다는 것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함과 조심스러움을 동반하는 진귀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들과 생활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그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었다. 말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소통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이 워크캠프를 통해 내가 얻게 된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점 또한 당연히 있었다. 많은 사람이 하나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랬고,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었고, 더운 날씨와 한국과는 다른 비위생적인 환경이 그랬다. 하나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20여 명의 사람이 순서를 정해가면서 사용해야 했고, 단체생활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생활해야 했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기도 했고, 청결하지 못한 부엌 상태와 쥐와 벌레가 들끓는 숙소에 기함하기도 했다. 이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워크캠프를 무사히 마친 지금, 홈스테이하면서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조금 더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생겼다. 2주간 함께 생활하고 고생한 우리 팀원들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맞게 되었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의 매력에 더욱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명진

해외에 혼자 나가는 것이 처음인 것과 워크캠프라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특히, Work라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관리(청소, 홍보, 보존방법 강구) 하는 부담이 많이 되었던 탓에 무척 긴장을 많이 했다.

우리의 인도네시아 캠프 사이트는 생각보다 더 열악했다. 나무판자로 문을 대어 방을 구분하였고, 벽에는 도마뱀이 기어 다녔고, 무엇보다 12명의 참가자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 총 16명이 한 화장실과 욕실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도마뱀이 기어 다니는 그 집을 단 몇 시간 만에 적응하였고, 참가자들끼리 서로 상의하여 규칙을 만들어 14일의 캠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씻는 것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14일의 모든 프로그램은 생각했던 것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었다. 쉬는 시간(자유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고, 프로그램 활동에는 '사원 보호 캠페인', '보로부두르 사원 이끼 제거 작업', YGC, BCO와 친해지기 위한 게임, YGC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지키는 방안 논의하여 프레젠테이션하기, 쿠사를 소개하고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취지를 밝히기 위해 현지 학교를 방문하는 활동 등이 있었었다.

비록 와이파이가 통하지 않고 정말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씻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러한 불편함이 아주 가끔 생각 날 만큼 무척이나 귀중하고 행복했던 캠프 하루하루였다.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점이 아쉽다. 더 열심히 못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정민

사실 이번 캠프를 지원했을 때 취업을 위한 해외경험 스펙 쌓기가 주된 동기였다. KUSA 회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잘 아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나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유네스코가 어떤 단체인지는 알았지만, 이번 캠프의 주 주제인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보호에 관한 생각을 깊게 가져보지 않았었다. 과거 독일에서 국제워크캠프 해외봉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던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았다. 해외봉사는 말 그대로 육체적 노동에 초점이 되어 일꾼처럼 주어진 청소나 작업 등의 일을 끝내고 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식이었다면, 이번 국제 자원활동은 단순히 청소나 캠페인에 머무는 것이 아닌 world heritage 보존을 위한 영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힘쓰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 같았다.

또 해외봉사와는 다르게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가령 만두 사원과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할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문구를 사용할 것인지부터 같이 고민하고 직접 캠페인에 사용될 보드를 만들었다. 만두 사원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사원이어서 관광객들의 수가 적어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지는 않았지만, 보로부두르의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관광객들도 매우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뿐더러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 캠페인 보드 수도 부족해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 또 한가지 캠페인을 할 때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상당수를 이뤘다. 그리고 그중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캠페인의 주체인 참가자들이 인도네시아어를 기본 인사말 밖에 할 줄 모르는 수준이었으니, 영어로 우리를 소개하고 캠페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다. 하루 전날이라도 캠페인 내용을 인도네시아어로 숙지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였다.

보로부두르 내에서의 활동은 캠페인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친 청소도 있었다. 이 역시 청소도구를 Young Guardian Club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다. 청소는 사원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주된 것은 사원을 이루고 있는 돌들 사이의 이끼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끼가 잘 제거되지 않았고, 이끼들 크기가 작다 보니 청소를 끝내고 나서도 결과물이 크지 않아 제대로 청소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사실 처음에는 캠페인과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매일 저녁에 있는 Evaluation time에서 다른 참가자가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다. 그녀의 생각은 이러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캠페인과 청소가 분명 의미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일시적이다. 우리가 캠페인을 끝내고 다른 관광객이 오면 그곳은 또 더럽혀질 것이고, 그곳에 처음 온 사람은 그곳이 보호되어야 하는 heritage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우리와 같이 캠페인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2주 동안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온 것이기보다는 Borobudur 가 우리가 없이도 미래에도 계속 캠페인이 행해지고 보존될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였으나, 나는 전적으로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BCO에 보로부두르를 보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안서로 적어 제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날에 제출했는데, 그 recommendation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왜 우리가 이곳에 왔고, heritage 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말해주고 또 많은 학생이 이 활동들에 관해 관심과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것도 캠프 기간 중 가장 뜻깊었던 순간인 것 같다.

그런데 캠프 기간 활동들을 이렇게 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heritage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지역 사회 탐방 등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래 참가자들과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는 일정들도 잘 이겨 낼 수 있었다.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중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로부두르에서 sunrise를 본 일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pottery를 직접 만들러 간 것, free day에 다 같이 노래방 간 일, independence day를 맞아 YGC 친구들과 양국의 전통게임을 한 일 등 사진들을 다시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면서 웃음 짓게 된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고 감사했던 일은 보로부두르 지역의 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갔기 때문에 발표에 신경 쓰고 조금은 경직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곳의 학생들이 아주 크게 환대해주어 정말 고마웠다. 그저 외국인으로 신기하게 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한국 드라마나 음악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 너무나 반겨주는 분위기 덕분에 프레젠테이션도 웃으면서 잘할 수 있었고, 후에 이어진 게임도 역시 부족한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연예인이 된 것 같다는 말을 계속할 정도로 굉장한 환영을 받았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좋아해 주고 행복해하니 우리 역시 같이 설레고 기분 좋은 날이 되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연예인을 하는 것이 더 성공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날 이후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 사실 그전에는 동남아시아인을 떠올 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나라에서 외국인인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데 나는 과거에 그러기는커녕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적이 많은 것 같아 반성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찾기 힘들었던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귀국한 지 이틀이 지난 지금에도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 반겨주고 악수해 주던 친구들을 생각하면 꼭 다시 그곳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든 다른 일을 위해 온 외국인이든 반갑게 그들을 맞아주고 따뜻하게 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결심하게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뚜렷하게 드는 생각은 문화재에 대한 시선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왜 그곳에 있는 heritage를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지를 전달하면서 나에게도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겼다. 우리의 문화재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재를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한국에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홍익대학교 KUSA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금 학교별로 KUSA 라는 동아리가 잘 연합하여 UNESCO 활동에 부합하는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홍익대학교는 잘 섞이지 못하고 UNESCO 동아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캠프를 통해 느끼고 얻은 것들을 학교에서 동아리 후배들과 많이 공유하여, 홍익대학교 KUSA도 좀 더 UNESCO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위기를 꼭





전지영

이번 인도네시아 국제워크캠프는 작은 '전환점'이었다. 난 '국제 자원활동'을 어렵고 거창하게만 느꼈다. 그러나 이번 워크캠프에서 각종 캠페인이나 문화재 청소 등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활동과 문화유산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 봉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또, '글로벌 이슈'라는 주제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장점도 많았다.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이러한 종류의 워크캠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워크캠프에 참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여러 글로벌 이슈들을 체험하며 지역 문제와 세계 문제의 연관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워크캠프에 합격하고 나서 처음에는 평소에도 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기에 매우 기뻤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까, 내가 도움될 수 있을까, 영어로 소통하는 데 나의 회화 실력이 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안전사고는 잘 예방할 수 있을까 등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한국인 언니 오빠들과 이 새로운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비록 KUSA(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소속은 아니지만,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나는 같은 동아리 회원이 아니더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국제 워크캠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항공권, 사비, 교통비, 예방 접종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단체로 거의 버스를 이용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행여나 택시를 타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한국보다 현저히 낮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free day 때 쇼핑을 해도 돈이 남지 않겠느냐는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기념품이나 옷들을 사며 조원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Borobudur 사원에서 우리가 한 활동을 크게 구분해보자면 가장

주가 되었던 캠페인 활동, 고등학교 방문, 문화유산 청소작업,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등이 있었다. 캠페인 활동은 팀원들과의 협동심 그리고 나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Save the heritage'를 주 표어로 내세웠는데, 이 표어는 지금 생각해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캠페인의 purpose를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구였다고 평을 내리고 싶다. 캠페인 홍보 표지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가 각자 만드는 부분을 정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도와주면서, 우리는 팀워크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Save the heritage'라는 표지판을 내보이며 서명을 요구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반응해주지 않는 외국인들을 접했었다. 그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 또한 떨어졌으나, 팀원들과 계속해서 단합하며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회의도 하고,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여러 관광객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는 부탁도 많이 받고 좋은 호응을 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캠페인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캠페인을 하면서 매우 보람을 느꼈으며,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자국민들 스스로가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해당 국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족자카르타에서는 홈스테이했는데, 캠프 리더인 nofi, cita 그리고 또 다른 현지인 haniv 를 만났다. 그들은 매우 유쾌했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항상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서 우리와도 잘 맞았다. 영어로 소통해야 했지만,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의 의견을 항상 전달하려 노력했기에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록 나는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캠프 자체의 활발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feedback 시간이나 식사 시간 이외에 우리 한국 참가자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한 적이 많은 것 같아, 현지 멘토들에 대한 배려가 적어서 조금 아쉽고 미안함이 느껴졌다.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종교가 이슬람인 만큼, 나는 이곳에 오기 전 여자들의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고 낯을 많이 가릴 것 같아 걱정했었다. 워크캠프에서, 이러한 내 생각을 전환해 준 인도네시아 여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국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들을 사귀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생각한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낯을 가리기보다는 우리를 처음 딱 한 번만 잠깐 보았는데도, 우리가 가기 전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여 감동을 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처럼 철두철미하지는 않지만, 정이 많아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은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인데도 이러한 인연을 소중한 것으로 만들게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나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겨졌고, 또한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워크캠프에 다녀온 후, 내가 가장 동기부여 받은 것은 영어공부였다. 그곳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들이 나를 변화시킨 것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가장 손쉽게 소통할 방법이 영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를 함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가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이번 국제 워크캠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목표 의식 아래 팀원들 모두가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편협했던 시각을 지녔던 부분은 좀 더 넓힐 수 있었고 계속해서 영어로 소통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려 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 같다.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잊지 못할 추억 또한 새기고 왔다는 느낌이 든다.





최민희

유네스코 학생 동아리의 회원으로서 직접 해외의 유네스코 문화재를 방문하여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래서 이번 워크캠프의 참가자로 선발된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여러 걱정이 들었다. 그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환경이었다.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인도네시아는 수질이 좋지 않아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말라리아, 뎅기열에 걸리기 쉬운 국가였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한참 질병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때라 워크캠프를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걱정이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IS의 공격이 찾아서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나 골목을 걷다가 이슬람 신도들에게 납치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어처구니없는 생각도 했다. 그만큼 워크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 겁이 많았고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 편견이 있었다. 워크캠프 기간 동안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보로부두르 사원 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워크캠프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팀 내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는 먼저 보로부두르 사원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보았고 보로부두르 사원의 역사, 가치 그리고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글로만 봐왔던 보로부두르 사원을 눈앞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거대한 사원의 크기에 감탄했다. 이 사원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화산재에 꽁꽁 파묻혀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까 신기할 만큼 거대한 크기였다. 사원을 이루는 돌들은 퍼즐처럼 조립된 구조였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배수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사원의 벽에 부처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 더욱 신비로움을 더했다. 사원을 청소할 때는 사원의 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빗자루의 솔 한 개로 돌 조각 사이에 낀 이끼를 청소했다. 이끼가 돌을 부식시켜서 사원을 훼손시키는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보로부두르 사원 곳곳의 돌조각이 이끼로 인해 훼손이 심해져서 마음이 아팠다. 워크캠프 기간이 건기라 이끼가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우기가 되면 이끼뿐 아니라 비로 인해 둘 사이 틈이 생겨 사원의 파괴 위험이 심해진다고 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사원을 걸을 때 종종 흔들리는 돌 바닥이 있어 조금 무섭기도 했으며 어떻게 하면 우기 기간의 비로 인한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

또한, 관광객들이 사원을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우리는 "Save the Heritage"라는 표어를 내걸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사원에 앉지 않기, 침 뱉지 않기, 사원에 기대지 않기' 등의 문구를 쓴 피켓으로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사원 보호 캠페인활동을 하며 서명을 받았는데 사원 내에는 생각보다 돌조각에 앉아 있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사원 입구 방향에 우리의 캠페인 활동 문구와 비슷한 글들이 쓰여 있었지만, 매우 작은 글씨로 써 있어 관광객들이 인식하기에 힘들었던 것 같았다.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으며 이 사원을 위해 활동하는 BCO분들의 노고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쬔 햇볕만큼 보람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하루의 활동들이 모두 새롭고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더 인상 깊었던 기억은 자전거 타고 마을을 여행했던 활동이다. 총 11명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반나절 동안 달리며 전통적인 과자 공장, 바틱(옷감) 공장, 과자 공장, 두부 공장, 기념품 공장, 이장님의 집 등 인도네시아 곳곳을 방문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골목마다 빼곡히 가정집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 앉아 있거나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썰라 맛 쏘래!"하고 인사하면 크게 손 흔들며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에 다소 지쳤던 기운이 싹 날아가곤 했다. 이 마을에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는 도로의 틈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구경한다는 것이 조금 무서웠는데 이 활동을 계기로 워크캠프 기간 내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통상적인 삶을 접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캠프는 나에겐 한편으론 모험이었고, 한편으론 새로웠던 활동의 연속이었다.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들과 큰 트럭 옆에서 대담하게 자전거를 타보지 못할 것이고 11명이 한 공간을 공유하며 살 기회를 얻기 힘들 것이며 직접 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유네스코와 우리를 소개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워크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곳에 도착해서 내 피부로 와 닿은 인도네시아는 전쟁, 질병의 공포와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시골처럼 정이 넘치는 나라였다. 워크캠프가 끝을 향해 달릴 때쯤, 나의 조심성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가깝게 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 워크캠프 참가자들에게 무엇보다도 "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걱정이 많으면 물론 조심성은 있지만,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직 그 나라에 발 디뎌 보지도 않았는데 걱정부터 하는 것은 더 넓은 경험과 지식을 쌓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워크캠프는 혼자가 아니라 ' 우리'이기 때문에 작은 도전에 혹시 실수가 발생하여도 함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걱정보다는 많이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로 참여하여 우리의 성공적인 워크캠프 보다 더 발전한 워크캠프로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다.







최영준

대략 2주 동안의 워크캠프를 마치고 나서 베이스캠프를 떠날 당시에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워크캠프가 끝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큰 다툼과 갈등, 사고 없이 워크캠프를 종료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날,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을 당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놀랐고 걱정스러웠지만, 마지막 날 와서 다시 생각하니 2주란 시간은 적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악한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 잠자리 걱정 등 매일 벽에 기어 다니는 도마뱀과 주방에서 같이 살았던 쥐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IIWC(International Indonesia Work Camp) 주체로 진행된 캠프 활동은 주로 UNESCO 지정 문화재(Borobudur 사원, Mendut 사원)에서 '문화재 보존'을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 및 지역 고등학교 2곳을 방문하여 문화재 보존 (Save the heritage)에 대한 홍보 및 발표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BCO(Borobudur Conservation Office) 직원들과의 잦은 교류 및 친목활동을 통해 Borobudur 사원에 대해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직원분들의 배려로 캠프 기간 동안 2번이나 해돋이를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화재 내에서 캠페인 활동은 주로 저희가 하드 보드 지로 보드 판을 만들어 'No trash', 'Do not sit', 'Do not spit', 'Save the heritage' 등 같은 문구를 제작하여 사원 안 관광객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명란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동의를 구해 서명을 구하였습니다. 총 이틀에 걸쳐서 Borobudur 사원, Mendut 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또, 직접 Borobudur 사원의 청소작업을 통해서 직접 문화재 보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재의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이끼'라서 우리는 BCO에서 교육받은 대로 사원 벽에 붙어있는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 유네스코 문화재를 보존할 방법으로 매우 인상 깊은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고등학교 2곳을 방문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지역 문화재, 즉 Borobudur 및 Mendut 사원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보존하고, 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YGC(Young Guardiance Club), 문화재를 보존 활동을 위한 청소년 조직이 활동하고 있어, YGC 팀원들과도 연합활동을 통해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YGC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워크캠프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고민거리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대부분 저희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식료품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돼지고기가 금기시되어있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사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밥과 닭 이용한 요리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당 2개씩 챙겨간 라면이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저희를 달래주는 좋은 음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워크캠프를 마치고 처음에 했던 걱정은 싹 사라지고, 정들었던 팀원들과 캠프 사이트를 떠나려니 막상 아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해외에서 2주 동안 팀원들끼리 같이 동고동락하는 활동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리더를 하면서 아무런 투정 없이 잘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멀리 한국에서 온 저희를 친절하게 잘 대해준 지역 주민과 IIWC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삼아 세계무대에 나가서도 활약할 수 있는 'Global Citizen'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황지원

대학에 들어가기 전 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기,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내 시야를 넓혀놓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캠프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1.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자. 2. 할까 말까 하는 고민되면 무조건 하자 3.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기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숙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열악한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판잣집에서 살아보게 된 게 처음이었는데, 벽에 개미도 정말 많았고 천장도 곧 무너질 것 같아 보여 자는 동안 이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곳에서 어떻게 2주를 살아가야 하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접어두고 일단 '좋든 싫든 어떻게든 여기서 2주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집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빠르게도 당일 저녁, 숙소에 대한 모든 적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평소 깔끔 떠는 성격에 벌레도 정말 싫어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 적응할 수 있구나! 평소 적응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까지나 좋을 줄이야!' 라며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화장실도 정말 편하게 잘 갔고, 잠도 정말 잘 잤습니다.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생각과 무엇보다 ' 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사람이 사는 곳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활동 중 Market race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전날의 Indonesian class에서 배운 인도네시아어를 활용하여 쇼핑리스트에 적힌 물건을 가격흥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장이 한국의 재래시장과 정말 비슷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말을 걸고, 가격흥정을 하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가격을 깎아주시기도 하시고, 덤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만 한국 시장과 비슷한 게 아니라 속도 비슷하구나. 여기 사람들도 정말 모두 인정 넘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닌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란 걸 강하게 느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으라면 보로부두르 사원의 이끼 제거활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내 손으로 사원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보존활동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뿌듯한 경험이었고, KUSA인으로써도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원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유난히 사원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기에 더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돌로 이루어진 사원이기 때문에 미리 이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조각의 모양이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일일이 긁어내는 식으로 이끼를 제거하게 되는데, 작업하다 보니 이끼가 잘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미스터 유리에게 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이 좀 마음 아팠는데,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현재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현재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일이 제거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끼 제거 작업을 하는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유심히 쳐다보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끼를 제거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루일정의 중간중간 혹은 마치고 난 후 항상 있었던 free time에는 목표했던 것에 따라 거의 항상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습니다.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골목골목 쑤시고 다니기도 했고, 이것저것 사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최대한 인도네시아를 많이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엔 마을에 정이 들어버려서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sate를 사다가 만난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현지 음식들을 줄줄이 소개해준 일도 있었고, 음료수 가게 아기한테 음료수를 먹여주며 놀아준 일, 마을탐험을 하던 중 시장 안에 또 다른 시장이 숨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온종일 쑤시고 다니던 일, 정말 싼 물가 덕분에 행복해하면서 미고랭을 칠백 원에 사 먹던 일, 골목골목마다 있는 닭들을 쫓아 뛰어다니던 일, 점심 먹던 아저씨가 선물이라며 보로부두르가 그려진 팔찌를 선물해주신 일, 작은 인도네시아판 포장마차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서 메추리알 꼬치를 먹던 일, 길거리 가로수에 열린 망고를 보고 신기해하던 일 등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워크캠프 기간 동안 같이 참가자로 간 언니, 오빠들한테 정말 좋은 걸 배웠는데, 그건

바로 '우린 가족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의식주를 함께 하는 것뿐만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항상 '우린 가족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처럼 끈끈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오빠들이 시작해준 그 말 덕분에 2 주간 부모님이 전혀 그립지 않았을 만큼 외로운 순간 없이,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엔 열심히 일하고, 자유시간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경험하려고 애썼습니다. 덕분에 처음에 목표했던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 소중한 친구들도 얻었으며,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값진 경험을 선사해준 소중한 첫 워크캠프였습니다.





유네스코와함께하는 기아 글로벌 워크캠프



강석진

처음 워크캠프를 하기 위해 출국하는 날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국내에서도 군대를 제외하곤 3주라는 시간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지내본 적이 없는데, 프랑스라는 타지에서 각 국에서 온 지원자들과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웠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캠프지로 이동을 하였고, 떨리는 마음으로 캠프에 도착해서 서로 각자 소개를 하고 첫 주에는 서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게임이나 주민들과 함께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었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부턴 본격적으로 계단 보수와 타운 홀 페인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캠프에는 남성 지원자보다 여성 지원자가 더 많아 홀 페인팅을 하는 데에 많은 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유럽이 처음이라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하고 무시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크캠프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터키 친구는 K-pop 가수인 EXO 찬열을 좋아한다며 저와 말이 잘 통했고, 모든 친구들이 3주간 저를 너무나 좋아해줬습니다. 또, 일이 끝날 때 혹은 주말에는 리더들이나 주민들이 계획해둔 게임이나 축제, 파티에 참여하였고, 별다른 활동들이 없는 때에는 지원자들끼리 미팅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인근 바다 혹은 뮤직 페스티벌을 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선물 혹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많이 준비해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캠프가 끝나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정도로 제가 겪은 시간은 매우 좋았습니다.

워크캠프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보다는 일단 출국부터 먼저 하시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더라도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무언가를 더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이 워크캠프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개인여행을 하고, 인생을 즐겨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민주

4월 30일에 최종합격이라는 메일을 받고 가족,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의 일주일동안은 가족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사며 이러한 기쁨을 공유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워크캠프 준비보다는 여행준비에 시간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서, 처음에는 서점에 가서 수많은 유럽관련 여행서적 중 내 스타일에 맞는 책을 골랐고, 네이버 카페 유랑, 스투비플래너, 그리고 주변에 유럽에 다녀온 몇몇 친구들을 통해 여행에 대한 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한달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본격적으로 교통, 숙소 등을 예매했습니다. 6월에는 트레블메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여행과 캠프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으며 가기 일주일 전에는 집 근처 대형마트를 돌면서 깜빡하고 구매하지 못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예를 들면 캠프지 지역 내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목장갑이나 쿨토시를 준비해갔습니다.

도착해서 이틀 동안은 앞으로 3주 동안 함께 지낼 캠프원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졌고, 향후 작업계획과 주말 여가활동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사당번과 메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전교육과 작업요령과 작업도구 이름 익히기 등 리더가 철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캠프 구성원들의 나라는 총 6국 프랑스, 스페인, 벨로루시, 세르비아, 터키, 우리나라였고 인원은 리더 제외 9명이였습니다. 지원 당시 비고란을 보니 고소공포증이 없어야하고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기에 첨에는 덩치가 좋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지 알았는데 아직 대학교에 입학 안한 체구가 작은 여자아이들과 30이 넘으신 아주머니가 계셔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캠프 작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100년이 넘은 교회를 보수공사 하는 것 이었는데 주된 일은 곡과 삽을 이용하여 땅바닥을 파내어 큰 돌과 겉흙을 모아 버리고, 교회 앞의 계단 보수공수, 교회 안의 바닥 타일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성별 불문하고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힘쓰는 일이 많아지고 날씨는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하나 둘씩 의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 작업을 쉬기 위해 일부러 요리팀에 들어가는 동료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부족해서 이틀, 삼일, 심지어는 연속 4~5일 작업을 쉰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을 보는 내내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원래 성격이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눌러놓는 스타일이라 그 점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캠프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두 명의 리더는 그 부분에 대해 눈치를 챘는지 그 날 이후부터 종종 이야기 시간을 갖고 캠프 생활에서의 자기 의견을 내놓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내 불만을 그대로 털어놓기 보다는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원해서 워크캠프에 지원해서 왔고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3주 동안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서로 뭐든지 함께 해서 좋은 추억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 어린 친구들도 내 말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그 뒤로 다시 처음 우리가 일했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캠프를 통해 힘들었던 점이라면 많은 힘이 요구되는 작업들이 많았지만 여자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이였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작업량이 늘어나 오후, 저녁에도 작업하고 캠프가 끝나는 하루 전까지도 작업이 진행 되었다는 점이였습니다. 그 외에 굳이 불편했던 점을 말하자면 세탁기도 없어 매일 손빨래하고 화장실도 저녁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건물을 잠그게 되면 엄청 어두운 길을 5분 동안 걸어야했다는 점이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날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짧으면서도 긴 것처럼 느껴졌던 3주 동안 매일 같이 눈을 뜨며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같이 술도 마셨던 우리 캠프원들과 헤어질 때, 정이 많아서인지 저는 눈물이 나올 뻔 했습니다.

7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주위에 사건 사고들을 접하다 보니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무조건 의심부터 한다는 점, 그리고 자기물건에 더욱 애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항상 계획을 세워 움직인다는 점, 더욱 검소해졌다는 점, 나 자신에 대한 용기를 더욱 갖게 된다는 점이 갔다 오기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점도 생겼지만 다행히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고 다음엔 더 좋은 방법으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단아

워크캠프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는 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정신없이 짐을 싸서 독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캠프에 다녀오면 3학년 2학기가 되기 때문에 졸업 후의 진로 등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으로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워크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른 13명의 유럽친구들과 함께 산 속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저를 괴롭히던 학점, 취업, 진로 등의 문제는 싹 잊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주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은 취업이나 진로가 아닌 하루하루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까 저녁은 무엇을 해먹을까 등 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유럽친구들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 지향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어렸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공기놀이나 한글을 알려주며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친구들에게 배운 '여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에만 집중하던 예전의 제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이 말해준대로 '지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어'라는 자세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최영주

스페인 아동 워크캠프로 출발하기 전,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했었습니다. 획기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사실 그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기대를 품었던 것은, '다녀오기 전의 나와 다녀온 후의 나는 분명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워크캠프를 지내고 돌아온 저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자치주 안에 있는 작은 도시 Mundaka에서 아동영어캠프에 15 일간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를 접하기 힘들고, 방학 중 시골 마을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이용한 놀이를 하는 거였어요.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얼굴을 가진 아이들과 부대끼다보니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같이 손잡고 소풍을 가고,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는 등 하루하루 행복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낯선 동양인의 모습을 띠고 있던 저를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어느덧 캠프 중반에 다다르자 먼저 다가와서 장난도 걸고, 수줍게 직접 만든 선물을 건네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제게 자연을 즐기는 법, 순수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준 아이들에게 초상화를 선물로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놀이 중에 유달리 다른 아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 마음이 쓰일 때면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아이를 불러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얼굴을 그려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들어 갈 수 있었던 이번 캠프는 처음에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는데요. 영어실력향상 캠프이지만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펜을 들게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속으로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은 그저 아이들과 같이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한 시간 동안 여유롭게 앉아서 간식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놀이 방식 때문인지 아침마다 캠프에 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한 없이 천진난만하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팝송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면서 Shake it off를 흥얼거리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영어교육봉사를 할 때의 저를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캠프는 2주간의 짧은 기간 이뤄졌지만 저에게 많은 아이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새로운 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해변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자기 꿈이 항상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라 말하던 친구 llaria의 눈빛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llaria 같은 친구들 18명과 2주간 동고동락하면서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저는 워크캠프를 통해서 비로소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스스로를 먼저 풍요롭게 채우고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 우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걸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문다카에서 우리가 함께 가졌던 시간들은 그랬던 저를 서서히 조금씩 바꾸어주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주고 그런 저를 궁금해 하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여행을 일상처럼 그리고 일상을 여행처럼 물 흐르듯 차분히 제 길을 따라 걸어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같이 허점투성이인 사람도, 언어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도 각자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삶의 속도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영화 <중경삼림>에 이와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기억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기한이 영영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꼭 기한을 적어야 한다면 만년 후로 적어야지.



워크캠프를 마치고 오니 딱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깊이 느꼈습니다. 워크캠프가 아니었으면 공유하지 못했을 수많은 순간들, 감정, 분위기, 장소 이 모든 게 다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깨달음과 인연을 준 워크캠프는 저에게 만년 간직하고 싶은 기억입니다.













Sookmyung Women's Univ



권현지

처음 워크캠프를 참가하는 것이 결정된 후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 처음인데다가 그곳이 유럽이라는 점, 또 모르는 외국인들과 3주나 되는 긴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워크캠프는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껴보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워크캠프로 이동하는 순간부터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어를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길도 잘 찾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기 때문에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도 역을 놓치면 어쩌지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계속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도 어색하게만 느껴졌는데, 그들의 친절한 반응에 자연스럽게 묻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얻어 처음 워크캠프 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역인데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의 시골과 같은 자연환경만이 광활하게 펼쳐졌습니다. 버스는 1시간마다 오는데 제가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꼬박 1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결국 택시를 타고 제가 일해야 할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순간의 처음 제가 일할 곳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해야 할 곳의 시설은 정신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주로 계셔서 그들이 혹시나 밖으로 나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문이 세워진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에 그 철문을 보니 덜컥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혼자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 시설에 인터폰을 해봤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은 그 시설 안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었고 정말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캠프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애인 분들을 돕는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로 떠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 적응하지 못해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의 미소를 보니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금방 그분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를 반겨준 것은 캠프 리더와 먼저 도착해 있던 캠프 참가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반겨준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모든 캠프 참가자들이 한명씩 도착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다들 자신의 기본적인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총 5명의 고등학생이 왔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고등학생들은 방학 때 학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보충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여서 그들이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워크캠프를 하러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의 고등학생 때는 어땠었나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험의 질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3주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고등학생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뚜렷함과 주관적인 삶의 계획에 대해서 놀라고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독립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캠프 참가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았던 멋진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워크캠프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지만 가장 가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워크캠프에 참가한 저를 제외한 11명의 사람을 얻은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3주간 지내면서 나눴던 생각들, 같이 신나게 놀았던 시간들 등이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워크캠프의 활동은 오전에는 그 시설의 분들과 연극 킹콩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고 친해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들 스스럼없이 그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먼저 손자, 손녀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기본적인 연극에 대한 감정 표현, 기술 등을 선생님 한 분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설의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서로 장난도 치는 사이로 발전해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셨는지 큰 시설의 많은 분들이 저희가 묵는 곳으로 와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셨고 아침식사마다 유리창을 통해 저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워크캠프 아이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그분들이 사람들이 그리워서 하시는 행동임을 이해하고 웃음으로 화답하거나, 같이 테이블 축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연극 팀과 무대 팀으로 나눠서 일을 진행했는데, 저는 무대 소품들이나 장치를 만드는 팀에 속해서 저희 연극의 주제였던 '킹콩'에 맞게 여러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일도 처음이었고 장치를 만드는 일은 더더욱 처음이었는데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모든 팀들이 모여서 연극의 최종무대를 준비하는 일을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시설의 분들이 연극 경험이 많으셔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극을 소화했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서로 배려하고 연습하면서 워크캠프 아이들과 잘 어울려 멋진 연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지막 연극을 하던 날은 시설의 많은 분들과 가족들이 와서 저희의 연극을 감상하셨고, 무대 소품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극을 할 기회는 적었지만 그들이 무대를 꾸며나가는 일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활동이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무대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떠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우셨을 때는 저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경험을 하고 지금은 떠나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이별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과 입장을 생각하니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이 들었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많은 활동을 하는 순간마다 매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메이징한 워크캠프 사람들이었고, 그들로 인해 그 추억들이 더욱 빛나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의 워크캠프 활동들을 할 때도, 오후의 자유 시간에도 모든 순간들을 같이 했던 그들과의 추억은 지금도 반짝거리고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는 기억입니다. 오전 9 시부터 1시까지 워크캠프의 일과를 마친 후 남은 시간은 모두 저희의 자유 시간 이었습니다. 브레멘 근처에 시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브레멘으로 놀러갈 수도 있고, 근처의 호숫가에 가서 놀거나 숲을 산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매일같이 했던 것은 아이들과 가방을 하나씩 매고 20분 거리에 있는 마켓에서 장을 보고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중교통보다는 드물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순간순간이 즐겁고 항상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거나 농담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순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하루의 일과였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타는 순간마저 저에게는 도전이었는데, 자전거의 안장이 너무나도 높았던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줄은 알지만 이렇게나 높은 안장에는 타본 적이 없었고 조절도 되지 않는 자전거들이어서 지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고는 아이들과 놀러갈 때나 이동할 때 계속해서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자 다치든 넘어지든 무조건 타고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질 뻔 했던 위기도 많이 있고 너무 무서웠지만 적응을 금방하고 남은 기간 계속해서 잘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주변 근교 여행도 많이 가고 많은 활동을 갈 때 자전거로 이동했고,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모두 도전하지 않았다면 경험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저희가 묵는 곳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거나 뛰어놀기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 한국에서는 많이 경험해보기 힘든 자연환경에서 많이 뛰놀았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고 있다 보면 시설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기를 청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는 팀을 나눠서 경기를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에는 근처에 있는 호수로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기대하던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대만큼 너무 멋진 자연환경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드넓은 호수 한 가운데에서 아이들과 수영을 자유롭게 하는 기분은 정말 멋지고, 이 순간 그 곳에 있다는 사실에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첫 번째 주말에는 근교의 브레멘과 함부르크를 갔고, 또 너무 행운이었던 것은 워크캠퍼 중에 함부르크에 사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의 집에서 하루를 묵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 곳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일이었는데, 워크캠퍼의 정말 아름다웠던 집까지 방문하는 것은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쉽게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집을 내주기가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반겨주는 케이크와 많은 음식들은 우리의 순간들을 더욱 특별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더욱이 행운이 따른 것은 저희가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세계 축제 규모의 게이 페스티벌이 열렸던 것입니다. 온 도시가 너무나도 자유로웠고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다들 축제를 즐기고, 모두 환영해주며 너무나도 재밌게 놀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워크캠프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서울 게이 페스티벌에 여러 보수단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 간의 싸움을 뉴스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이 사람들을 이상하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들을 존중해주는 분위기, 또 게이 페스티벌 자체를 하나의 축제로 보는 분위기는 새로웠고, 너무 자유로워서 부러웠습니다. 또한 많은 워크캠퍼 아이들 역시 즐기며 축제를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독일로 떠나오기 전부터 살짝 기대만 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기대만 하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 5명은 암스테르담으로 나머지 7명은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으로 팀을 나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거나 이동할 때와는 다르게 긴 이동시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을 하니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동하는 순간 역시 즐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멋진 도시에 모두 넋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배낭 하나만 메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구경하고, 힘들거나 배고플 때는 잔디밭에 않아서 쉬거나 빵을 먹기도 하고 운하 주변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웠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행했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도시만 잠깐 보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로서 도시를 발이 아플 때까지 돌아다니다 보니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나라답게 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모든 곳을 돌아다닌 경험은 멋진 기억들 속에서도 베스트로 꼽히는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일정 때문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아이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나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싶지만 한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분이 상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워크캠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괜히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이 아이가 나와 이야기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과 함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의견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많이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이 아이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었나, 다시는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아이가 해줬던 말을 정말 인상이 깊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모든 이유 있는 불평이나 말들은 자신에게 해주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피드백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평가해봤을 때, 저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기분이 상할 말을 하면 저는 그 말의 의미와 의견을 따져보기 전에 기분이 상할 것 같은데, 이 친구의 태도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의 태도에

워크캠프는 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값진 체험들을 저에게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워크캠프의 마지막 날 즐거웠던 경험들을 다 같이 썼던 종이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도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섰던 워크캠프를 오기 전의 전과는 다르게 많은 일에 도전하고 참여한 스스로가 놀랍고 대견했습니다. 또한 도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똥별 떨어지는 날 잔디밭에 누워서 다들 소원을 빌었던 일, 다른 워크캠프에 놀러갔던 일, 자전거를 타고 근교에 놀러가서 피크닉을 즐겼던 일, 브레멘에서 클럽을 가서 신나게 놀았던 일, 다른 워크캠프 아이들에게 한국의 게임 팅팅탱탱 후라이팬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매일 그 게임을 하자고 졸랐던 일, 애들이랑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열차를 놓친 일, 다음 열차를 기다리면서도 닌자 게임을 하고 역이 떠나가도록 웃었던 일, 배낭 하나 메고 새벽에 걸어서 캠프까지 돌아온 일,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탕을 해줘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매운 맛을 알려준 일, 처음 맛보는 한국의 매운 맛에 아이들이 눈물 콧물 쏙 뺀 일, 이탈리아의 소울푸드라고 파스타만 3주내내 주구장창 먹었던 일, 모든 아이들이 요리를 기본적으로 너무 잘해서 놀란 일, 각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던 일, 비오는 날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쓰고 자전거를 탄일, 매일 아침 마르셀의 기타 연주에 잠을 깼던 일, 헤어질 때 모두 펑펑 울었던 일, 베를린에서 캠프리더 로띠의 집에서 머물면서 워크캠프의 추억을 다시 되새겨본 일, 공항을 가는 기차까지 배웅을 와줬던 로띠와 뜨거운 눈물과 포옹을 나누었던 일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고민이 많고 겁이 많은, 도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내고 득과 실을 따지며 걱정을 먼저 한 사람' 이라고 정의를 내린 제가 무색할 만큼 저는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우리 워크캠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하자는 제안에 많은 아이들이 거절할 때도 저는 항상 ' Okay, why not?'이라고 대답하며 모든 할 수 있는 경험에 참여했고 실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그 모든 경험들은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적이고 반복적인 일에 적합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다부진 체력의 소유자인 유럽아이들도 저의 체력에 당할 순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동양인 소녀가 위험하거나 힘든 활동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하고, 알을 할 때나 즐길 때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놀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헤어질 때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Amazing Ji'라고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나 무엇인가 하자는 제안에 why not?이라고 되물으며 참여했던 것도 모든 참가자로부터 하나하나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캠프를 갔다 온 이후 한국에서 이 추억의 향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일, 모든 활동에 no라 대답하지 않고 ' okay, let's do it!' 이라고 대답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고방식부터 많은 행동에 변화를 준 정말 멋진 3주간의 워크캠프의 추억은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워크캠프 참가자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꼭 다른 나라에서 다시 한 번 워크캠프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곳에서 만난 멋진 인연들을 꼭 한 번 그 나라를 방문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김경아

워크캠프는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나의 한계다'고 생각한 제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준 경험들이었습니다. 사실 캠프를 떠나기 전, 제가 방문할 곳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스스로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바쁨 속에서 허덕이며 산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했고, 이번 여름방학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여유를 조금 즐기면서 활동하고 와야겠다!'란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고지에 많은 글을 쓰기 위해 문장의 공백을 없앤다면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문장이 되듯이, 우리 일상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백을 없앤다면 그것 역시 난해한 삶이 될 것 인데,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적절한 간격의 공백을 만들자고 다짐하며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느낀 마음은 '와, 이래서 유럽이구나! 정말 여유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 스페인 기차로 인해서 역을 잘못 내리기도 하고, 역사가 없어서 가만히 2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험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캠프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또 한 번의 당황스러운 순간은 그곳의 모든 친구들이 '영어'가 아닌 '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영어도 힘들었던 제게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을 할까?' 란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일단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모든 일에 참여하자!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동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한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선 3중 통역(?)을 거쳐야 하는 난관에 부딫히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덕분에 더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캠프를 시작한 저는 1)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한글 버전 번역 2)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방문자 안내 3)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표지판 페인트칠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유럽 특유의 '여유로움'을 정말 잘 체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친구와 둘이서 바쁘게 번역 일을 하고 있으니, 캠프 리더가 "그렇게 바쁘게 일 하지 않아도 돼! 쉬는 시간이야! 차 마실 시간!" 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매 번 일을 할 때 마다, 정말 여유롭게 꼭 중간에는 음료를 마시러 나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시에스타' 라고 해서 4-5 시에는 항상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패턴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 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그 뒤에 더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시에스타'가 지금도 부러운 제도 중에 하나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 덕분에 일을 할 때는 버겁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재미있었고, 그 곳 워캐머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에너지를 느낀 것은, 일을 제외 한 나머지 활동을 할 때 그 곳 워캐머들이 발산해준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순간들은, 그 곳에는 저녁 식사시간이 밤 9시였습니다. 한국에선 보통 좀 더 이른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10시나, 11시가 되면 취침을 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곳 친구들은 9시에서 10시까지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12시 정도까지 뛰어 노는 생활 패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자정이 될 때 까지, 어둡지만 미니 올림픽 게임도 하고, 산에서 뛰어 놀기도 하는 등 한국에선 상상하지 못한 자유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단거리 마라톤도 도전해 본 적 없는 저에게 '30km'를 걷는 경험은 제 마인드를 바꿔놓게 해 주었습니다. 약 8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걷게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열의 넘치게 걷고 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스페인 워캐머 친구들은 그 누구보다 파이팅 넘치게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런 긍정적 에너지 덕분에 저도 30km 이상의 순례길을 완주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던 제 다리가 움직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완주 후 그 어떤 뿌듯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젠 쉬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바로 수영장에 가서 2시간 이상 수영을 하기도 하고, 마치고 저녁을 먹고 밤 새 또 산에서 놀기도 하면서, 이게 내 마지막 체력이라 생각했는데, 하니까 또 잘 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계를 빠르게 규정짓지 말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정적으로 도전한 덕분인지, 캠프 마지막 날 외국인 친구들이 '대한민국 친구들, 한국인들 너무 긍정적이고 파이팅 넘쳐서 좋았어!' 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다이나믹한 순간, 순간들을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정의 에너지'를 얻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아침 7시 마다 요가를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제 변화는 이렇게 제 몸을 더 바삐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지만, '여유'를 잊지 않는 방법을 배워왔기에 중간 중간 저에게 '여유'라는 보상을 주며 그 어떤 대학 생활 순간보다 제게 꼭 알맞은 패턴으로 재미있게 지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연

독일에서 3주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생활한다는 것은 나에게 도무지 상상이 안가는 일이었다. 내 눈앞에 펼쳐질 풍경과 내가 겪을 경험들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기대되고 설렜다. 사실 새로운 경험들에 기대감도 컸지만 걱정도 많았다. 영어실력이 유창하지 않아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시설이 안 좋으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나의 우려와 달리 독일에서의 국제워크캠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독일에서의 워크캠프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자연환경과 건물들부터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지라 마을을 걷고 있으면 이게 진짜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갈 정도였다. 캠프 장소에 도착하니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숙소였고 곳곳이 알록달록 꾸며진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그 간의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을 나타내 주었다. 차에서 내리니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우리와는 다른 얼굴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 처음에는 낯설기도 해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몰랐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더인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해결해 주었다.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눈빛과 어눌한 말로라도 진심이 전해졌고 게임을 점차 가까워졌다. 서로의 이름을 외우는 게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게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웃고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 캠프가 특이했던 점은 숙소와 일하는 장소가 같이 있다는 점이다. 대게 숙소와 일하는 곳이 따로 있어 일을 하려면 아침마다 가야한다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우리는 숙소가 곧 일터였다. 숙소는 원래 세미나 하우스로 이용되는 곳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단체로 묵고 가는 곳이어서 단체를 위한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 일은 주로 낡은 세미나 하우스의 내부나 외부를 가꾸는 일이었다. 페인트칠, 벽에 덩굴 자르기, 벤치 만들기, 잡초 정리하기 등등 근처의 모든 곳을 가꾸었다. 첫날에는 너무나도 쉽다며 3주 동안 가볍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조금씩 힘들어졌고 피로도 쌓였다. 하지만 피로는 점점 더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며 희미해져갔다.

평지에 광활하게 펼쳐진 자연들 속에 위치한 우리의 숙소 근처에는 강이 있었다. 조금만 걸으면 길게 펼쳐진 작은 강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담요를 깔고 친구들과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라의 문화나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먹는 과자와 티의 맛이 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큰 호수에도 놀러가고 볼링장에도 가고 3일간 열렸던 렌턴축제에도 갔다. 날씨가 허락해주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여유를 즐기며 놀러갈 수 있었다. 특히나 세미나하우스 안에 자그마한 풀장이 있어서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땐 그냥 풍덩 서로를 빠뜨리며 놀기도 했다. 주말이면 온전히 주어지는 자유시간 이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지 계획했다. 조금이라도 알차게 이용하고 싶었다. 근처 도시에 가보았는데 하루는 큰 바다가 있다기에 기대를 했으나 거의 바다 같은 큰 강이어서 허탈해하기도 했지만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 걸어서 서로 지치기도 했지만 결국엔 우리는 웃고 떠들며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그 다음엔 좀 더 큰 도시인 브레멘에 가서 독일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아니었기에 더 특별한 경험이었고 많은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바다를 갈 수 있었다. 북해에 가서 아주 거대한 갯벌에서 무릎까지 빠져보기도 하고 유명한 생선요리도 먹을 수 있었다. 한국보다 훨씬 부드러운 갯벌의 감촉에 놀라며 주저없이 빠져보기도 했다.

또한 굉장히 소중한 체험을 했다. 우리끼리 회의 중에 하루를 전기 없는 날로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견을 일치하는 과정은 사실 매우 힘들었다. 대부분은 동의를 했지만 몇몇은 원하는 예외 조건이 있었고 한 명은 아예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모두가 한명씩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말했고 존중하며 조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기분이 상해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끝에는 서로 이해하고 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나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전기가 없는 날인 대신 저녁에는 주인 아줌마와 아저씨께서 바비큐요리를 해주셨다. 우리는 모두 밖에서 호화롭게 맛있는 바비큐를 먹을 수 있었고 어두워지자 촛불을 켜고 모닥불을 피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촛불은 더 예뻤고 모닥불은 화려하게 타올랐다. 그 주위를 빙 둘러앉아 노래도 부르고 서로 문화에 따른 각기 다른 종류의 춤도 배워보며 한참을 웃었다. 말이 온전하게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것이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수없이 떨어지는 별똥별을 본 것이다. 그 날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같이 둘러앉아 맥주를 마셨고 밤이 점점 더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들이 너무 많아 정말로 쏟아질 것 같았다. 담요를 깔고 누워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별들은 쏟아질 듯 흘러넘치고 별똥별이 너무 많이 보여서 놀랐다. 정말 큰 별똥별도 있었고 소소한 별똥별도 보았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해서 잊을 수가 없다. 일을 하면서 낙이 있다면 뭐니뭐니해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을 만드는 것도 우리끼리 상의해서 어떻게 역할 분배를 할지 회의했다. 갈등도 있었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진 않았지만 우리는 요일을 정해 역할을 나누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만드는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각자가 많은 사람들의 요리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서로 도와가며 시도하면서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고자 노력했다. 나는 한국의 음식을 최대한 맛보게 해주고 싶어 쌀도 사서 볶음밥도 하고 김치를 사온 것도 맛보게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들은 아침에 따뜻한 음식을 별로 안 먹는 걸 모르고 아침에 열심히 밥을 준비했는데 그 점이 실수였다. 그래도 실수를 통해 깨닫게 되었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음식을 만들었고 다들 너무나도 솜씨가 좋아서 매 식사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고 마지막 전 날에는 모두에게 편지를 썼다. 준비된 봉투에 각자의 편지를 넣었다. 나는 한국에서 복주머니를 사가서 그 안에 사탕과 편지를 넣어 준비했다.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주며 포옹을 하고 그 동안 서로간의 추억을 회상하며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에는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주인아줌마와 아저씨의 포근한 미소와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니 눈물이 나오고 말았다.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준 모두에게 고마웠고, 우리가 언제 또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갖고 만나 힘든 점도 많았지만 또 그것이 일치되는 과정을 느꼈기에 너무나 잊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서로 멀리 있지만 아직 그 여름의 추억은 내게 남아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모두 헤어져야 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가득했던 워크캠프가 나에게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너무나도 소중해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막상 워크캠프 동안에는 일이 힘들거나 말이 안 통할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지금은 그 워크캠프를 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그립다. 3주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봉사를 하고 추억도 쌓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또 다시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여름, 워크캠프를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앞으로 친구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심경혜

워크캠프가 끝나고 한 달이 더 흐른 지금도 우리가 함께 부르던 "Stand by me"의 친숙한 노래 가사가 들리는 날이면, 나는 그 친구들의 미소가 떠오르곤 한다. 열 명의 유쾌하고 멋진 여성들과 함께한 2 주간의 캠프는 언제 들어도 편안한 팝송처럼, 어느덧 입가에 미소를 남기는 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짐을 챙기고, 프랑스에 도착하여, 그녀들을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이 경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선물해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한 듯하다.

"7월 11일 (Day 1) 캠프 애들과 앞으로 재미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 설렌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페이스북에 우리 캠프만의 페이지가 생겨 몇몇 친구들의 이름과 국적을 미리 익힐 수 있었다. 막상 오프라인으로 만난 첫 날, 감회가 새로웠고 어떤 사람들일지 호기심에 더욱 가득 찼던 것 같다. 그 날, 무거운 짐을 이끌고 오느라 다들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소개부터 드라마 얘기까지, 수다 꽃은 어색함 속에서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학교에서 같이 선발된 밝은 지원이; 타지에서 만나 더욱 반가웠던 한국 친구들 영리, 시원이; 이탈리아에서 온 반전 매력 Rebecca랑 목걸이로 구별하곤 했던 유쾌한 쌍둥이 자매 Asia 와 Gloria; 체코 출신이자 귀여움을 담당했던 Veronika, 엉뚱함과 끼가 넘치고 키가 커서 부러운 Anna; 러시아에서 온 인재, 유혹적인 Elena; 마지막으로 프랑스 리옹 출신의 맏언니 캠프 리더 Emmanuelle까지 총 열한명이서 생활했다. 첫 만남당일에 쓴 일기를 보면 "재밌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예측은 정확했다.

둘째 날의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쯤, 손에 와인과 과자를 안고, 처음으로 우리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삼삼오오 Pot d'accueil 행사에 모인 아름다운 모랑세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져 나중에는 장난도 치고 이별도 너무 아쉬웠던 Viktor, Damien, Benjamin, Corentin, Julien, 소방관 아저씨들 등 모든 마을 사람들 역시 워크캠프의 소중한 추억을 장식해 주었다.

"7월 13일 (Day 3)~ 7월 24일 (Day 13) 감사하다"

워크 캠프 기간 동안 몸이 고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기쁘고 신났던 일들도 많았다. 월요일, 캠프 셋째 날부터 본격적인 재건이 시작되었다. 그때 유별나게 뜨거웠던 프랑스의 태양을 머리 위로 한 채 공사장까지 향하는 자전거 오르막길은, 일기장에 기록된 생생한 표현에 따르면: "터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하체는 고통에 덜덜 떨릴"정도로 힘들었다. 부끄럽지만, 덥고 지친 상태에서 4시간동안 망치질과 삽질, 돌 나르는 일, 시멘트 칠하는 일을 온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하다 보니, 속으로 불만도 품었고 참 비관적이었던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의 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소중하고 참 좋은 이유는, 아침마다 하루도 안 거르며 우리한테 맛있는 음료수를 사다 주신 할아버지의 친절함에 감사하는 마음, 아침 간식을 챙겨주곤 하던 마을 사람들의 인심, 캠프 단원들과 힘든 와중에도 서로 으쌰으쌰하며 각 국의 신나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일한 여유, 서로 웃긴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웃음바다가 된 순간들, 모두 땀을 흘리며 힘을 합쳐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과물 때문일 것이다.

신기한 것은, 절대 적응이 안 될 것 같았던 오르막길이 캠프 2주차에 접어들자 점점 쉬워졌고, 나중에는 굳이 쉬어가지 않아도 공사장에 거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숨차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자전거 길이 공사장으로 갈 때만 가파른 오르막이었을 뿐, 일이 끝나고 캠프로 향할 때는 반대로 가파른 내리막길이 되어 스릴 넘쳤고, 내려갈 때 온 몸의 흙을 털어주며 스치던 시원한 바람은 달콤하기까지 했다. 몸이 힘든 와중에도 페달을 계속 밟으며 눈에 담아 온 모랑세 아침만의 아름다운 풍경: 표지판이 참 많았던 그 길, 드넓은 포도밭, 떠오르는 아침 태양, 금빛을 띄는 돌들로 만들어진 집들, 빵집 앞에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지나가는 우리들을 응원해주던 동네 아저씨들까지,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 나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타국에서 사는 그들(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선입견과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며 일 했던 나 자신에게 참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모름지기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임했을 모든 캠프 단원들에게도 대견한 마음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공사장에서 갔다 오면 씻고 점심을 먹었다. 일 하고 먹는 점심은 참 맛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할 때, 2명은 한 팀이 되어 집에 남아 청소를 하고 밥을 준비해야했다. 팀은 돌아가면서 바뀌었는데, 청소와 밥을 다 하는 것, 특히 샤워실이 각각 포함된 화장실 2개를 닦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몇 시간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부족했던 아침잠이나 체력을 충전하거나, 멀리서 걱정하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손빨래를 하거나, 깨어있는 친구들과 수다 떨며 놀다보면 자유시간은 금방 흘러갔다. 자유 시간 이후에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있었고, 필수는 아니었기에 몸 컨디션에 따라 선택 참석 할 수 있었다 (평일의 경우, 다음 날 새벽에 또 공사장으로 가야 했기에 컨디션 조절은 다른 캠프 단원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했다).

나는 발과 다리 전체가 심하게 부어 아팠던 날에 있었던 하나의 일정(마을에서 만난 귀여운 꼬마네 집을 잠시 방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랑스 혁명일 파티와 마을 축제 (둘 다 마을 단위로 개최되었고 남녀노소 한 장소에 모여 춤을 추는 광경이 참 이색적이고 보기 좋았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까운 도시: 리옹 관광, 다른 이웃 캠프들과 함께한 축구 경기 대회 (Rhon Diversity Cup, 우리 모랑세 팀이 1등을 해서 트로피를 받았고, 캠프 마지막날엔 프랑스 전통에 따라 트로피에 와인을 부어 다 같이 마셨다), 와인 시음회 (모랑세는 보졸레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다), 소방서 견학, 휴양지 앙스 호수(Lac Anse)에서 수영, '국제 음식 행사' (각 나라 요리들을 먹어볼 수 있었다. 캠프 단원들은 자국의 음식을 요리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음료수와 음식들을 가져와서 참 풍족한 저녁 만찬이었다. 참고로 우리 한국 팀은 라면, 상추에 삼겹살과 쌈장, 미숫가루, 호떡 등을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처음으로 불어로 자기소개를 각자 하고 인사를 나눴던 뽀다끄유 행사 (Pot d'accueil)와 10일 동안 공사한 빨래터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리 만든 포스터와 함께 각자 나라에 대한 발표를 한 마지막 날까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뜻 깊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7월 25일 (Farewells!) 나는 미완성"

"마지막 밤, 섭섭한 마음이 쉽사리 가시지 않은 듯, 밥 먹는 넓은 방으로 모두 침낭을 끌고 왔다. 마지막 밤의 마지막 이야기꽃을 피우다 다 같이 잠이 들었다. 아침에 애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그냥 내일도 공사 일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기 전, 잠이 덜 깬 상태로 서로 인사를 건네며 아침 식사를 할 것만 같았다." 캠프에서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아쉬움이 아직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 그만큼 캠프원들과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졌었고 정이 많이 들었었나 보다. 지금도 그 그리운 마음을 못 접어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짧고도 긴 2주라는 시간동안 함께 머물면서 타인을 알아가는 것은 참 흥미로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나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아직 부족함이 많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워크 캠프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새롭게 배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픈지, 살아가고픈 인생은 어떤지 작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금빛 돌(Pierres dorees)의 마을', 모랑세에서 스친 금빛 인연들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이소림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 기대와 설렘으로 들뜨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닐까. 이번 워크 캠프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파견이 결정된 시기는 6월 초. 캠프의 시작을 삼 주 정도를 남긴 때였다. 공교롭게도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이를테면 어떻게 한국을 소개하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은 우려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주할 수 있는 작은 악기를 챙기고, 악보를 외우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한국 음식 메뉴를 조사하고 장을 보는 일은 오히려 간단했다. 인포 시트에 적힌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종이 안의 간략한 설명에 따라 최대한 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봉사활동에 대비해 짐을 꾸렸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사전 조사'였다.

크게는 내가 가게 될 나라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로 시작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가자로서 본인의 문화와 현황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작게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교통편, 비상 연락처, 환전 시스템, 인터넷 사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모두 사전 조사의 일환이었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점이다. 우리나라와 현지 캠프에 대해 어디까지 조사해야 충분한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출발 삼일 전이 되자 막연히 설레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인터넷을 뒤지던 한 달 전의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걱정만 태산 같았다. 결국 출국 전날 밤까지 컴퓨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새벽 늦게야 잠을 청했다.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철도 안에서 졸린 눈을 비비다 아차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체력 보충이었는데...

캠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도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의 첫 경유였던 탓에 터미널을 잘못 찾아 길을 헤매기도 했고, 스페인의 렌페는 안내 방송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도착지보다 일찍 역에서 내리는 바람에 역사도 없는 낡은 시골길의 정거장에 무거운 짐을 들고 두 시간 동안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했다. 원래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결국 마중을 나오기로 했던 캠프 사람들과 시간이 엇갈려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부터 같이 출발한 친구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면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현상이 생길 법한 경험들이었다. 다행히 친절한 현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의 큰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10명이 넘는 참가자 모두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것. 심지어 러시아 친구 한 명을 제외하면 캠프 리더를 포함한 봉사자 전원이 스페인 출신이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 스페인어 회화 수준으로는 소통하기 역부족이었다. 결국 참가자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자 대화에 일정한 패턴이 생겨났다. 스페인 친구들이 캠프 리더의 말을 영어로 옮겨주면, 나는 다시 그 영어를 같이 온 한국 참가자 친구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간단한 스페인어나 영어를 서로의 도움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다. 굳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짓 손짓으로 척하면 척, 이해하는 일도 종종 생겼다.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 자체는 간단했다. 마을 소개 자료를 번역하고,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청소하고,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순례자들의 길 안내를 돕는 일을 매일 돌아가며 함께했다.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체력 소모가 덜 들어가는 일이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둘째 날 마을의 간단하게 마을 투어를 하면서 '파드론'이라는 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성 야고보의 유해를 싣고 정착한 사도들의 이야기로 시작한 마을의 유래와 순례자들에게 이곳이 지니는 의미, 로살리아 카스트로와 같은 유명 작가의 고향으로써의 파드론, 마을 특산품까지,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곳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캠프 기간 동안은 매일 일이 끝나면 숙소인 학교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오후 프로그램과 저녁식사 후의 밤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했다. 자유 시간 대신 전체 프로그램이 짜여 있던 부분도 역시 흔히 들었던 체험 수기와는 조금 달랐다.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참가자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캠프 리더들이 고심한 일정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복병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었다. 스페인의 한여름은 해가 무척이나 늦게 진다. 저녁을 먹는 시간도 아홉시가 지나서였다. 밤 열 시가 되어서야 해가 지기 시작하는 탓에 하루도 무척이나 길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자정까지 계획된 일정을 따르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었다. 몸이 지치기 전에 머리가 둔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온 우리 둘만이 말이 통하지 않아 하루 종일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도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사히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한국에서도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외국인 친구 한 명을 놓고 다른 한국 친구들과 다 같이 어울릴 때,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하물며 캠프에 참가한 참가자들 중 대다수는 내가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수준의 기초적인 영어 밖에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색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짧은 영어로 말하려 노력하고, 자기들끼리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거듭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주말의 파티에든 어디든 같이 초대하고 어울리려 시도하는 모습이 나를 가장 크게 감동시켰다. 이렇게 애써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해내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캠프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주 '다이나믹'했다. 산티아고에서부터 파드론까지 한나절을 걸려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경험, 그렇게 퉁퉁 부은 다리로 다시 수영을 하러 나갔던 일, 주말에 산티아고에서 밤을 새면서 축제를 즐겼던 기억, 미니 올림픽 게임에서 처음으로 활쏘기를 했던 경험, 마니또 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에 선물로 줄 그림을 그렸던 일 모두 지금

열흘간의 짧고도 길었던 캠프를 마치고 생각해 보면 사소하게 나의 시야를 넓혀 주는 경험들이 많았던 것을 느낀다. 언제나 바쁘고 '빨리 빨리'를 추구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느긋하게 한낮에 낮잠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일하는 중간 중간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하다못해 맥주 한 잔을 시켜도 작은 안주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까지 모두 캠프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경험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준비했던 것만큼 한국에 대해 알려줄 기회가 적었다는 것 정도일까. 그렇지만 헤어지면서 나눴던 스페인 친구의 말을 떠올린다면 어쩌면 그 어떤 말을 통한 홍보보다도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낸 걸지도 모르겠다. '너희를 보면서 한국인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사실 십 년 후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배울 수 있었고, 처음 지원했을 때 마음 그대로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더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고, 국제 문화 교류 및 자원 활동에 경험을 더 쌓아서 언젠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까지도 도전해 보고 싶다. 앞으로 누군가 국제자원활동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이하늘

워크캠프 시작 전, 회화스터디를 신청해 한 달 정도 회화연습을 하고 떠났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3주간 영어로만 소통해야한다는 점이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캠프 장소에 도착을 한 직후에 친구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 떨렸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캠프리더에게 "I can't speak English very fluently, so I'm very worried that I can not communicate with you guys."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캠프리더가 "No, you are so good at speaking English! And we all are not fluent, either. So don't worry!"라고 대답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또한 영어와 관련된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서양친구들과 한국인인 저. 그리고 함께 갔던 언니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가장 큰 차이는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3주간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보니 느낀 것은 교육의 차이가 개인적인 성향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입식 교육을 아주 성실히 받았던 입장이었기에 처음에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에 겁을 많이 먹었지만 경청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럽식 교육을 받은 캠프친구들은 자신의 입장표명에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확실히 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에 대한 경청의 자세는 조금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과 서양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한국교육의 나쁜 점만을 더 생각하고 국민성의 문제점만을 생각했었는데, 캠프기간동안 어느 나라에도 '완벽한 교육시스템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도 해 보았지만 오히려 유럽의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의 힘을 믿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입식교육이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형성된 경청과 겸손의 문화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공존은 어떠한 문제에도 상존한다는 생각을 마음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캠프에서 한 일은 캠프장 주변을 재설계하고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게 주어진 구체적인 일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캠프장 자체는 매우 좋았고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그 모든 시설이 너무나 좋았긴 했으나 계속해서 일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그저 캠프주인 부부가 재건축을 하는 비용을 덜기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되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캠프주인들께서 저희에게 "If you rest now, you must work extra 2 hours after all finish their work."과 같은 말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하시기도 했는데 그 말이 저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이긴 하지만 저희는 좋은 일을 하러 '자원'해서 온 것이고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런 말을 듣는 것은 기분이 썩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원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문해보기도하고 혼란스러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고 어떤 봉사도 그 당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무리도 좋게 끝맺었습니다.

또 다르게 깨달은 것은, 남자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성차별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자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위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대를 다녀서 남자인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볼 기회가 없던 저였기에 독일에서 남자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성차별의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른 편에 속하는데 무거운 것을 들 때 남자친구들이 자진해서 많아.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해 고마워했지만 3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것은 제게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3주 동안 사실상 제가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물건은 없었는데 제가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전에 남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제 일을 가져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고 제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들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이런 제 생각을 들려주었으나 ' 무거운 것은 당연히 남자가 들어야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친구는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 친구들에게도 말입니다. 다른 여자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밤에 다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문화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배운 개인에게 성차별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차별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생각해온 범위를 벗어나 새롭게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캠프를 통해 제가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제 스스로에게 당당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일인 양 그러한 상황에서 움츠러들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서 많은 나라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에 당당하고 그것을 남에게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제 성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If you don't tell what you think to people, they can't know how amazing a person you are."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제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표현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제가 실제로 제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솔직해진 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캠프를 통해 내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었고, 다른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국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터키, 벨라로스, 러시아였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 마음 속에 must-go places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자원봉사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정현빈

내 삶의 물음표, 워크 캠프! 워크 캠프를 다녀오기 이전까지의 저는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부담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대학 입학만을 위해 달려왔으며, 대학 입학 후에도 교직 이수를 위해 철저하게 학점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내 분야에 맞는 자격증과, 경험들을 갖춘 사람이 될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 달리고 있기에 저 또한 조급해하며 달릴 뿐이었습니다. 확고한 목표가 없기에 이는 뼈대 없이 쌓은 건축물과도 같았고,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마음 한 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워크캠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곳의 멤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받은 처음 인상은, 외양은 좀 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16~18세밖에 안 되는 '애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삶을 잘 즐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국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조금도 재는 모습도, 따지는 모습도 없이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굉장하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3주의 짧은 시간 동안 다가올 이별을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던가, 악기와 스포츠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잡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확실히 하는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그들의 교육 환경이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잘 적응하는 학생, 즉 모범생 취급을 받던 제가 막상 밖에 나가니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워크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요즘, 저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도 고민하지 않던 문제를 놓고 고민해보려고 하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워크캠프로 인해 고민을 바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제가 과연 교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첫 발을 떼도록 도와주는 일에 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나무처럼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가 근원적인 답을 찾았을 때 저는 좀 더 단단해질 것이고, 뿌리가 잘 잡히고 튼튼한 가지를 가진 나무처럼, 세상과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최지원

중학생 때 패키지로 3박 4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가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나마도 장염에 걸려 고생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외국 문화를 즐기는 건 정말 이번이 첫 경험이 되는 것이었다. 학교의 시험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이것저것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사고, '캐리어 싸는 팁', '프랑스 전철 지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준비했다. 사실 출국 전날까지 전혀 실감이 되지 않았다. 빵빵하게 캐리어에 짐을 가득 채워놓고 몇 번씩이나 확인을 마친 후 아침 일찍 공항에 가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제야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가 프랑스에 가는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만이 들었다.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면서도 혹여나 다른 참가자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크게 다쳐 일찍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했다. 덕분에 그 날의 나는 오히려 평소보다 적은 시간을 자게 됐다. 그러나 여행 가기 전에 앞으로 있을 일들의 것들을 모두 미리 걱정해버린 탓에,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숙소를 찾고, meeting point에 가는 것까지 꽤나 별 일 없이 잘 해낼 수 있었다.

도착 후,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먹고 난 11명의 우리는 피곤함을 못 이기고 일찍 잠에 들었고 그 다음 날부터 캠프에서 몸 풀기를 시작했다. 처음 만나서 어색하기 짝이 없던 우리는 워크 캠프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일할 곳을 미리 찾아가 보았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 담쟁이가 길게 넝쿨을 늘어뜨려 놓고 있었고 벽돌담 곳곳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고생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다만 슬슬 워크캠프에 왔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월요일. 원래는 이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우리들 중 두 명은 숙소에 남아서 점심을 준비하고 숙소를 정리해야 했다. 첫 타자는 나와 이탈리아 친구였다. 넓은 숙소를 청소하고, 많은 인원이 먹을 요리를 한꺼번에 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아직 워크캠프가 시작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어머니가 보고 싶어지면서 항상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하시고, 다섯 식구의 밥을 챙겨주시던 모습이 아른거려 죄송해지기 시작했다. 이 때 느꼈던 죄송함 때문인지 한국에 돌아와서는 설거지도, 청소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주 도와드리게 됐다.

본격적으로 워크캠프를 시작한 것은 화요일부터였다. 우리들은 단단히 채비를 하고 일터로 떠났다. 일은 단순했지만 매우 고됐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선크림을 잔뜩 바른 채 자전거를 타고 20분 동안 오르막길을 달린다. 일터에 도착해서는 그 날 그 날의 할 일을 듣고 따라하면 된다. 일주일 내내 벽돌틈 사이에 있는 시멘트를 깨부수었다. 'Rocking'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는 온갗 시멘트 가루가 눈과 코, 입에 온통 들어왔고, 결국 다음 날 나는 내가 가져왔던 일회용 마스크를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눈 보호대도 곧 준비됐다. 온통 무장을 한 채로 Rocking 작업을 마친 후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먼지를 털어내고,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다시 채워 넣었다. 넝쿨들도 다 제거하고 울퉁불퉁 했던 가장 위층도 고르게 정리했다. 매일매일 땡볕에서 일하는 우리는 어느새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기도, 새까맣게 타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어느 늙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매번 음료수를 사주시기도 했다.

평소 새로운 것이 없었던 Morance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커다란 이벤트였다. 마을은 우리가 있던 이주일 내내 무언가를 해주려고 애쓰고, 우리와 늘 함께였다. 심심했던 18살친구들은 틈만 나면 캠프 숙소로 놀러 와서 우리와 수다를 떨었고, 세계 각국의 카드게임을 함께 하며 설령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어울렸다. 혁명일 불꽃놀이 파티나, 소방관 주최 불꽃놀이 파티에도 우리와 같이 다녔다. 파티를 가거나 축구를 했고 하루는 마을에서 작업하는 화가 아주머니도 우리를 초대해서 그림을 설명해주셨다. 그 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처음으로 이웃에게 초대 받았을 때, 엄청난 프랑스의 정통 코스 요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아주 오래도록 얘기를 나눴다. 그 후 우리가 특별히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 날도 있었다. 우리도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더 푸짐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우리들을 찾아주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초대 받았을 때는 함께한지 꽤 긴 시간이 되어서 그런지 사진에서도 친근함이 느껴졌다. 이 날도 배가 가득가득 찰 때까지 먹었는데,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이웃들이 많은 날이어서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대화도 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그들에게 커다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몇 개의 예상되는 이야기 주제들을 미리 준비해가서 더욱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거창하게 말해서 토론이지만, 토론이라고 부르기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은 워크캠프 기간 중 항상 있었다.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잘 꺼내보지 않던 이야기들도 많았다. 동성결혼 찬반에 대한 이야기나, 북한과의 관계, 입시 제도의 문제점 등 아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각국의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의외의 차이에 놀랐으면서, 또다시 의외의 공통점에도 놀라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열었던 행사에도 열렬히 참여해주었다. 열심히 준비한 'International Day.'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소개해주는 날이었다. 캠프의 부엌은 넓은 편이었지만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모두 있기에는 비좁은 장소였다. 다들 자신의 일회용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아 캠프 숙소 안과 밖 이곳저곳에 대충 걸터앉아 삼삼오오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한국음식은 가장 빨리 사라질 만큼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특히 불고기와 호떡을 좋아했는데 많은 양을 준비했음에도 순식간에 사라져서 못 드신 분들이 계실 정도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국가는 모두 유럽권이라서 익숙한 음식들이었지만 동양권의 음식은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듯 했다. 매운 쌈장으로 차력쇼가 벌어지기도 했다. 예전에 방문했던 소방서 사람들이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쌈장과 마늘을 먹으며 하나도 맵지 않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후 재빨리 물을 마시는 행동에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웃었었다.

다 같이 참여한 또 다른 행사로는 근처 워크캠프 지역으로 선정된 팀끼리 와서 Football 대회를 연 것이 있다. 정말 고맙게도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여 선수로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목청이 떠나가라 소리 지른 덕에 우리는 5개의 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우승할 수 있었다. 캠프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이 때 받은 트로피를 잔을 삼아서 와인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끼리 돌려 마시며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며 건배를 했다. 챙챙!(이탈리아) 샹떼!(프랑스) 나스트라비~(체코) 짠~!(대한민국)을 외치며...

지금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프랑스 인은 캠프리더를 제외하고 Viktor라는 친구가 있다. 18살 청년인 그는 간호사가 꿈인데, 마지막 날 밤에는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잠에 들만큼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우리가 온 덕분에 마을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Morance는 환경도 좋고 마을 주민들의 인심도 굉장히 좋지만 서로 간의 교류가 적었다고 한다. 항상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하는 일만 하다 보니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워크 캠프를 통해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단합되는 느낌이었다며 참가자들이 떠나는 걸 굉장히 아쉬워했다. 나는 워크 캠프가 사실 당사자들 개개인에게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환영과 친절함, 그리고 빅터에 말에 워크캠프가 단순히 '자원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적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할 때에 더욱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축제였다.





개인자원활동



박상원

이번에 참여한 워크캠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리서치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대감, 두려움 혹은 설레임은 따로 없었다. 게다가 케냐 역시 에티오피아와 같이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기에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우선 언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가 공식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다. 영어가 공식언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케냐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또한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한 문화교류를 즐긴다. 그 덕분에 나는 현지인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간호사, 연구원, 관리인 분들은 해외봉사자들이 와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병원에 많은 이점이 되고 또한 해외에서 봉사자들이 케냐까지 와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워크캠프 봉사자들은 약국, 치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원무과, 연구소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근무를 했다. 내가 일했던 부서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봉사자들도 있었는데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4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신속하게 친해지고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주말에는 시내구경을 하고 해변가 및 주위의 작을 마을에도 방문하였고 가끔 고아원에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린이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언제 어디서나 환대를 받아서 나 역시 봉사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감사했다.

나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외국에서 마쳤고 또한 국제관계학 및 국제개발학을 공부했기에 이러한 분야가 크게 생소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현장체험을 하고 주민들과도 직접 교류를 하는것은 나의 경험 및 지식을 좀 더 발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워크캠프는 나에게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 현재 프랑스에서 불어를 공부 중인데 조만간 아프리카의 영어권과 불어권 지역들에서 교육 및 인권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자 명단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KNCU-01, JEJU 2015.07.14~27

:•:	대한민국	i	고준수 김동규 박보성 이혁재 현동주 현창주
		•	김지윤 나규문 문보미
-	러시아	•	LARINA, Elizaveta
•	벨기에	İ	LUSTMAN, Arthur
*	스페인	i	RUBIO MENES, Miguel
		*	AGUIRRE ALVAREZ, Marina NOGUERA CAMPO, Sara
*)	중국	•	WANG, Ting
)	케냐	İ	KEMBOI, Jackson Kiplagat
C•	터키	i	YARKENT, Berkay
			YUCEL, llayda
н	프랑스		FERRIERE, Juliette

KNCU-02, MUAN 2015.07.21~08.03



342

KNCU-03, INJE 2015.07.21~08.03





KNCU-05, TONGYEONG 2015.07.21~08.03





KNCU-06, KOREA-JAPAN DMZ 2015.08.14~24



🗼 총 75명



유네스코 해외자원활동

7.15~29	도형동	i	그리스	=
7.11~25	이다영	Å		
7.20~8.8 8.3~22 7.25~8.15 8.1~23 7.27~8.15 7.11~25	김성준 김우현 서수연 이기철 정동수 지성일	ŧ	독일	-
7.25~8.15 7.25~8.15 7.25~8.15 7.25~8.15 7.12~24 7.25~8.15 7.25~8.15 7.4~18	권현지 신경연 이하늘 이희정 임희선 정현빈 최단아	*		
	강동렬 김관호 박근형 장재현	ŧ.	라오스 8.3~16	
	박소영 박예란 최수진	*		
8.1~15 7.13~8.2	김영재 신재엽		벨기에	•
8.10~28 7.20~31	유한솔 이혜경	Å		
8.3~15	정미진	*	스위스	•

	스페인	i	최희진 고영은 김경아 박은애 박주현 이소림 이주연 최영주	7.16~30 7.15~30 7.1~10 8.2~16 7.27~8.10 7.1~10 7.18~8.1 7.1~15
-	에스토니아	∦ ∔	최희조 이상빈 정덕진 백수빈 윤지윤	7.5~26 7.24~8.7 7.16~26 7.7~31 7.20~8.1
•	이탈리아	∦ ∔	박은수 강나영	7.1~15 7.13~27
	인도네시아 8.11~24	•	김태현 이정민 최영준 류승연 심재희 안명진 전지영 최민희 황지원	
	케냐	i	박상원	8.4~21

7.23~8.6	박미영	*	타이완	*
7.12~25 8.1~16 7.5~19	정영훈 구보미 지희수		폴란드	-
7.10~31 7.10~31 8.3~15 7.7~28 7.9~30 7.10~31 7.12~8.1	강석진 손정현 양제현 유한영 이민주 이재호 장정호	Ĩ	프랑스	•
7.11~725 8.11~9.1 7.11~25	심경혜 양소희 최지원	•		

🛔 🗼 총 66명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가핵묵등록번호 YT/2015/RP/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디 자 인 박차주

문 의 | 유네스코안국위원외 자세| 전 화 | 02-6958-4133 팩스

홈페이지 | www.unesco.or.kr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100-810

퍼 낸 글 2015년 12월 5일 펴 내 곳 | 유네스코하군위원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최종보고서